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8 Vol. 212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제2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지휘 | 오충근 (고신대 교수)

연주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BSO)

협연 | 데이비드 김 (바이올린), 최나경 (플룻), 한효림 (바이올린)

Program

차이코프스키 / 이탈리아 기상곡

P.Tchaikovsky / Capriccio Italien op.45

사라사테 / 나바라

P.Sarasate / Navarra op.33

메르카단테 / 플루트 협주곡 마단조 작품 57

S.Mercadante / Flute Concerto in E minor op.57

Allegro maestoso

Largo

Allegro vivace e scherzando

----- Intermission -----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F.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64

Allegro molto appassionato

Andante con moto

Allegro

시벨리우스 / 핀란드어

J.Sibelius / Finlandia op.26



2009 | 9 | 1 | 火 |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SO Members 제1바이올린 임병원(악장), 이정미(부악장), 흥기정(수석), 조영숙, 김희진, 이은실, 서영희, 손소영, 지희원, 이지윤, 임나리, 손주연, 김나윤, 전지원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황지원(수석), 권아름, 배연주, 김현정, 김신실, 정희경, 진선미, 임성은, 이수진, 정다혜, 이한울, 비올라 박주연(수석), 정지윤(부수석), 한동민, 곽유진, 하정호, 이승연, 이영화, 김나영, 김주희, 배소현 첼로 김판수(수석), 김정원, 최지양, 김혜은, 이원아, 박준현, 김유미, 하내희, 강진희, 이지수 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박지선, 김선경, 이현정, 박지영 플루트 최낙주(수석), 채성경, 박예니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 박소담 클라리넷 손기영(수석), 흥병희(부수석) 바수운 윤태준(수석), 김동주 호오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윤기영(부수석), 이신현 트럼펫 주현(수석), 전상윤, 박경열, 이민웅 트럼본 이용희(수석), 박서연, 유상미 튜바 김기울 팀파니 김정우(수석) 타악기 이유희(부수석), 전상천, 김윤수, 정종혁, 이경준 피아노 박진희(부수석) 총무 이용희 악보 문지은, 유종호 악기 이경준 무대 전상윤, 정종혁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Vn. 데이비드 김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수석
Fl. 최나경



미국 커티스음대(부산출신 차세대 유망주)
Vn. 한효림



고신대 교수
지휘 오충근



주최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Bⁿ 비엔그룹 후원 KNN 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티켓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의 KNN 1577-7600 www.knn.co.kr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YAMAHA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학교, 교회, 전공자 특별 우대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점	051-863-0900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메가마트 피아노사 동래점(3F)	051-582-0808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해운대 야마하 뮤직스쿨	051-741-7744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합창으로 보는 교과서"



지휘 **전 상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해설 **김종석**



Ten. **조윤환**



Sop. **전귀만**



Sop. **김양자**



반주 이영옥 · 안무지도 노금선 · 합창지도 김양자

현악 **사중주**(부산시립교향악단)
Vn1 신민정, Vn2 박언정, Va 성주연, Vc 전지윤, Fg 장보영

피아노 이승윤

해설 김 종 석(남성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

합창으로 듣는 기악음악(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사랑의 인사
피아노 독주 조혜정(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 즉흥환상곡
플룻 독주 박찬경(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 '헝가리 무곡' 중
현악 4중주(부산시립교향악단)
성악과 기악의 만남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Sop. 전귀만(17일), 김양자(21일), Ten. 조윤환
· La donna e mobile(여자의 마음) · Brindisi(축배의 노래)

교회음악[성가곡포함]
· QUANDO CORPUS(슬픔의 성모) · 아름다운 세상 주신 주께
한국가곡 보이소프라노 김종영 · 동심초
독일가곡 테너 조윤환
· Die Forelle(송어) · Una furtiva la grima(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태리가곡 소프라노 전귀만(17일), 김양자(21일)
· Songno(꿈) [17일] · La promessa(약속) [21일]
· O Mio Babbino Caro(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민요 · 아리랑 연곡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후원 FOCUS

2009.8.17(월) 17: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2,000원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2009.8.21(금) 17: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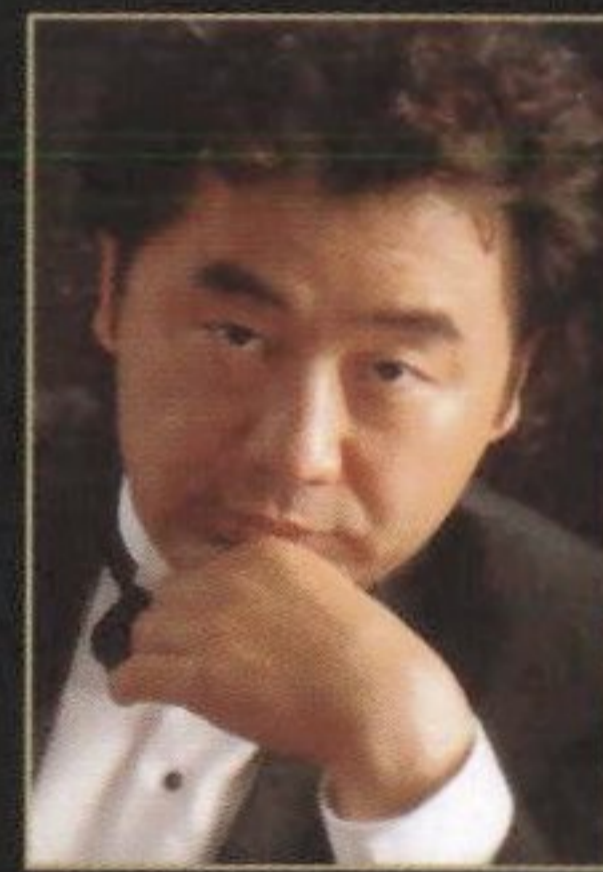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ticketlink 콜센터(1588-7890) www.ticketlink.co.kr

THE KOREAN SYMPHONY ORCHESTRA GERMANY

아이레네 Concert Series I

재독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초 내한공연

- 세계적인 *Trumpet. Jens Lindeman*
- 메트로 폴리탄의 영 프리마돈나 *Soprano. Angel Blue*
- 독일 도르트문트 필하모닉의 최초 한국인 수석악장 *Violin. 김신경*
- 아이레네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Music director & Conductor. 배종훈*



지휘 배종훈



트럼펫 엔스 린더만



바이올린 김신경






소프라노 엔젤블루




2009. 8. 8. (토)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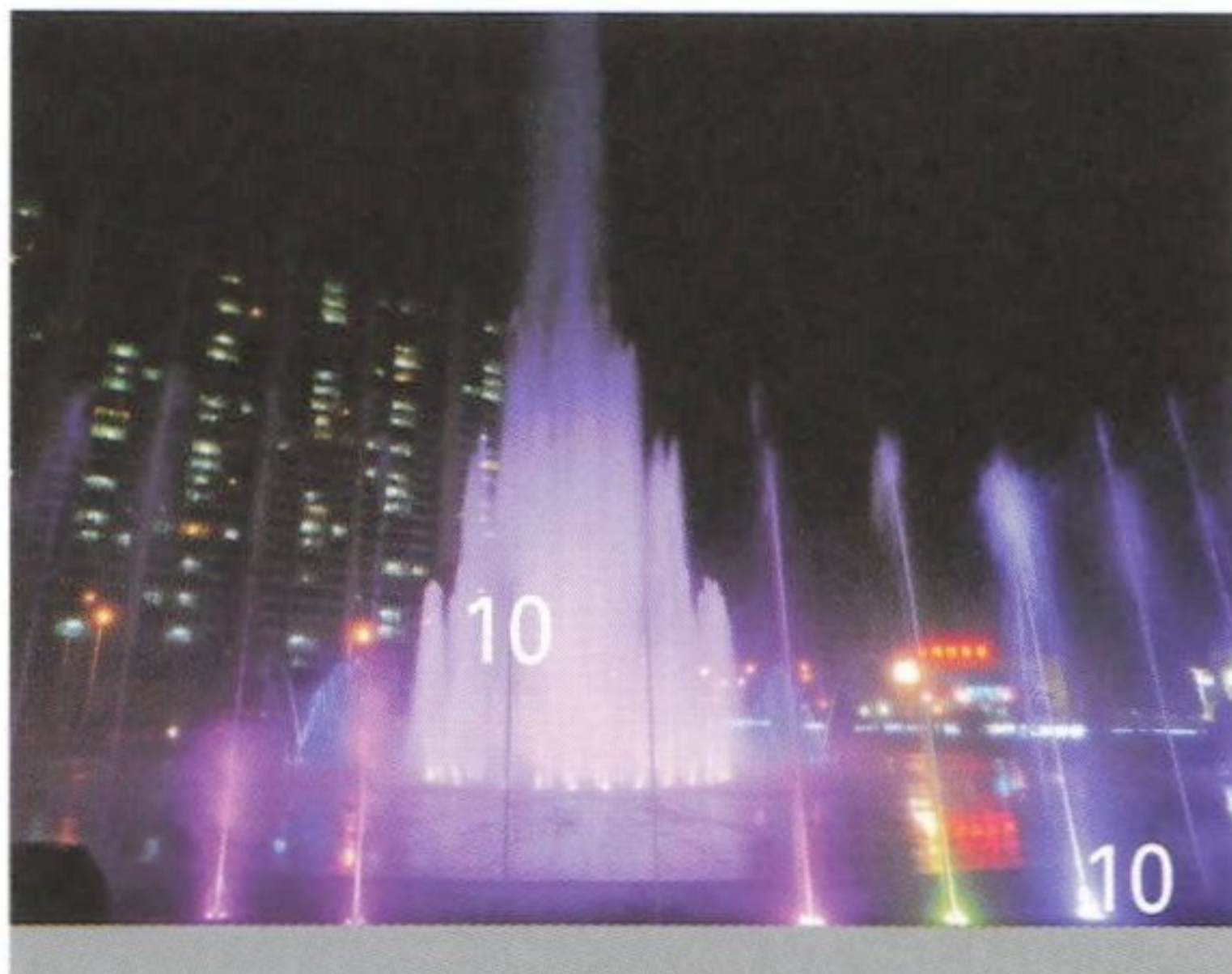
티켓 : S.VIP석 100,000원 / VIP석 70,000원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10,000원 / 학생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A석, 학생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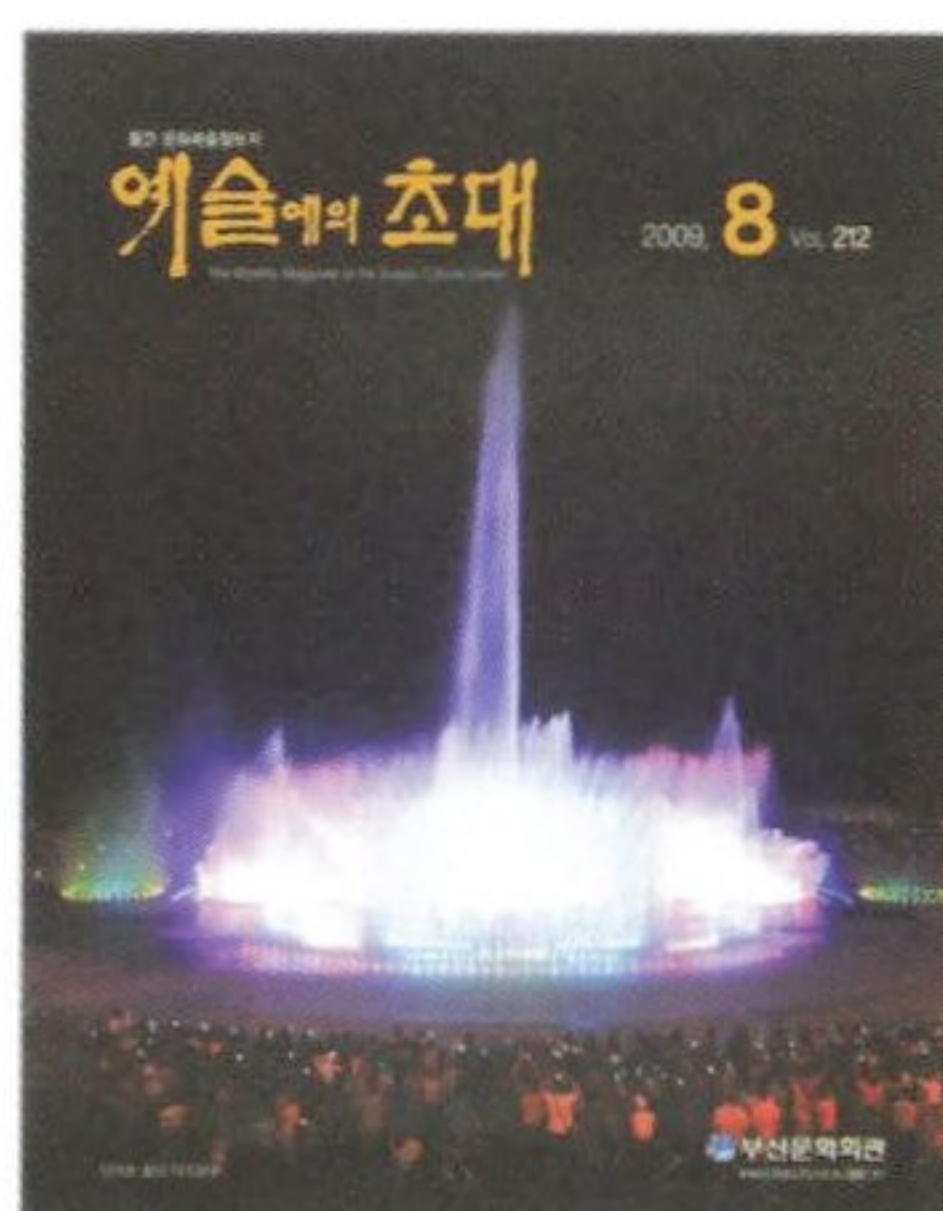
티켓안내 :  INTERPARK 1544-1555 /  ticketlink 1588-7890 /  AUCTION 1566-1369

공연문의 : [서울] 02) 3473-8802 / [부산] 예은예술기획 : 051) 632-6904

부산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 10 커버스토리 _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 12 프리뷰
- 18 반갑습니다 _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 지휘자 이동신
-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너구리가 대사? 세상에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나요? · 이승주
- 24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베르디 리골레토 · 김홍승
- 26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쉽 없는 도전과 변신 '프랭크 스텔라' · 채경혜
- 28 불멸의 거장, 말러 _ 말러, 어떤 지휘자로 고를까? · 김문경
- 29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그리스Ⅲ 그리스의 음악가들(3) · 황윤기
- 30 리뷰 _ 제 18회 부산무용제 · 조봉권
가면의 이편에서-진성훈<가면의 저편> · 김만석
- 32 그곳에 가면 _ 부산 소극장 100배 즐기기
- 36 프로그램 가이드
- 50 우리는 문화가족 _ 노래하는 경찰 서부경찰서 그린나래 합창단
- 51 나의 애청음반 _ 헨델 메시아 초연 250주년 기념 연주회 · 김중옥
- 52 새로 나온 책
- 53 100자 토크
- 54 부산문화회관 소식
-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 5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2009. 8 Vol.212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310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7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래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표지설명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로 무더운 여름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매일 밤 솟아 오른다.

2009. 8 AUGUST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8/30

소 | 참플룻 정기연주회 18:00
무료/김혜정(010-4016-7477)

8/31

9/1

대 | 2009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음악회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KNN(1577-7600)
중 | 고신대 관현악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이재민(010-8548-5562)

02

03

04

09

10

대 | 부산원로교향악단 제 2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예은예술기획(632-6904)

11

대 | 제4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애니메이션 음악
회 with 코스프레' 16:00, 19:0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747-7651)
다비드챔버오케스트라(010-3857-3937)

전시실

▶ 2009 여름방학 시원한 실내체험전 별난
체험교실 '꾸러기 오감여행' - 중전시실

7월 31일(금)~8월 30일(일)
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어린이 12,000원 · 성인 10,000원
(24개월 미만 유아·보호자 동반시 무료입장,
장애인, 군경, 경로우대 50%할인, 부산시립예
술단 정기회원 카드 제시 2,000원 할인)
문 의:허브앤드림(1544-9817)

▶ 제 35회 부산미술대전-초대작가전
-대전시실

8월 17일(월)~8월 22일(토)
문 의:부산미술협회(632-2400)

16

17

대 | 2010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프레음악회
6개 광역도시 및 제주도 교류음악회 19:3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019-567-7379)
중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합창으로 보는 교과서'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18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23

중 | 2010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프레음악회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우리음악콘서트 '신나고 재미있는
교과서 속의 우리음악이야기' 19:0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019-567-7379)

24

대 | 음악 · 세대간의 교감 19:30
부산예술기획(635-4728)

중 | 2010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프레음악회
제 10회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의 만남
19:30
2만원 · 1만원/부산음악협회(634-1295, 019-567-7379)

25

중 |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제 15회 정기연주회
'2009 부산 창작음악 & 클래식 음악여행'
19:30
초대/백진현(999-5265, 011-503-9541)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607-3100)로 예약하십시오.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중극장 무대시설 개보수

7월 13일~8월 21일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1
대 |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과천청소년교향악단의 클래식 향연 15:00
 초대/과천청소년교향악단(02-507-1498)

소 | 부산시립극단 제 10기 여름 연극교실
 10:00,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

05

06

07

08
대 | 재독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최초 내한공연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1만원 · 5천원
 예은예술기획(632-6904)

소 | 토요일상설무대-박성희판소리연구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2

13
대 | 부산클라리넷파이어 창단 20주년 및
 부산 MBC창사 50주년 기념
 제 1100회 MBC 목요일음악회
 '청소년 해설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이원기(010-8280-4646)
 이성관(010-4446-3321)

14
대 | 부산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화려한 음악여행
 19:30
 균일 1만원/윤두현(010-5872-8480)

15

소 | 토요일상설무대-서지영무용단
 '광복, 신명 춤 잔치'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9

20
대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
 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한여름 밤의 콘서트-국
 악과 성악의 만남' 19:3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21
대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오페라 합창의 밤'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중 | 부산시립무용단 2009.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2
대 |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18:00
 초대/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0-2070-9833)

중 | 토요일상설무대-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소 | 부산의대·치대·간호대연합 클래식기타연구회
 아현 제 28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이현주(010-7154-5363)

26

27
중 | 부산예술단 정기공연 '과거와 현재 미래...전통
 음악과 춤이 만든 소리의 맥' 19:00
 1만 5천원 · 1만원/부산예술단(254-9642)

28

소 | 어린 피아니스트의 밤 19:30
 무료/권미경(011-9538-2352)

29
중 | 제 5회 한국청소년 합창콩쿠르 11:00
 제 5회 한국청소년 합창콩쿠르 시상식 및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부산연주회 19:30
 무료/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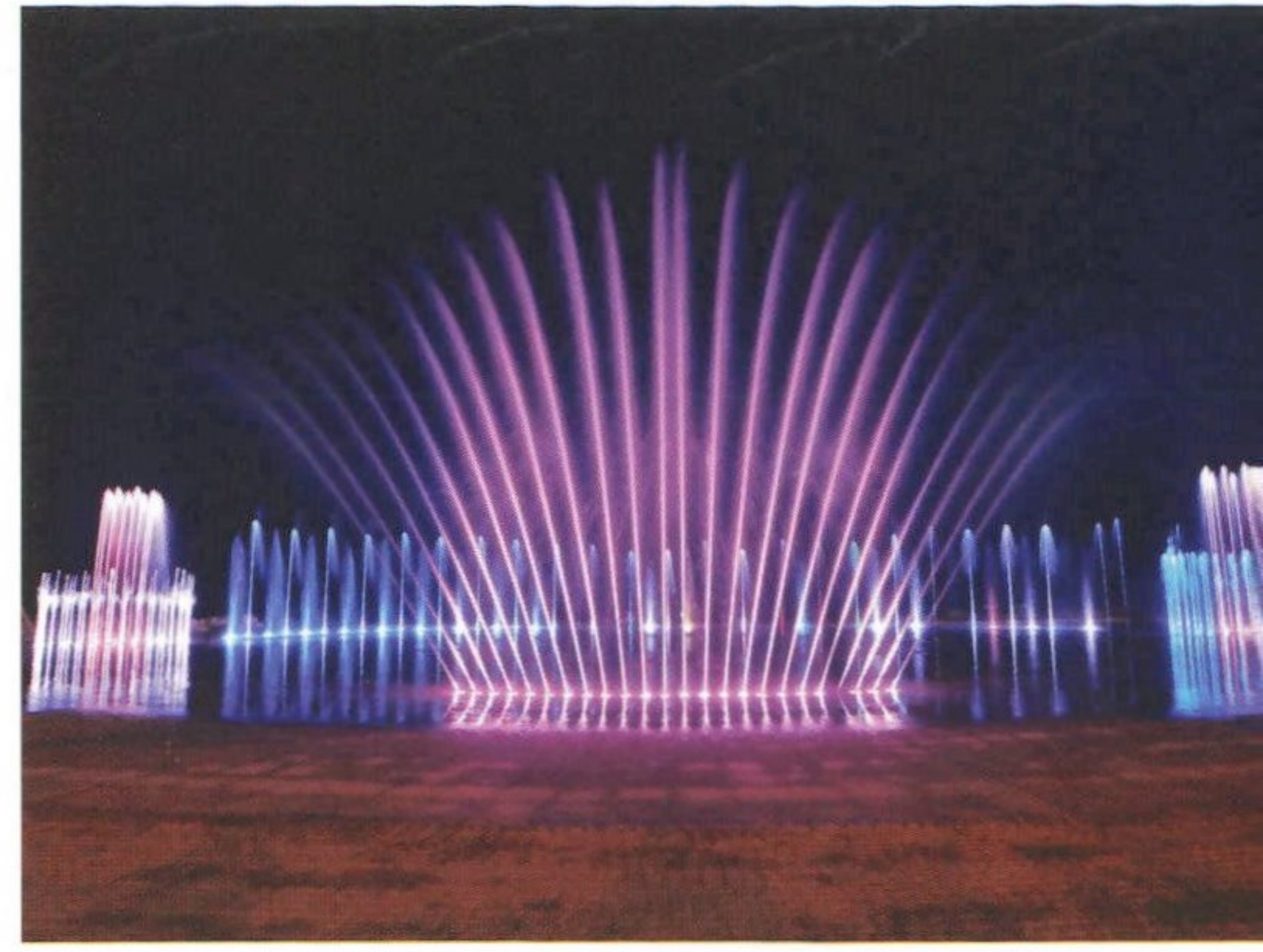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특별한 여름 밤

희망의 물줄기가 솟아 오른다





시원한 여름바다와 푸른 녹음 가득한 계곡으로 떠나는 여름휴가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올해는 어디로 떠나볼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도시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명소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 새롭게 등장했다.

지난 6월 13일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Dadaepo Sunset Fountain Of Dream)' 가 바로 그것. 넓은 백사장과 한여름 젊음의 축제로 유명한 다대포해수욕장에 들어선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는 최대 지름 60m, 둘레 180m, 분수 바닥면적 2,519㎡, 최고 물높이 55m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음악분수로 매일 밤 다대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부산의 첫 음악분수인 만큼 개장과 함께 많은 방문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 센토사 등지에서 볼 수 있었던 환상적인 음악분수 공연이 밤마다 펼쳐진다. 매일 밤 펼쳐지는 역동적인 음악분수공연 때문에 개장 한 달 만에 방문객 30만 여명을 기록했다. 음악의 종류에 따라 물줄기와 조명이 디자인되고 역동적인 분수 줄기는 장관을 이룬다.

저녁 음악분수 공연이 없는 평소에는 수조와 노즐이 노출되지 않아 분수광장이 문화행사, 공연, 놀이시설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7월 1일 다대포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는 해양경찰청 정비창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인 밴드가 '7080 음악회' 를 가진데 이어 7월 26일 오후 6시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미니콘서트 '음악세상의 작은 음악회' 가 열렸고 본격적인 피서철인 8월에는 1일 을숙도문화회관이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광장에서 마련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4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7일~9일 '제10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15일 사하구청년연합회의 강변음악회, 17일 범죄예방위원회의 청소년바다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사하구청에서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홈페이지를 개설해 분수 중계영상을 실시간 제공하고 시민들의 축하사연과 프로포즈 사연을 받아 분수쇼 중에 DJ가 소개해준다. 또 신청곡과 단체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화 사하구청장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를 시작으로 다대포해수욕장을 생태탐방로, 해수천, 방사림 등을 갖춘 해변관광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계획으로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운영에 적극적이다.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에서 펼쳐지는 화려하고 다이내믹한 빛줄기의 향연. 여름의 도시 부산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물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가 2009년 여름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과 감동의 물줄기를 쏟아 올린다.

▶ **분수운영시간** _

화요일~금요일 14:00, 15:00, 16:00 20분간 고정분수, 20:30~21:00 음악분수

토·일·공휴일 12:00, 13:00, 14:00, 15:00, 16:00 20분간 고정분수, 20:00~20:30, 21:00~21:30 음악분수

▶ **문의** _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http://fountain.saha.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09년 무대가 8월 18일 부산 청소년들을 찾아온다.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언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를 시작한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나는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은 내친구'는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현재 유라시안 필하모닉 CEO,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있는 금난새는 1998년 유라시안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연간 100회가 넘는 연주회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 40번과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 5번 '황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 35를 들려준다.

첫 곡인 모차르트 '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작품 550'은 모차르트 '최후의 3대 교향곡' 중 두 번째 곡으로, 교향곡 제 39번의 밝고 맑음, 제 41번의 장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윽한 애수를 담은 비극미가 특징이다. 작곡가 슈베르트로부터 '천사가 노래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다른 바로크 작품들처럼 소규모 편성으로 자유분방한 관현악법을 구사하고 있다.

장대한 곡상과 호탕한 구성이 마치 왕의 품격을 연상시킨다 하여 부쳐진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 5번 내림마장조 작품 73 '황제'는 프랑스의 소설가 로망 롤랑으로부터 '결작의 숲'이라는 격찬을 받은 베토벤 제 2기의 정점을 형성한 명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출신의 신예피아니스트 김혜린이 협연한다.

협연자 김혜린은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차르테움 피아노연주과와 음악교육학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김혜린은 2006년 귀국 후 부산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독주회, 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마지막 곡인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 35는 작곡가 특유의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곡이다. 페르시아의 설화 '아라비안나이트'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4가지 모험이야기로 구성된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세 번째 곡인 '젊은 왕자와 공주', 네 번째 곡인 '바그다드의 축제-바다'를 들려준다.

▶ **관람료** _ 균일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20% 할인)

▶ **문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5)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온 세계 어린이, 온 세상 내친구! 제 4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 8월 14일- 18일 금-화요일 ● MBC 롯데아트홀,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시청자미디어센터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국내유일의 어린이 영화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MBC 롯데아트홀,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등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들이 영상을 통해 소통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문화축제로 세계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소개해 왔다. 올해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네덜란드 장편 극영화 <모리슨에게 여동생이 생긴대요, Morrison Gets a Baby sister>를 비롯해 한국, 일본, 라트비아나,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등 세계 26개국에서 133편을 초청, 영화의 나라를 향한다.

영화제를 통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되는 개막작 <모리슨에게 여동생이 생긴대요>는 2008년에 제작된 네덜란드 감독 바바라 브레데로(Barbara Bredero)의 첫 번째 작품으로 새로 태어날 여동생에게 자신의 방을 빼앗기게 된 5살짜리 소년 모리슨이 방을 되찾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폐막작 <빅 벅 버니>는 넉넉한 인품의 토끼 아저씨와 그를 괴롭히는 숲속 악당들의 일대 혈전을 줄거리로 한 위트 넘치는 작품으로 생생한 3D 화면과 웅장한 음향효과가 대형 장편 만화영화 못지않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개, 폐막작 외에 비키 장편초청작, 비키 단편초청작, 비키 특별초청작(체코 즈데빅 밀러 두더지 애니메이션전, 일본미디어예술제 추천작, 유니세프 애니메이션), 어린이 제작영화인 레디~액션! 공모작 등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영화라

는 창을 통해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다양한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8월 14일 오후 4시 MBC 롯데아트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팬 양의 비눗방울 축하공연, 공모전 시상식, 8월 18일 오후 4시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는 <레디~액션!> 공모 부문 수상작과 함께 네덜란드 단편 애니메이션 <빅 벅 버니, Big Buck Bunny>를 상영한다. 어린이 제작 작품인 <레디~액션!>은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유일한 공모 부문으로서 총 60여 편의 작품 중 예선심사를 거친 35편의 작품이 영화제 기간 일반 초청작들과 함께 상영된다.

올해는 다비드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가족음악회 ‘애니메이션 음악회’ (8월 11일), TPO, 동명대학교와 함께하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청소년 영상문화캠프, 영상 관련서적이나 VHS, DVD 등을 영화제 티켓으로 교환하는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영상 나눔마당’ 등 다양한 사전행사들을 진행,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읽기 ‘Film & Fun’, 어린이 영화교육 체험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구성, 어린이들에게 신나고 흥미로운 영상매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막작 <모리슨에게 여동생이 생긴대요>



폐막작 <빅 벅 버니>

▶ **관람료** _ 상영작 균일 5,000원(4인 가족 12,000원, 15명 이상 단체 예약시 20%할인)

▶ **문의** _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사무국(743-7651)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한 여름밤의 콘서트 '국악과 성악의 만남'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배양현

매년 여름 팔빙수같이 시원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8월 20일 2009년 한여름 밤의 콘서트 '국악과 성악의 만남'으로 부산국악애호가들과 새롭게 만난다.

풍류음악에서 민속음악, 궁중음악, 무용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음악을 지휘해온 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배양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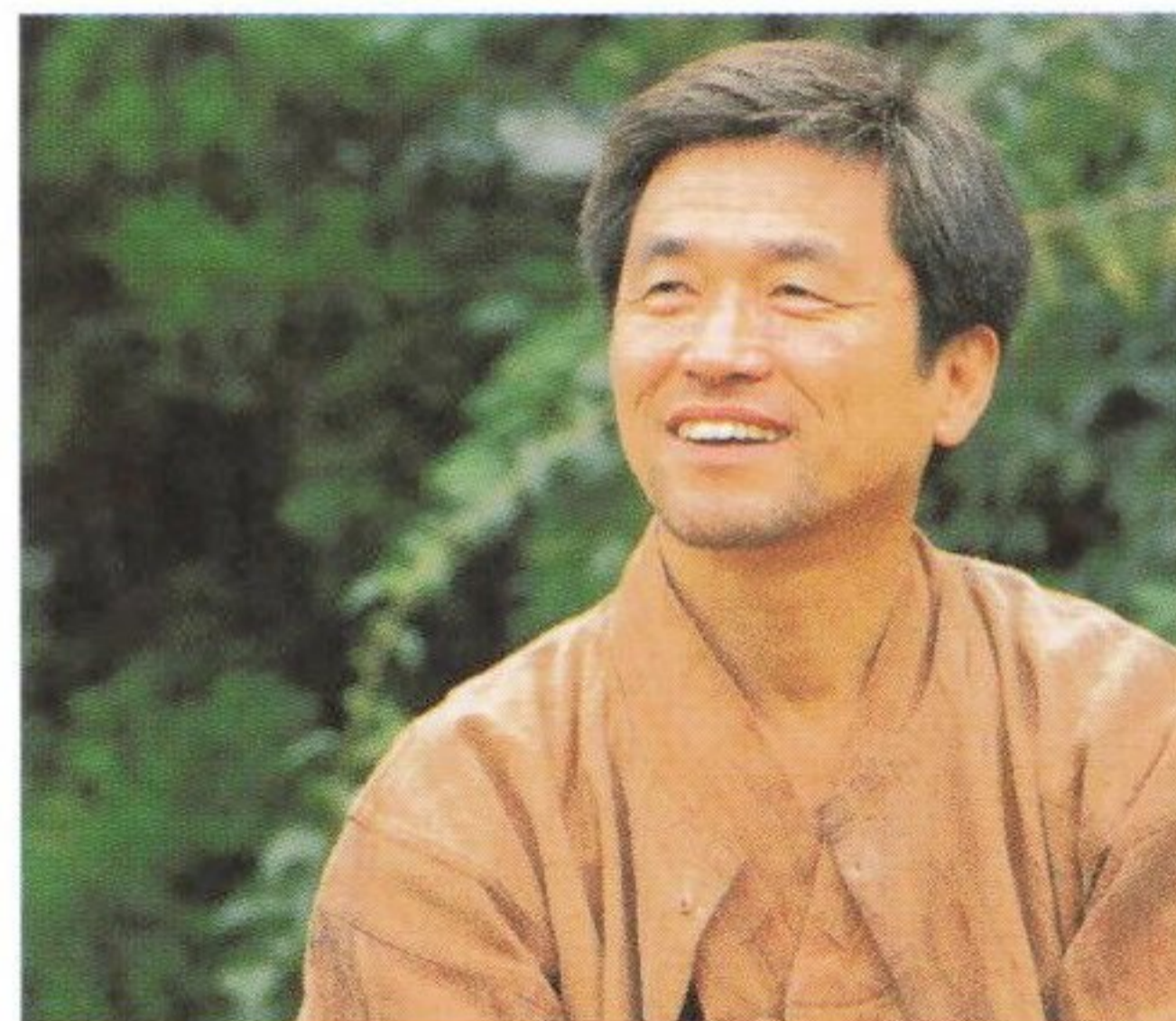
지휘자가 객원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제주바다의 넓고 시원한 풍경을 표현한 양방언의 창작관현악 'Prince of Cheju'를 시작으로 우리음악의 멋과 아름다움을 찾아 시원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1부에서는 'Prince of Cheju' 외에 전통 국악과 런던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클래식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양방언의 또 다른 명곡 'Frontier'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민요연곡, 타악기와 태평소의 어울림, 전체 관현악과의 조화가 '판'으로 화합되는 이준호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판'으로 국악관현악과 합창의 만남을 시도하고 2부에서는 국악가요와 대중가요 트로트, 모듬북으로 한여름 밤의 콘서트 하이라이트 무대를 갖는다.

이번 무대를 위해 인생살이의 애환을 소리로 빚어내는 농익은 소리꾼 장사익과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 깨끗한 목소리 톤으로 독자적인 팬 층을 구축하고 있는 트로트계의 여왕 주현미가 협연자로 부산을 찾는다. 장사익은 1995년 1집 음반 '하늘가는 길'을 시작으로 기침, 허허바다, 꿈꾸는 세상, 사람이 그리워에 이어 지난해

'꽃구경'까지 6장의 앨범을 발표했다. 장사익은 심금을 울리는 깊은 시어(詩語)들을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로 풀어내며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받고 있다. 트로트 가수 주현미는 1981년 강변가요제를 시작으로 가요계에 데뷔, 약사출신 가수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그 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타악주자 신문범, 최오성이 타악기의 강렬한 비트와 관현악의 섬세한 선율이 어우러지는 이경섭 곡 모듬북 협주곡 '타'로 시원한 여름밤의 신명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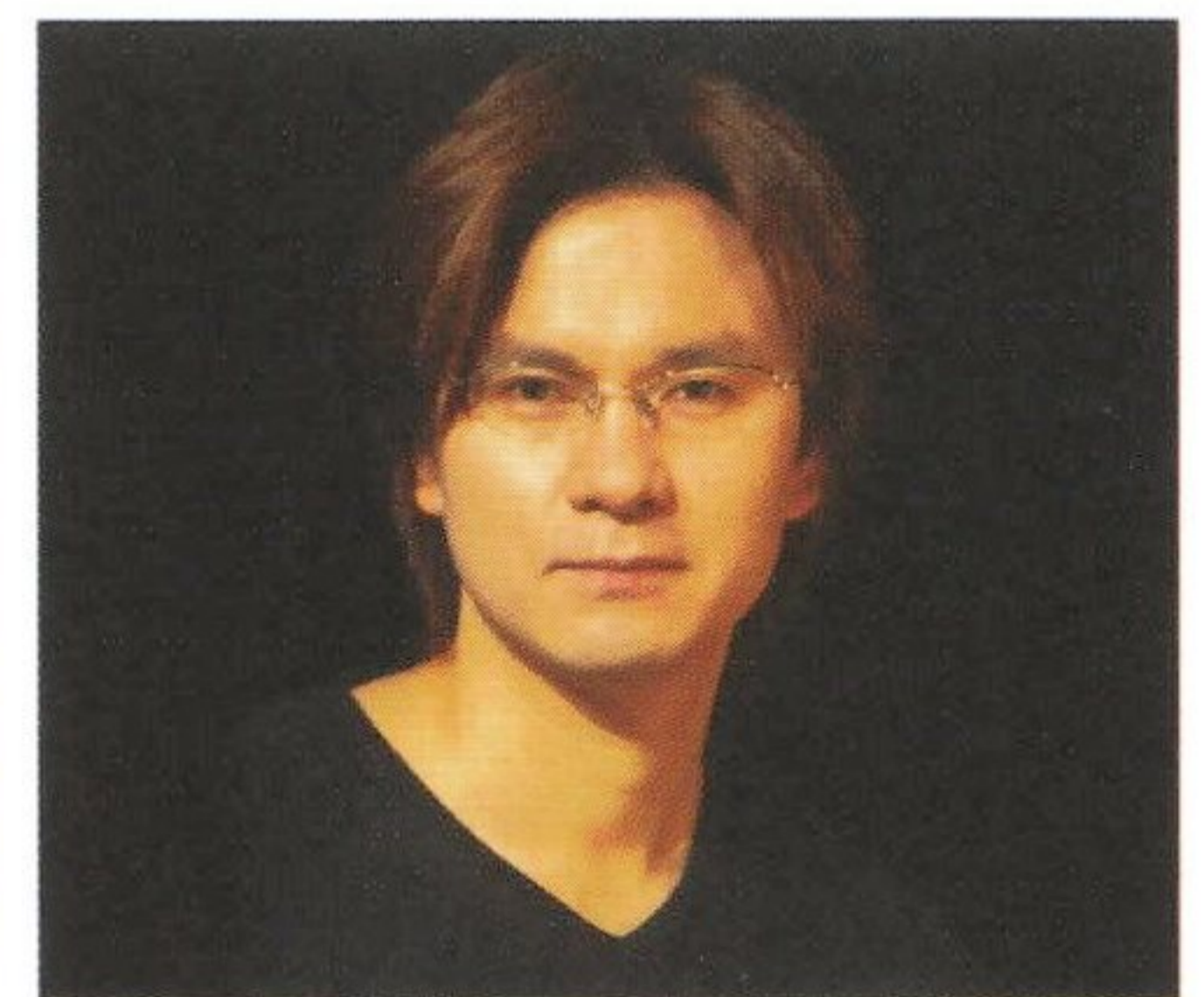
소리꾼 장사익



가수 주현미



모듬북 신문범



모듬북 최오성

- ▶ **관람료** _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 **문의**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60-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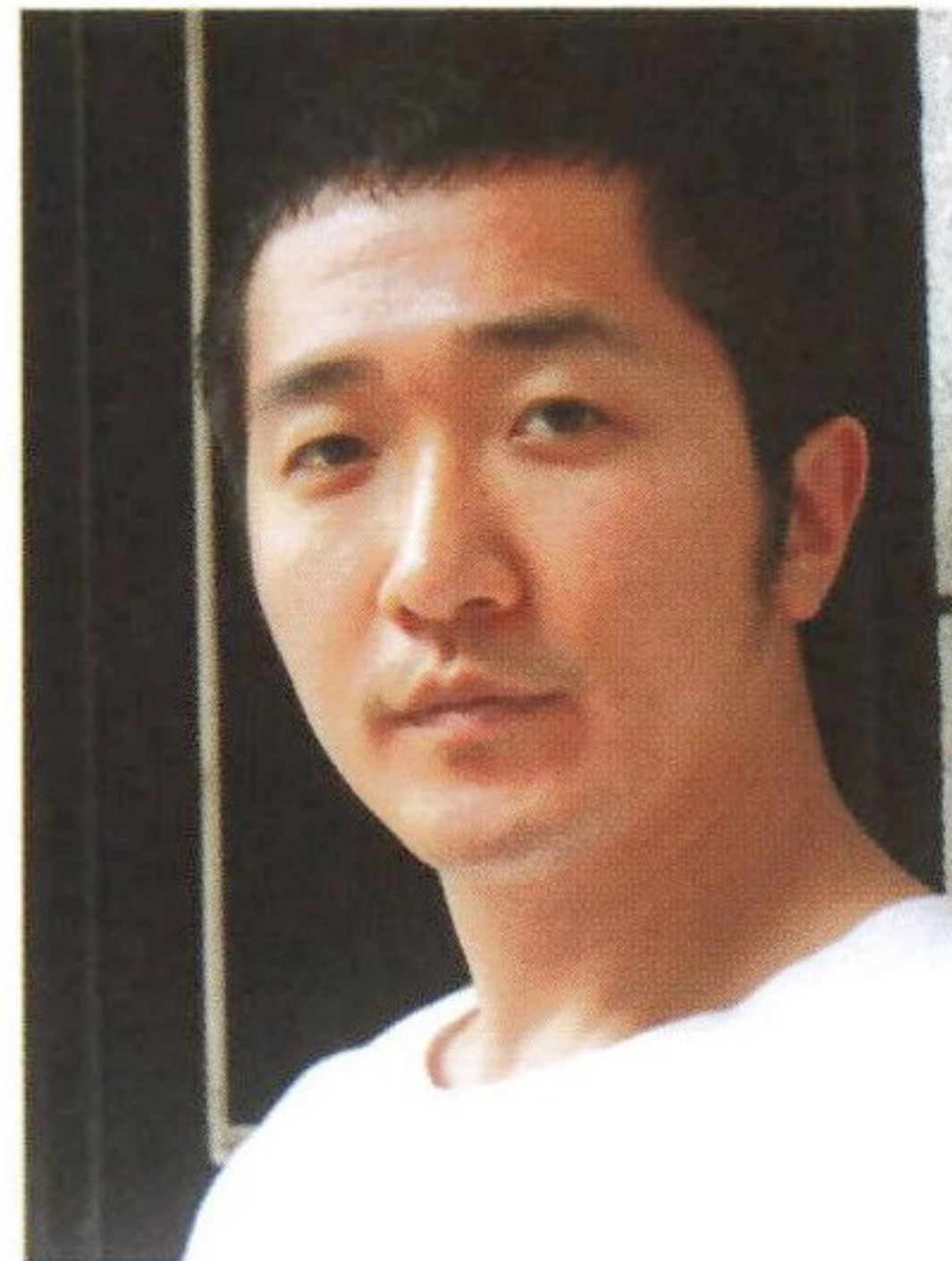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9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열정적인 창작무대 '2009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이 8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최의욱(단원), 정진희(수석), 강모세(단원)가 자신만의 춤세계를 표현한 다양한 창작품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최의욱 단원의 '팔을 휘젓는 남자'로 연다. '팔을 휘젓는 남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처용무 전수자인 최의욱이 '처용설화'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최의욱은 남편 처용의 무심함에 외로운 여인과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역신, 체념과 패배의 춤을 추는 처용을 등장시켜 새로운 '처용무'를 선보인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미란이 대본과 연출을 맡고 단원 오수연, 장영진, 최의욱이 출연하고 김학준이 특별출연한다.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천생연분' '길들여진 토끼', 마당춤판 '男 콩쥐팍쥐' '별주부전'에서 주역을 맡아 개성넘치는 무대를 선사한 바 있는 안무자 최의욱은 '처용무' 전수자로 울산처용문화제,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처용무' 공연을 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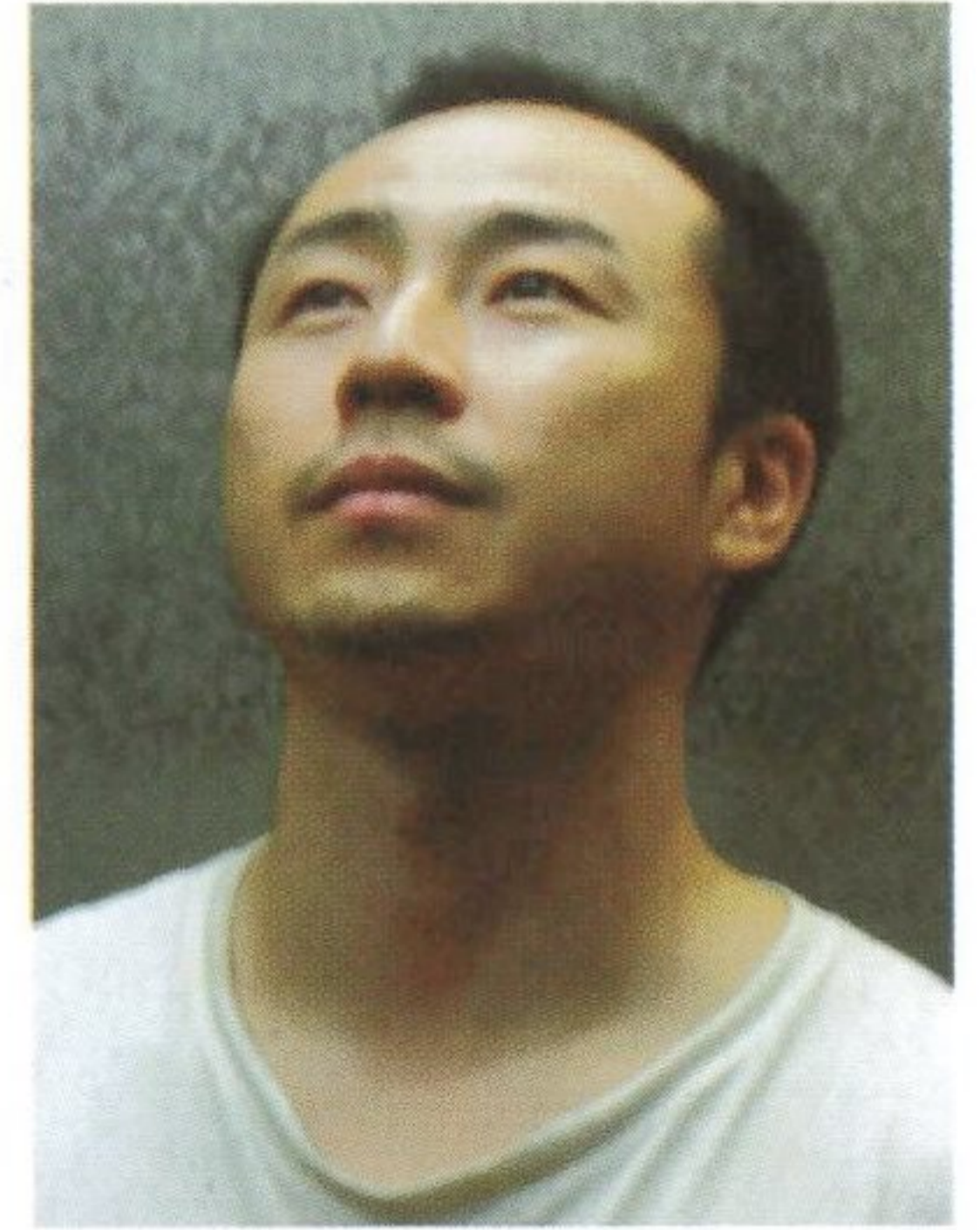
두 번째 무대는 수석단원 정진희의 창작춤 '뜰'이 장식한다.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단원 서정숙이 연출한 '뜰'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마다의 그릇을 뜰에 비유해 이 뜰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의 인생과 그 뜰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희노애락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정진희, 부수석 서정숙이 출연하며, 성현우가 악사로 무대에 선다. 지난 2001년 창작춤 '달'로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무대에 선 정진희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개, 폐회식과 2008년 세계사회체육대회 개회식 행사 보조안무를 맡기도 했다.



최의욱



정진희



강모세

마지막 무대로는 단원 강모세의 '그 꽃'이 무대에 오른다. 강모세가 직접 대본과 안무를 맡은 '그 꽃'은 '내려갈 때/보았네/올라갈 때/보지 못한/그 꽃'이라 읊은 시인 고은의 시 '그 꽃'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작품으로, 한 곳만을 위해 달리다 보지 못한 인생의 순간순간을 '그 꽃'으로 비유, 사랑과 이별, 인생을 춤사위로 표현하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이성원이 연출을 맡고 강모세, 김공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황대현, 조은미, 박민화가 출연한다. 안무자 강모세는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男 콩쥐팍쥐' '천생연분' '길들여진 토끼'를 비롯해 제 8회 경남무용제 이영숙 무용단 '논개', 통영 탄생 400주년 기념공연 '칼의 노래를 넘어서', 제 13회 전국무용제 은상수상작 정신혜무용단 '결' 등에서 주역을 맡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무용감독/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 ▶ **관람료** _ 균일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원 카드로 관람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 **문의** _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09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오페라 합창의 밤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울산문화회관 대극장
●8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



지휘 김명엽

부산·울산·경남의 3개 시·도 합창단들이 8월 21일부터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합창 음악으로 부산, 울산, 김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울산·경남의 3개 시·도립합창단들은 부산, 울산, 경남의 문화 예술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연합합창

단을 구성, 3개 시도를 순회하는 교류음악회를 가져왔다. 지난해는 각 시립합창단의 공연 일정으로 2001년 이래 처음으로 공연이 성사되지 못해 음악애호가들의 아쉬움이 컸다. 오래 기다린 만큼 올해 공연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올해는 2009년 1월 독일 순회연주에서 최고의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과 독일 자브뤼켄 공연을 가진 울산시립합창단, 새로운 모습으로 감동을 전하는 김해시립합창단이 100여명이 넘는 연합합창단을 구성, 3개 시·도 합창단의 독창성과 합창이 갖는 화합의 매력을 연합합창으로 빛어낸다.

올해 3개 시·도 합창단이 선택한 레퍼토리는 오페라 합창. 한국합창의 산 증인이자 합창의 대가로 알려진 울산시립합창단 김명엽 지휘자의 지휘로 가장 널리 사랑받고 있는 친숙한 오페라 합창 음악을 들려준다.

지휘자 김명엽은 1982년에는 추계마드리갈 싱어즈를 창단하여 16세기 르네상스 전문합창단으로 대학합창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1986년에는 다카라즈카 세계 실내합창콩쿠르에서 혼성부문 금상을 수상하였고, 그가 지휘한 연세콘서트콰이어에서는 국내 최

초로 헨델의 메시아를 삭제 없이 연속 연주해 음악계에 비상한 반향을 일으켰다.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을 거쳐 현재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엽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의 합창단과 지휘자들의 단체인 합창총연합회를 이끌며 대학합창연합회 회장,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의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합창음악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번 무대 협연자로는 마리오델모나코 국제콩쿠르 1등(카스텔 프랑코베네토), 이리스아다미 꼬라뎃띠 국제콩쿠르 1등, 마리아까 넬리아 국제콩쿠르 2등, 푸치니콩쿠르 2등 등 국제콩쿠르에서 10회 입상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유섬, 고태국 성악콩쿠르에 입상하고 독일로 유학, 2008년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오페라 '아이다'의 주역으로 주목을 받고, 국내외에서 오페라 가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테너 김지호가 협연한다. 김지호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팔리아치', 국립오페라단 '살로메', 쿠바 국립오페단 초청 오페라 '팔리아치' 등에서 주역으로 출연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카나' 바그너 '탄호이저', 베르디 '일트로바토레', 구노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푸치니 '투란도트' 등 유명오페라 합창곡을 들려준다.

- ▶ **관람료** _ 균일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가능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 **문의** _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세계적인 연주가들, 부산의 여름무대를 달군다

-마에스트로 정명훈, 피아니스트 김선욱, 첼리스트 송영훈,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 등-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락페스티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넘치는 8월,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부산음악계를 뜨겁게 달군다.

가장 먼저 8월 8일 독일에서 활동하던 한국 오케스트라인 재독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연주회가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2007년 4월 창단된 재독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정단원 166명의 대규모 오케스



음악감독 정명훈



피아니스트 김선욱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김

트라로 2009년 5월 29일 세계적인 베를린 필하모니 홀 연주를 통해서도 독일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무대는 2005년 유럽진출 후 프라하, 비엔나, 이태리, 스페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 배종훈과 북 미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 중 한 사람인 옌스 린더만(Jens Linderman),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데뷔를 거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영 프리마돈나로 급부상 하고 있는 소프라노 엔젤 블루(Angel Blue),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도르트문트 필하모니와 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 악장으로 활동해온 재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김신경이 협연자로 함께 부산을 찾는다.

8월 23일 오후 7시 KBS 부산홀에서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차세대 유망주 6인과 함께 실내악 드림팀을 구성, '7인의 음악인들'로 오랜만에 부산무대에 선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매 해 진행되다 중단, 올해 7년 만에 부활한 '7인의 음악인들'은 음악 감독이자 피아니스트 정명훈을 비롯하여 18세의 나이에 세계적 권위의 리즈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며 세계적 매니지먼트사인 아스코나스 홀트와 계약 체결한 피아니스트 김선욱, 영국의 권위 있는 음악지 'BBC 뮤직매거진'에서 '최고의 감동,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연주'라는 극찬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2007년 미국 음악계 최고 권위의 '에이버리 피셔 상'을 수상한 이유라, 한국 최고의 비올리스트 최은식, 한국 첼로계의 든든한 버팀목 양성원, 탄탄한 연주력과 낭만적인 감성을 겸비한 첼리스트 송영훈이 실내악의 깊은 묘미와 갈라 콘서트의 재미를 전해줄 예정이다.

8월 29일 열리는 제 5회 한국 청소년 합창 콩쿠르 시상식에는 한국가곡을 노래하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스페인 국영방송 합창단이 축하사절단으로 부산을 찾는다. 임재식 지휘자가 50년의 역사를 가진 스페인 국영라디오 TV방송 합창단(RTVE) 단원 80명 중 25명을 선발하여 창단한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은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 모두가 스페인 사람이다. 2001년 KBS '한민족 리포터'에 소개되면서 임재식 지휘자와 GVM의 활동이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전주세계소리축제 한국정부 초청연주', '광복 61주년 기념 대한민국 국회 초청공연' 등 국내 여러 초청공연에서 찬사를 받았다.

9월 1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제 2회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100년 역사상 최초 동양인 악장인 데이비드 김과 미국 신시내티교향악단의 부수석 주자 오디션에서 187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국 메이저 교향악단에 입단한 관악계 첫 한국인 연주자로 화제를 모은 플루티스트 최나경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음악적 영감을 얻어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이동신 수석지휘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동신. 지난 3년간 부산의 음악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이 그리 낯설지 않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2006년 부산과 인연을 맺은 이동신 지휘자는 3년간 다양한 무대에서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나왔다. 이제 그는 부산의 탁 트인 바다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산사람이다

되었다.

“매일 바다를 보고 생활해서인지 요즘은 고향 대구를 가면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장르도 그렇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산은 많은 영감을 주는 도시예요.”

지난 7월, 이동신 지휘자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재계약하면서 2년간의 새로운

지휘자 이동신은 연주회장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이지만
클래식 교실, 문화대학에서는 지인에게
편안하게 음악이야기를 들려주는 친절한 해설자이다.

입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바쁜 연주일정을 잘 소화해 준 시립교향악단,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나 성원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내,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는 처음 지휘자로 취임하면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인 만큼 열의를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특히 그는 단원들이 음악적 완성도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연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교육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해온 그는 우리 음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라틴과 북구의 음악과 우리나라 작곡가의 창작음악을 발굴하여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들려주었다.

시기적으로 그의 부산 생활 3년을 되돌아보는 무대가 된 7월 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1회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그만의 음악 스타일이 여실히 드러나는 무대였다. 이날 이동신 씨는 작곡가 최석태의 교향시 ‘인생’ 초연 무대와 함께 스페인 작곡가 아테르베리의 교향곡 제 3번 라장조 ‘서부 해안의 풍경’을 레퍼토리로 선택, 한국 초연 무대를 이끌어냈다.

이동신 지휘자는 연주회장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이지만 클래식 교실, 문화대학에서는 지인에게 편안하게 음악이야기를 들려주는 친절한 해설자이다. 그는 2007년 부산문화회관이 처음으로 기획한 부산문화대학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시민클래식교실,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등에서 음악감상의 이해를 돕는 편안하고 다정다감한 해설로 사랑 받아왔다.

하루 두차례 연주가 잡힐 정도로 바쁜 일정중에도 그는 수업을 위해 음반과 DVD를 직접 고르며 자료를 정리하고 많은 공부를 하



이동신지휘자는 7월 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아테르베리의 ‘서부해안의 풍경’ 한국 초연무대를 지휘했다.

고 수강생들을 만났다. 이런 그의 열정에 감동한 시민클래식교실 수강생들은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찾게 되었다.

5세때 피아노 수업을 시작하여 초·중·고교 재학시절 수차례 국내 피아노 콩쿠르에 입상함으로써 음악과 인연을 쌓기 시작한 이동신 지휘자는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 전공에서 우종억, 김현종 교수에게 사사하였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 입학, Victor Fedetov에게 지휘수업을 받았다. 재학시절인 199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부설 루빈시타인 국립극장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오페라무대에 데뷔한 이래 극장의 부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코지 판 투테’, ‘예프게니 오네긴’,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토스카’ 등 여러 오페라의 제작에 참여해 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오페라 음악을 연주한 것도 러시아 활동 때문이다.

“신임 지휘자가 부임하면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어느때보다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새로운 단의 분위기에 맞춰 교향악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신 지휘자는 또다른 무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8월의 무더위도 잊은채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글, 사진/백경옥)



나미나라공화국의 주일대사 사토노스케와 강우현 대표

너구리가 대사? 세상에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승 주 _ 일본 통신원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이곳 일본 도야마에서 일어났다. 초록이 노래를 하고 푸르른 들판 속에서 당장이라도 동화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날 일본 도야마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동물원인 '패밀리파크' 를 찾았다. 이곳에서 한국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찾아 나선 것이다.

입구부터 낮익은 글씨들,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은 신기하게도 정말 '누구나'에게 적용이 되는 듯 하다. 수많은 만국기들 중에 내나라 국기는 어디쯤 있는지 찾다가 흑여구석진 곳에 있으면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와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여하튼, 동물원 입구부터 낮익은 글씨들이 늘어서 있다. 가만히



나미나라공화국은 자체적으로 화폐며 여권, 상상문자까지 정말 국가가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과 문화적 마인드로 만들어진 나라이다.

보니 '나미나라공화국' 이라고 적혀있다. 다름이 아닌 오늘이 바로 나미나라공화국의 주일 대사관(홍보관)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라고 한다. 나미나라공화국이란 한국의 남이섬이라고 한다. (주)남이섬이 국가체제를 표방한 상상나라, 동화나라가 되고자 나미나라공화국이라 선언을 한지 벌써 3년이 넘었다고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화폐며 여권, 상상문자까지 정말 국가가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

인 것과 문화적 마인드로 만들어진 나라이다. 이런 상상나라, 누구나 한번쯤 꿈꿔보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그 나미나라공화국이 지금 이 순간 일본에 주일대사관을 개관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의 관계는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주)남이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도야마 시립동물원을 소개받는 과



협정서를 전달하는 조랑말 모모타로오

정에서 남이섬 홍보관을 개설하기로 했다”면서 “상상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홍보관이기에 <상상나라 대사관>으로 이름짓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신기하면서도 왠지 동화 속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에 설레기까지 하다. 서명할 교류협정서를 전하는 이는 사람이 아닌 조랑말 모모타로오이고 총영사는 시립동물원의 원장인 야마모토씨가, 그리고 대사님은 이 동물원의 상징적 캐릭터인 너구리 사토노스케가 임명되었고, 나미나라공화국의 강우현 대표가 이들과 함께 했다.

국가수교협약 과정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묻어나고, 얼굴 한 가득 웃음이 베풀어 있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지켜보는 이들도 동화나라 상상나라의 국민이 된 듯한 자부심이 깃든 얼굴이다.



나미나라공화국 주일대사관 총영사 시립동물원 원장 야마모토

도야마시의 시장 모리



아이들과 상상그림그리기 체험을 함께하는 강우현 대표



투명한 유리에 그림을 그리고 유리의 앞과 뒷면을 연결하고 이용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상상그림그리기 체험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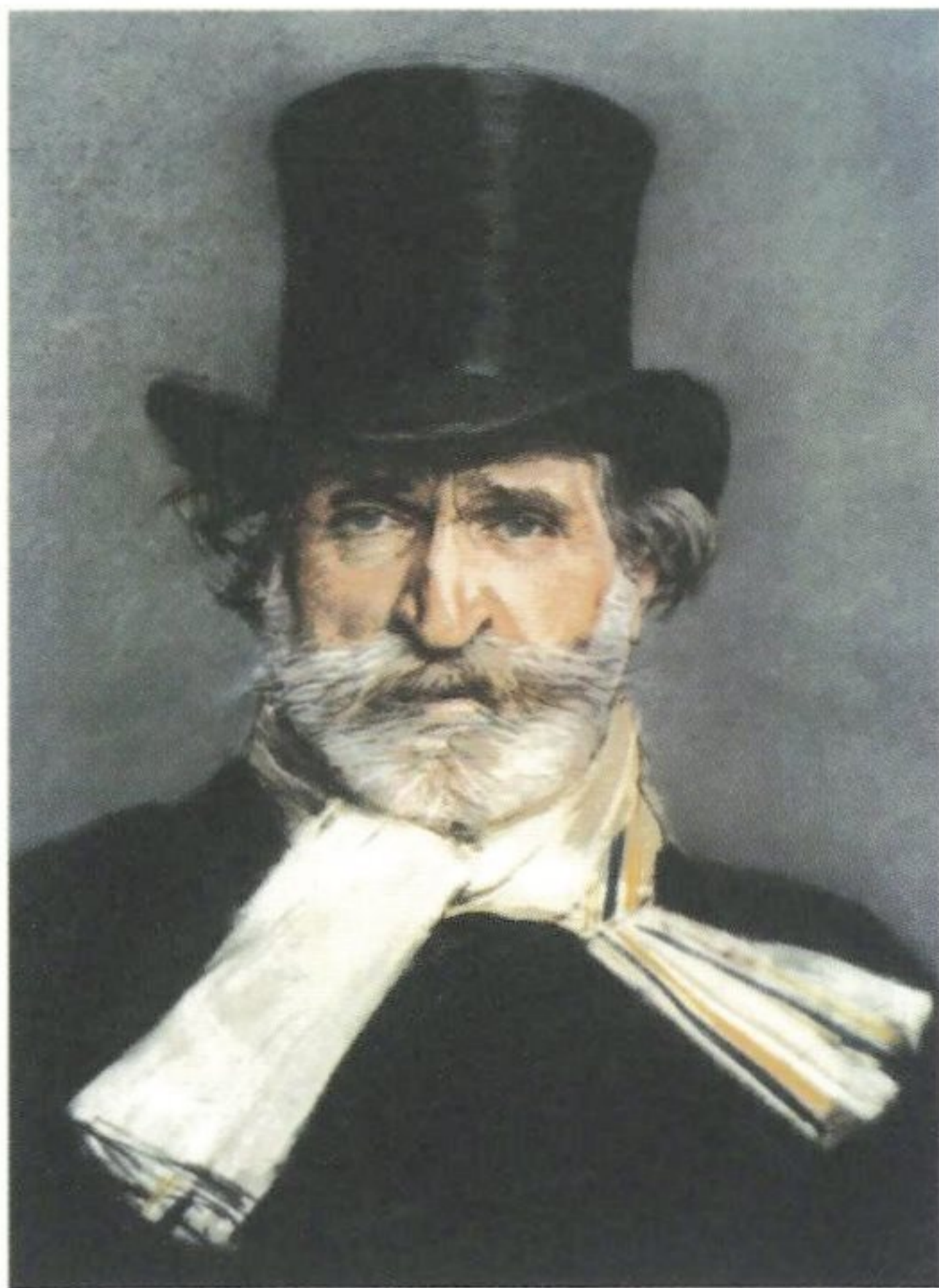
이날 이곳에서의 행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도야마 시립 동물원은 상상나라 대사관 개관기념으로 나미나라공화국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이를 소지한 관광객에게는 한국의 남이섬을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남이섬의 강우현 대표는 '상상그림 그리기' 체험을 함께 하였다. 이것은 투명한 유리에 그림을 그리고 유리의 앞과 뒷면을 연결하고 이용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그림 체험프로그램이었다. 간단한 붓터치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야기가 있고 열린 마음과 상상력을 가진 오늘 이 하루가 동화 속 주인공으로 서서히 동화되어 가게 만들어 준다. 상상! 꿈은 이루어 질 수 없을 지도 모르지만, 그 꿈이 새로운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혹시 아는가? 상상이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바로 오늘처럼 말이다.



도야마와 나미나라공화국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벌써 이들은 다음 일정도 계획해 두었다고 한다. 그 첫번째로, 유리공예의 도시로도 알려진 도야마는 올해 10월 나미나라공화국과 유리공예 교류를 맺는 기념전시회를 남이섬에서 계획 중에 있다. 나미나라공화국의 도야마는 유리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지 궁금하다. 그때는 한국의 나미나라공화국 속 일본의 도야마로의 여행을 해야겠다.



주세페 베르디

베르디(G.Verdi)의 ‘리골레토(Rigoletto)’

김 홍 승 _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모성애’. 이 단어만 들어도 누군가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 옛날 요즘 할 것 없이 모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심금을 울리는 ‘모성애’에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베르디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성애’가 아닌 ‘부성애’를 주제로 한 대본을 골라 오페라를 썼다. ‘광대’ ‘홀아비’ ‘곶추’ ‘부성애’ 한없이 불쌍한 타이틀만 달고 다니는 그의 이야기, 바로 이번 회에 쓸 오페라 ‘리골레토’의 이야기이다.

물론 오페라 ‘리골레토’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부성애’가 아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그의 ‘부성애’로 인하여 관객들은 더 큰 안타까움과 안쓰러움 그리고 끝끝내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기폭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리골레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총 3막이며 1851년 3월 11일 베니스의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빅토르 위고(V.Hugo)의 ‘왕은 즐긴다(Le roi s’amuse)’를 원작으로, 피아베(F.M.Piave)가 이탈리아어 대본을 작성하였다.

‘리골레토’, 그는 어떤 아버지인지 이제부터 알아보자.

▶ 리골레토(Rigoletto): 곶추, 광대 그리고 아버지. 그는 이 오페라의 주인공이다. 그는 겉으로는 만토바 공작의 힘을 빌어 여기저기 백작들을 골리고 놀리며 그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이다. 하지만 속은 너무나 사랑하는 딸 질다를 호색한인 만토바 공작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집밖으로 외출을 금하는 나

악한 아버지이다.

- ▶ 질다(Gilda): 리골레토의 딸. 상당한 미모와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 아버지의 명대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지만 주말에 교회만은 허락을 받고 다녀온다. 하지만 교회에서 학생으로 변장한 만토바 공작을 보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
- ▶ 만토바 공작(II Duca di Mantova): 호색한의 공작. 돈, 명예, 지위, 게다가 나이도 젊고 잘 생겼다. 그는 몬테로네 백작의 딸을 범하였고, 체프라노가 보는 앞에서 미모의 체프라노의 부인까지도 홀린다. 얼마 전 교회에서 본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반하여 그녀의 뒤를 쫓아 집까지 따라갈 정도로 이 여자, 저 여자 모두를 좋아한다.
- ▶ 스파라푸칠레(Sparafucile): 살인 청부업자. 돈만 받는다면 누구든지 없애줄 수 있다는 말을 리골레토에게 한다. 후에 리골레토는 그를 만나 만토바 공작을 살해해 달라 청부를 부탁한다.
- ▶ 맛달레나(Maddalena): 스파라푸칠레의 여동생. 그녀 역시도 만토바 공작에게 유혹당하며 스파라푸칠레에게 만토바 공작을 죽이지 말아달라며 부탁한다.
- ▶ 조반나(Giovnna): 질다의 유모.
- ▶ 몬테로네 백작(Monterone): 그는 만토바 공작에게 농락당한 딸에 대해 따지려왔으나 오히려 리골레토에게 조롱당한다. 그는 리골레토에게 극심한 저주를 퍼붓는다.
- ▶ 마룰로(Marullo), 보르사(Borsa), 체프라노(Ceprano): 만토바 공작의 가신(家臣)들.

1막 1장 만토바 공작의 성

한창 축제 중인 그의 성. 등장부터 만토바 공작은 보르사와 여자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다. 교회에서 본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 이야기이다. 그와중에 체프라노 부인이 지나가자 또 그녀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은 아름다운 모든 여성에게 사랑을 나눠준다고 노래한다. 그러고는 체프라노가 안보는 사이에 몰래 그녀를 유혹하여 옆방으로 빠진다. 때마침 나타난 리골레토는 그 사실을 알고는 체프라노 백작을 약 올린다. 잠시 후 몬테로네 백작이 공작에게 어찌하여 내 딸을 농락했느냐며 격분하나 오히려 리골레토는 그의 앞에 가서 그를 조롱한다. 몬테로네 백작은 결국 난동을 피운 죄로 체포되고 그는 가면서 공작에게 비난을 퍼붓고 리골레토에게는 극심한 저주를 퍼붓고는 사라진다.

2장 리골레토 집과 그 앞의 어두운 골목

리골레토는 저주를 떨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두려움에 떠다. 그러던 도중 살인 청부업자 스파라푸칠레를 만난다. 그는 혹시나 자신에게 맡길 일이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한다. 집으로 돌아온 리골레토는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고는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러다가 집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리골레토는 딸과 조반나를 붙잡고는 절대 외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고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나간다. 리골레토가 나가자 질다는 조반나에게 교회에서 본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돌아선 그 자리엔 조반나가 아닌 그 청년이 서 있었다.(예상한 바와 같이 그는 공작이다) 놀란 질다는 도망가려하나 그의 사랑고백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는 자신이 공작임을 속이고 거짓 이름과 가난한 학생이라고 말해주며 다음에 만날 기약을 하고 사라진다. 그와의 여운이 사라질 때 쯤 공작의 신하들은 리골레토의 집을 알아내어 질다가 리골레토의 애인일 것이라며 착각하고 공작에게 넘기고자 질다를 납치한다. 그때 마침 리골레토가 등장하여 모두 놀라지만 기지를 발휘하여 체프라노의 집에 가서 백작부인을 납치하고자 한다며 그를 속이고 눈가리개를 씌운다. 그 사이 질다는 납치되고 리골레토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는 절망한다.

2막 만토바 공작의 성안

공작은 다시 간 리골레토의 집에 질다가 없다며 절망하는 아리아를 부른다. 하지만 신하들이 들어와 리골레토의 집에 가서 그의 여자를 훔쳐 왔다 하고 그녀가 질다임을 눈치 채 공작은 웃으며 그녀를 잡아둔 방으로 간다. 그때 리골레토가 나타나서는 “내 딸을 내어 놓아라”며 격분하고 그들은 “딸이라고?”하며 놀란다. 애절하게 내 딸을 놓아달라고 말하지만 다들 외면하고 뒤늦게 질다가 뛰어나온다. 리골레토는 모두를 방에서 내쫓고 질다는 그때서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한다. 리골레토는 복수를 결심하고 질다는 오히려 공작을 용서해 달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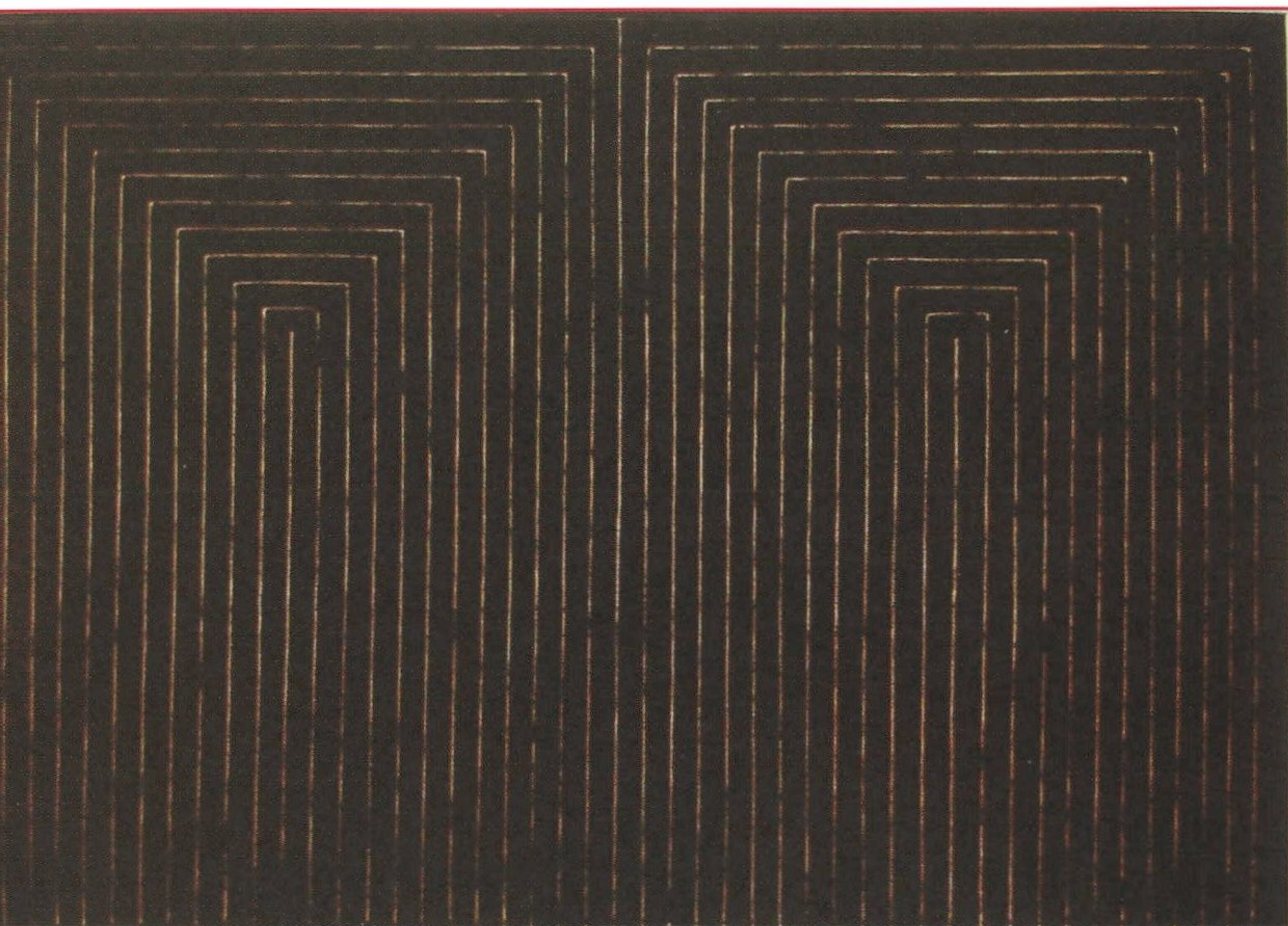
3막 강가의 스파라푸칠레 집

칠혹 같이 어두운 밤. 리골레토와 질다는 스파라푸칠레 집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 그렇다. 리골레토가 스파라푸칠레에게 살인청부를 부탁한 것이다. 대상은 공작. 스파라푸칠레는 그의 집으로 공작을 불러들인다. 공작은 스파라푸칠레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맛달레나를 유혹하고 그녀 역시 넘어갈 듯 안 넘어갈 듯 그를 유혹한다. 밖에서 이 상황을 본 질다는 절망하고, 리골레토는 질다에게 어서 남장(男裝)을 하고 이 지역을 떠나라 지시한다. 그러고는 스파라푸칠레를 만나서 계약금의 반을 주며 자정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다. 그때 폭풍우와 천둥번개가 닥쳐오기 시작한다. 맛달레나는 오빠에게 공작 말고 의뢰한 이를 죽여 버리자고 이야기하나 스파라푸칠레는 화내며 의뢰인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 한다. 이 이야기를 밖에서 숨어있던 질다가 듣게 된다. 남매는 계속 공작에 대해 싸우다가 스파라푸칠레가 그렇다면 한밤중에 찾아오는 첫 남자를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순간 남장을 한 질다는 공작을 위해 자신이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결국 살해된다. 자정이 다 되어서 온 리골레토는 자루에 든 시체를 넘겨받고 잔금을 치러준다. 강에 던지기 위해 자루를 끌고 가던 중 공작의 노랫소리를 듣고 수상히 여긴 리골레토가 자루를 열어 자루안의 시체가 질다임을 알게 되고 “저주!”를 외치며 쓰러진다.

쉽 없는 도전과 변신

프랭크 스텔라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더러움과 이성의 결합, 1959

1997년 한 때 서울의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 있는 프랭크 스텔라의 조형물 ‘아마벨(Amabel)’이 설치에서부터 논란거리가 됐다. 실제 비행기 잔해물로 만든 ‘아마벨’은 수백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피스로 제작한 9미터 입방체의 거대한 조각으로 무게가 30톤이나 된다. 작은 조각으로 공수해와 현장에서 짜 맞춰 작품을 완성했으며 ‘꽃이 피는 구조물(Flowering Structure)’이라는 원제에서 느껴지듯 파편화된 인간성의 회복이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하고자 했다.

사실 스텔라의 ‘아마벨’이 거친 외형과 규모 때문에 쉽사리 수용하지 못할 난해한 작품이란 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20세기 현대미술의 중요작가 중 한 사람인 스텔라가 포철의 의뢰를 받아 현장설치를 목적으로 1년 반에 걸쳐 제작한 조형

물(1997년 당시 180만 달러)을 시류에 편승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미술관에 옮겨 설치하려했던 천박함은 작가의 반발과 반대 여론에 밀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그대로 반영한 현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는 1960년대 미니멀아트(Minimal Art)의 대표 주자로 생존해 있는 작가 중 가장 지적인 예술가의 한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컬렉터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얻어 왔으며 23세 때 그린 <흑색그림 시리즈> 중 하나인 <베들레헴 병원>은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과 함께 삼성 그림사건에 등장했던 주요 소장품이었다.

스텔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1세대 부모사이에서 태어나 사립명문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회화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역사를 배웠으며, 미니멀 아트의 칼 안드레(조각가)와 유명한 전위영화감독 홀리스 프램톤 등과 동문수학하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현대회화의 강한 에너지와 작가의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느낄 수 있으며, 후기작품에서는 현대미술의 큰 줄기인 기하학과 추상표현주의의 요소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1958년 뉴욕에 정착하면서 그가 선택한 첫 직업은 페인트공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크고 간결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회화 <툼린스 공원, 1959>를 선보인다.

형체와 색채의 관계에 의한 조형성을 배척하고, 연역적 방법에서 화면 윤곽을 화면 내부에 되풀이하는 점점 작아져 가는 ‘검정 줄무늬 그림’은 회화의 평면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대담함 때문에 단시간에 주목을 받았다. 추상표현주의가 진행되던 당시로서는 실험성이 유난히 돋보인 작품으로 23세 청년 같지 않는 지적인 분위기

와 위엄까지도 느껴지며 훗날 미니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는 줄무늬, 캔버스의 형태, 색채의 특성을 탐구하여 평면성을 유지하면서도 조각과 같은 조형성을 띠는 작품을 그렸으며, 1966년 불규칙한 다각형(irregular polygon) 시리즈에서는 색면대비를 시도하였다. 각도기(protractor)시리즈와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시리즈는 그의 작품 중 가장 장식적이고 화려한 작품으로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였는데, <각도기시리즈>를 끝으로 평면작업을 마감한다. 1970~80년대에는 부조를 통해 입체와 공간의 문제를 탐구하였으며, 기존 물감을 배제하고 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금속 페인트를 사용하였다. 최초로 부조를 도입한 작품 <폴란드의 마을 시리즈, 1971~1973>는 펠트, 판지, 합판, 섬유판 등을 사용한 콜라주로 구성되었으며, <특이한 새 시리즈, 1976~1980>에서는 회화를 일종의 건축으로 보듯 공간적, 조각적 회화로 변해가고, <인도의 새 시리즈>에서는 번쩍이는 표면과 야한 색채, 철망(grille)을 사용하여 회화라고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입체작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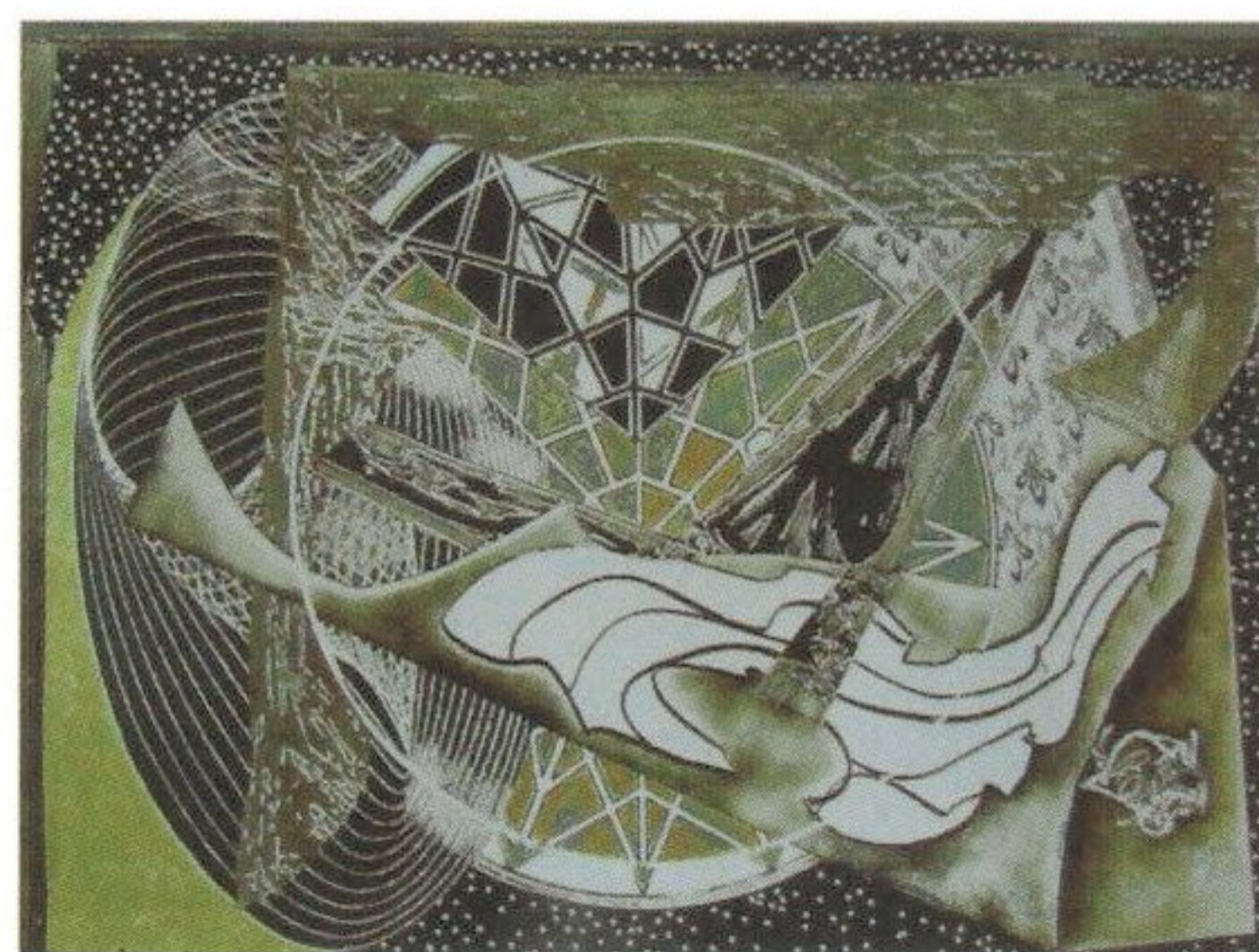


인디아의 황후, 1965



성벽을 부수는 기구, 1993, 리도그래피 에칭 아퀴틴트 릴리프 잉크레이빙 스크린프린트 플라그라프

1980년대 초기부터는 더욱 현란한 작품으로 회화의 영역을 넓혀 광범위한 매체를 도입했는데 BMW의 자동차 외부도색을 계기로 시작한 <경주로 시리즈, 1980>는 그가 일생동안 가장 열정적으로 작업했던 시리즈물이다. 포물선, 아라베스크 문양, 그물망 같은 뿌리기 그림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세계적인 레이서들과 친분을 맺고 본인 또한 자동차 스피드광이 되었다. 1990년대부터는 건축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공공



역사적으로 고찰한 요나, 1991, 에칭 아퀴틴트 릴리프 스크린프린트 드라이포인트 탄화규소



꼭새로 찢고 자르다, 1992, 리도그래피 스크린프린트 플라주

미술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건축물에 자신의 작품이 스며들도록 구상하였으며 작품 역시 대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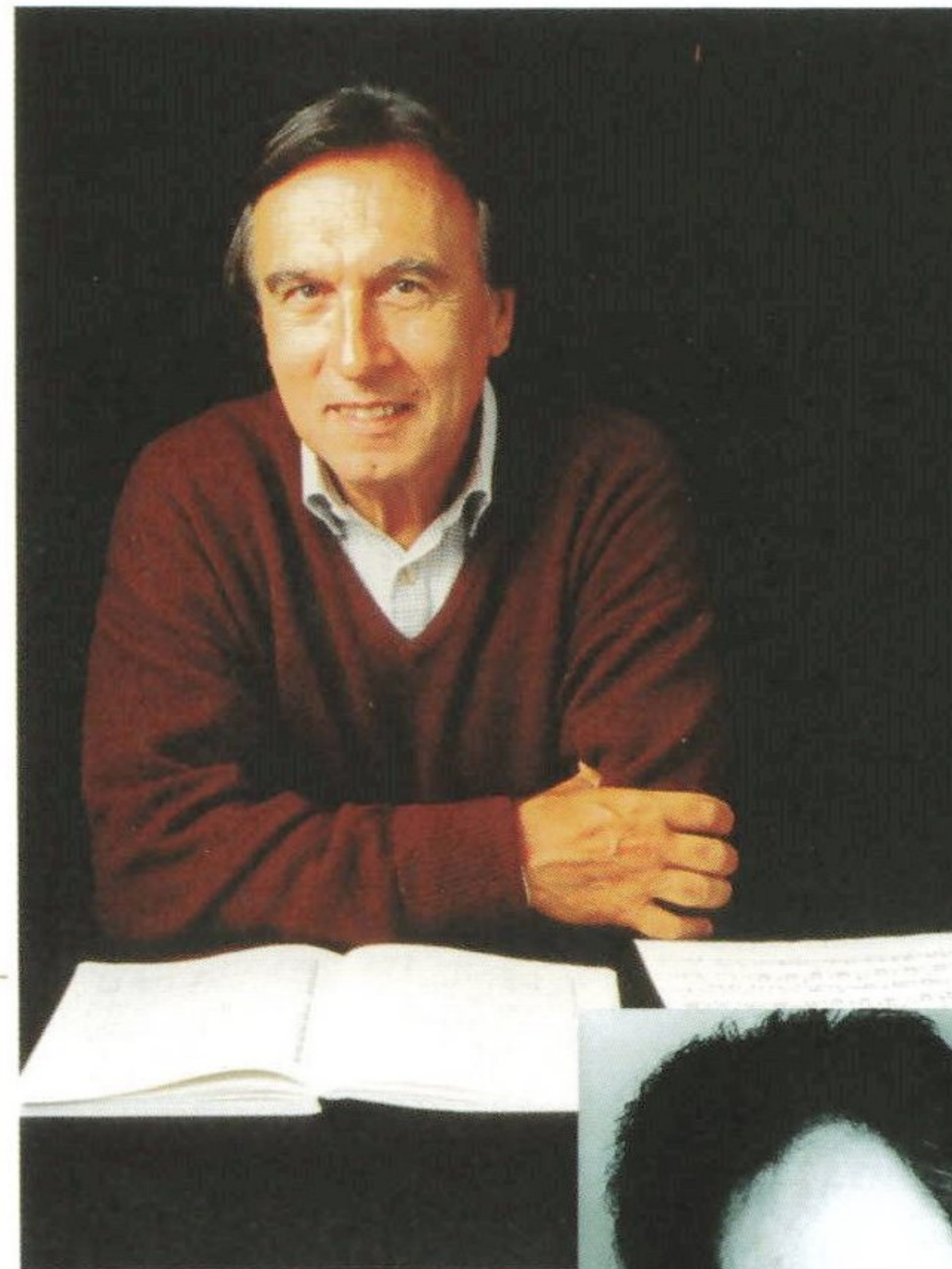
그리고 세계 우수 화랑들의 인기 판매품인 스틸라의 판화는 현대판화사에서 가장 실험적인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업장에 대형프레스기를 설치하여 실험적인 작업에 심취하였는데 몇 년 전 서울에서 전시되었던 대형석판화도 부조판화로 스틸라 특유의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작품 속에서 감지할 수 있었으며, 2008 '서울국제판화사진페어'에 전시된 대형석판화의 위용은 전시장의 분위기를 압

도하였다. 리도그래프, 메조틴트, 스크린 프린트, 에칭, 아퀴틴트 등 가능한 모든 판화기법을 총망라한 복합판화는 항상 화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평면작업에서도 주로 실크스크린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콜라주하는 등 회화의 1차적인 재료의 개념에서 벗어나 순수추상이미지 표현과 다양한 색채 실험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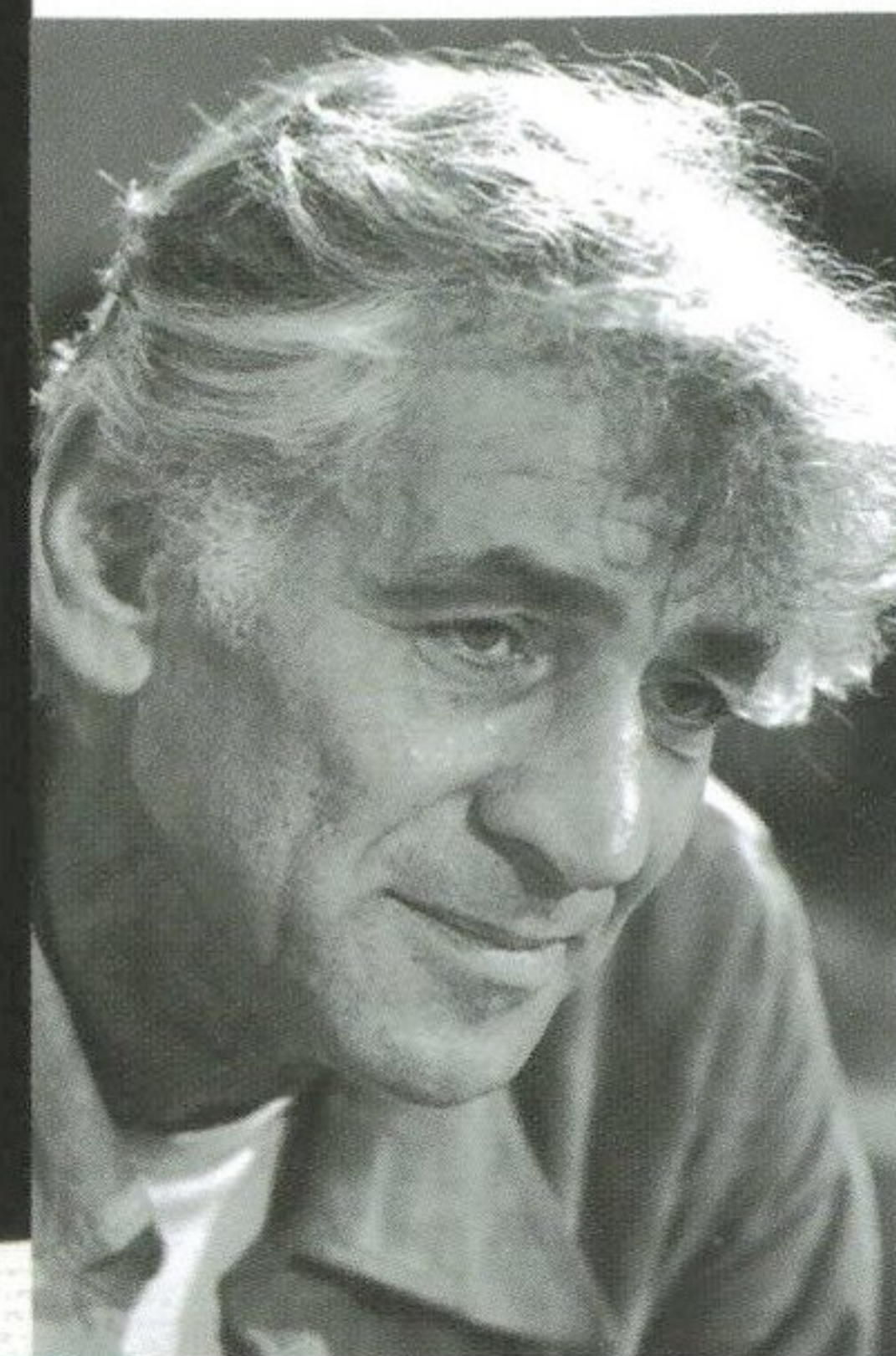
이제 70대인 스틸라! 탁월한 승부사의 기질로 평생을 씬 없이 열정적, 실험적인 작업으로 동시대의 영원한 이노베이터(Innovator)로 나아가고 있다.

말러 어떤 지휘자로 고를까?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클라우디오 아바도



레너드 번스타인



리카르도 샤이

몇 년 전 지인들에게 최고의 말러 지휘자와 최악의 말러 지휘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말러를 처음 접하는 애호가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전 라이선스 LP 시절에는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았지만, 최근에는 마음만 먹으면 말러의 음반만으로도 1,000장을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음반 선택에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말러 마니아가 가장 선호하는 지휘자 1위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차지했다. 지적이고 도회적인 말러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한 아바도의 말러는 이제 애호가들에게 하나의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의 지휘는 늘 과장을 모르고 정직하고 단아하며, 음악을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담백한 카리스마가 특징이다. 아바도의 말러 사이클은 대략 세 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70~80년대에 빈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와 함께한 1차 사이클,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 시절에 게르만 스타일과의 절충을 꾀한 2차 사이클, 그리고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만년을 불사르고 있는 영상물 사이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한 1, 4, 7, 9번(DG),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2번 영상물(EuroArts)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2위에는 말러 붐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뽑혔다. 번스타인이 말러를 해석하는 키워드는 '양극성'이다. 그는 말러의 음악 속에 내재된 인간사의 희로애락의 폭을 최대한 넓히면

서 감상자의 본능에 직접적으로 호소한다. 슬픈 선율을 번스타인처럼 펄펄 울면서 노래하는 지휘자도 귀하고, 세속적인 가락을 그토록 방정맞게 흥얼거리는 지휘자는 더더욱 드물다. 그의 진수는 1980년대에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한 마지막 말러 사이클(DG)에서 맞볼 수 있다.

3위는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가 차지했다. 샤이의 지휘예술은 폴리포니(다성음악)와 칸타빌레(노래 부르듯)로 요약된다. 말러가 의도한 다층적인 성부 체계를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주선율을 아름답게 노래 부른다. 샤이가 지휘한 말러를 듣고 있노라면 말러가 바흐처럼 완벽한 대위법 작곡가이자 동시에 푸치니 못지않은 위대한 멜로디 메이커로 느껴진다. 1990년대에 로열 콘서트헤보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전집(Decca)은 지휘자의 영리하고도 온화한 해석, 악단의 탁월한 기능미, 뛰어난 녹음의 3박자를 고루 갖춘 탁월한 아이템이다. 3, 5, 8번은 낱장으로도 추천하고 싶다. 우연의 일치인지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말러 지휘자의 영문이니셜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ABC가 된다. 말러 초심자라면 ABC 지휘자를 잊지 말 것이다.

최악의 말러 지휘자 1위에는 뉴욕 필하모닉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던 로린 마젤이 뽑혔다. 그것도 압도적인 몰표를 받았다. 그의 말러는 하나같이 느리고 맥 빠진 템포에 이해할 수 없는 세부 집착으로 악명 높다. '비호감' 말러 지휘자로 마젤 다음으로는 세이지 오자와, 제임스 레바인, 주빈 메타가 뒤를 잇고 있다.

그리스 III

그리스의 음악가들 (3)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마리아 파란투리



하리스 알렉시우



사비나 야나투

렘베타카의 시대가 끝난 후 그리스의 대중음악에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뮤지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마리아 파란투리(Maria Farantouri), 마리아 데메트리아디(Maria Demetriadi), 나나 무스쿠리(Nana Mouskuri)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와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음악을 통해 그리스의 정서를 노래했고, 1967년부터 시작된 군부독재 치하에서는 민주화의 열망을 드러내며 망명의 길을 걷기도 했다.

‘지중해의 존 바에즈’로 불리기도 했던 마리아 파란투리는 그리스 음악의 힘을 보여주었던 여장부로,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했던 가수로서 찬사를 받았다. 주로 테오도라키스의 음악 속에 담긴 민족적인 색채를 강인한 포크 음악으로 해석하며, 1974년까지 이어졌던 군부정권 시절 해외에서 수많은

공연을 통해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그리스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와 함께 마리아 데메트리아디, 나나 무스쿠리정도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대표적인 1세대 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뒤를 잇는 세대에서는 그리스의 국민 가수로서 불리어온 요르고스 달라라스(George Dalaras)와 하리스 알렉시우(Haris Alexiou)가 첫 손에 꼽힌다. 요르고스 달라라스는 그리스의 음악적인 전통에 재즈, 라틴권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했고,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스(Ariel Ramirez)의 작품 ‘미사 크

리올라(Misa Criolla)’에 독창자로 나섰던 레코딩은 ‘미사 크리올라’의 음반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레코딩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리스 음악에서 전통과 현대적인 면모를 동시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렘베타카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리스 알렉시우는 렘베타카로 활동을 시작해 라이카 가수로서 본격적인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다. 허스키하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탁월한 가창력과 풍부한 표현력 등 대형가수로서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오랜 세월 동안 세계를 매료시켜 왔다. 1970년대부터 그리스를 대표해왔고, 지금도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들은 현재 월드뮤직 분야에서 그리스 음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아티스트들 외에 우리나라 음악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 뮤지션으로 사비나 야나투(Savina Yannatou)와 엘레프테리아 아르바니타키(Eleftheria Arvanitaki)를 들 수 있다. 마노스 하지다키스의 제자이기도 했던 사비나 야나투는 깊이 있는 서정으로 음악팬들을 사로잡으며, 지중해 일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을 해석하며 찬사를 받기도 했다. 엘레프테리아 아르바니타키는 렘베타카 전문 그룹 출신으로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넘나들며 대형가수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집시 출신 뮤지션들의 활약 또한 그리스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페르시아를 거치며 획득한 동방의 음악 요소와 그리스의 전통을 조화시키며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엘레니 비탈리(Eleni Vitali)나 코스타스 파블리디스(Kostas Pavlidis) 등이 그리스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 등장한 인물들 외에도 세계가 인정하는 그리스의 뮤지션은 대단히 많다. 이들 대부분의 음악은 언어로 구분하지 않아도 그리스의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는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방의 향기가 배어있는 굴곡진 선율 속에 드러나는 독특한 색채감과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회색빛 서정, 그리스 음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매력일 것이다.

젊은 춤꾼들이 표출하는 새로운 활력 제 18회 부산무용제

조 봉 권 _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



제 18회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한 '미친개미들'

지난 7월 9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7일 시작한 제 18회 부산무용제 마지막 날이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대상은 휘댄스컴퍼니의 <미친 개미들>(안무 손영일)에게 돌아갔다. 2등상 격인 우수상은 현대무용단 주-□의 '에로스에게 묻다'(안무 조영미)였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객석에서는 뭐랄까 다소 '주춤' 하는 반응이 감지됐다. 나중에 몇몇 전문가와 관객을 만나 이야기해본 뒤 알게 된 것이지만, 이는 심사결과가 다소 뜻밖이었다고 생각한 이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이들은 대체로 "전체적 짜임새와 주제를 밀고 가는 힘에서 <에로스에게 묻다>가 우세했던 것 아니냐" "〈미친 개미들〉이 강렬한 표현과 짙은 주제의식을 보여줬지만 미숙함과 결함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견 제시는 이런 경연 무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다. 심사위원들은 <미친 개미들〉이 작품 속에 장전하고 있던 강렬함과 신선함을 <에로스에게 묻다>가 보여준 좋은 짜임새 속의 안정감보다 더 높게 친 것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작품의 어떤 측면에 가중치를 두고 판단할지는 심사위원단이 합당하게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제 18회 부산무용제는 막을 내렸다. 남녀 연기상은 서윤석(브이쉬발레단 <레드 애플>·안무 김희정), 김정숙(부산발레연구회 <Everlasting Wave>·안무 박종위) 씨가 각각 받았다.

이번 부산무용제에서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대목은 오히려 바로 이렇게 대상을 놓고 치열한 각축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다. 한 예술 장르의 높은 활력이 치열한 경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온도 높은 경쟁이 새로운 활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부산 춤 예술계 형편을 고려해 보면 '높은 활력'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무용제처럼 뜨거운 경합을 지켜본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올해 무용제에는 모두 다섯 개 단체가 나왔다. 브이쉬발레단, 현대무용단 주-□, 부산발레연구회, 휘댄스컴퍼니, 엠노트('공존, 유감'·안무 신승민)였다. 모두 부산 춤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춤꾼들 모임이다. 엠노트는 20~30대 남성 춤꾼들의 모임이며, 휘댄스컴퍼니는 부산 여러 대학의 현대춤 한국춤 전공자들이 모여 결성한지 3개월도 안 되는 신생 단체다. 장르 특성상 강렬한 주제의식을 새로운 형태로 표출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발레 쪽 두 단체도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생기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인상 깊었다.

심사방식 변화도 뒤따랐다. 이전까지 심사는 부산무용협회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7인이 모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작품 한 작품을 지목해 제목을 써내는 투표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되면 전체 7표 중 4표만 확보하면 대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작품의 전반적 가치를 매기는 데서 허술한 점이 있었다. 올해는 심사위원을 5명 위촉하고 부산무용협회장은 빠졌다. 심사방식도 모든 심사위원이 전체 작품에 등수를 매겨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방식 역시 한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모든 심사위원에게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수상권에 들 수 있으므로 분명 나아진 점이 있다.

새 활력을 보충하는 통로와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장르는 정체한다. 젊은 안무가들이 선보인 작품이 결함과 미숙함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무용제에 일어난 작은 변화는 부산 춤에 활력을 충전하는 정신이나 시스템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최은희 부산무용협회장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011년 제 20회 전국무용제를 부산에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면의 이편에서

—진성훈, <가면의 저편>, 대안공간 반디, 7월 10일~22일

김만석 _ 미술평론가

진성훈의 '가면'은 가짜 얼굴이 아니다. 비록 차가운 '데스 마스크'(Death Mask)를 연상시키며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얼굴은 아니지만, 저 얼굴을 '가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상에서 만나는 '얼굴'이 '날 것' 그대로의 얼굴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얼굴'만을 만날 뿐이라면, 우리는 얼굴을 만날 수 없고 다만 가면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누구나 하나 이상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일상이 구조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가면을 필수불가결하며 가면과 진짜 얼굴은 항상, 이미 분별불가능하다.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시인 이성복이 은밀하게 말한 것처럼 차라리 "가면 뒤의 얼굴은 가면이었다"고 말하는 게 더 옳을 터이다.

실제로 지금, 여기의 삶을 형성한 여러 시스템 가운데 식민주의는 원주민들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하얀 가면'을 쓰기 위해 '검은/누런 피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심성구조가 마련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던가.

다시 말해, '서구/일제'의 얼굴을 갖기 위해 조선인의 '얼굴'을 부인하고 '아만'/'열등'한 것으로 간주했던 기억은 아직 말소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 보다 확장되고 유통되었다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 역시 가면을 착용하도록, 그 가면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가면 없이 살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야 할 터이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런 지배적 구조가 요구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짜 얼굴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역시 가면을 쓰도록 요구하는 시스템만큼이나 문제적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진짜와 가짜를 지속적으로 분별하는 태도는 피/아(적/우리편)의 구분처럼, 사회적 적대를 구성하고 적대하는 대상의 파멸과 절멸을 종종 요청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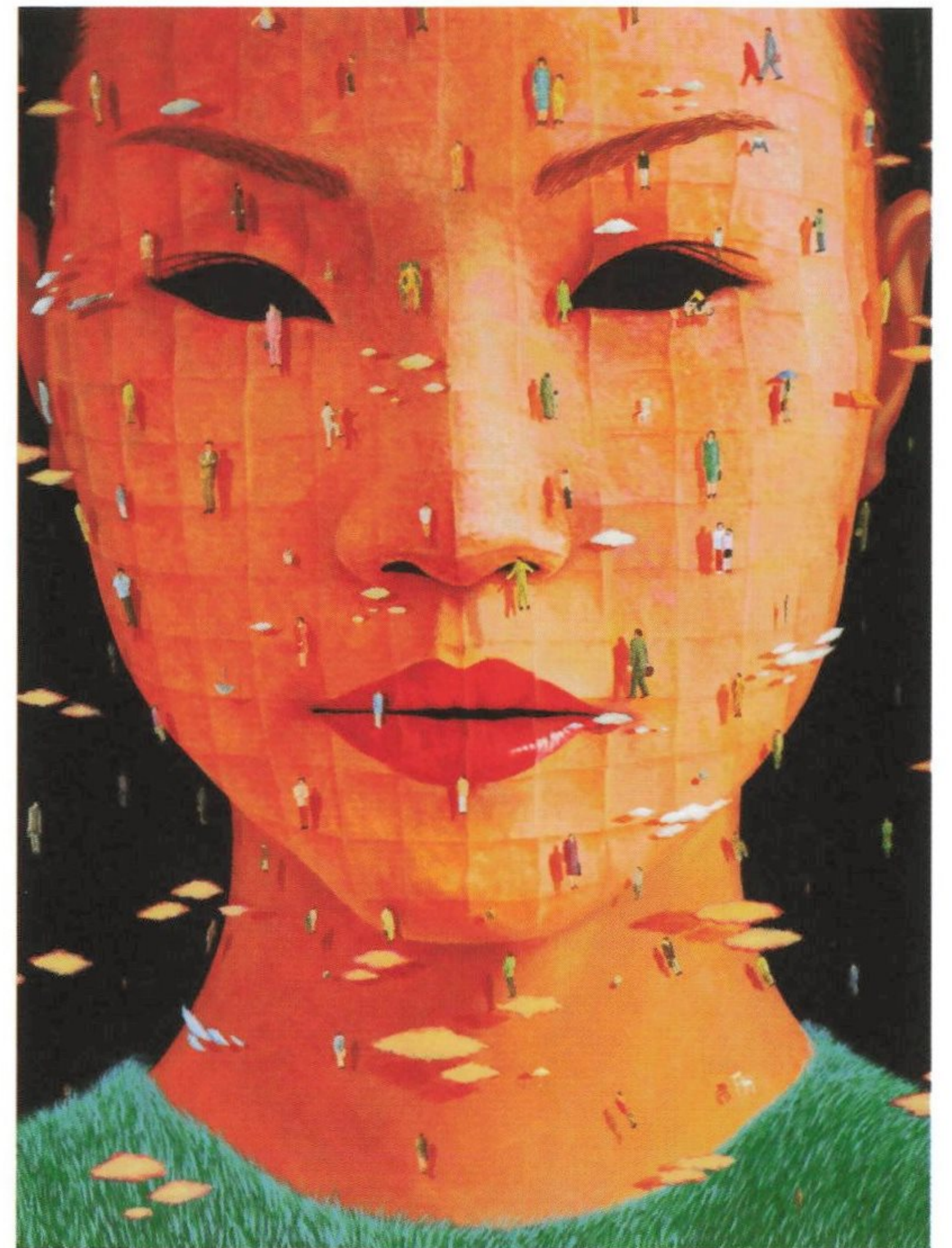
이 때문에 이 세계에서,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나'(subject)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으며 동시

에 타인을 무참하게, 의도하지 않겠지만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진성훈의 저 차갑게 식은 가면이, 가면이 아니라 얼굴이라면, 놀라워라, 이 세계는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그런 점에서 진성훈의 작업에서 진짜 얼굴을 만나려고 가

면의 어두운 눈 속으로 들어가 이 현실을 초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면의 세계 내에서 '가면'을 덮어쓰도록 만드는 시스템의 끈을 문득 떠올려야 한다. 무표정한 '가면/얼굴' 위에 무수한 인간 군상들이 그려진 것은 저 '가면/얼굴'을 벗어나 존재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가면 바깥으로 인물들이 그려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터이다. 그러니까, 저 어두운 세계에 이끌려 무한히 진짜 얼굴에 가닿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보다 이 '가면/얼굴'이 타인에게 폭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타인의 '가면/얼굴'이 익명의 어둠에 파묻히지 않도록 '가면/얼굴'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일이 남게 된다.

우리가 '고통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말이다.



무제(종이에 유채, 90x120cm)

시원한 여름 소극장 100배 즐기기

지역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에서부터 극단의 전용극장, 나아가 서울 대학로의 화제작들을 무대에 올리는 상업극장까지 개관되면서 부산은 어느때 보다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성대학교 인근에서 광안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대연동, 남천동 지역은 부산지역 소극장의 절반이 넘는 소극장들이 몰려있어 부산연극의 메카로 불리며 부산의 대학로를 형성하고 있다. 북적이는 피서철 대신 시원한 소극장에서 여름을 보내는 재치만점 피서객들을 위한 부산지역 소극장을 소개한다.

경성대학교 공연장

1983년 개관, 음악회, 뮤지컬,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는 콘서트홀(449석)과 1997년 개관, 무대와 객석을 허문 최첨단 시설을 갖춘 예노 소극장(220석), 아담한 무대와 친밀한 객석이 조화된 멀티미디어 소강당(117석) 등이 들어서 있다.

663-5363, ks.ac.kr/culture

- 7월 4일(토)-8월 9일(일) 뮤지컬 '슈사인보이'
-예노소극장
- 8월 8일(토)-8월 30일(일) 극단 에저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멀티미디어 소강당
- 8월 14일(금)-8월 30일(일) 공포연극 '오래된아이'
-예노소극장

사랑과혁명소극장

극단 브레히트양상블 전용극장. 2008년 5월 27일 아동극 전문 파꾸극장에서 사랑과혁명소극장으로 새롭게 개관, 극단 브레히트양상블 '그 남자, 보이책'을 무대에 올렸다.

611-0075

cafe.naver.com/revolutiontheater

- 7월 29일(수)-9월 13일(일) 카툰 뮤지컬 '두근두근'

초콜릿팩토리

2008년 5월 9일 개관.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가 자리한 대학가 인근 산암빌딩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지역 기획사인 (주)가을엔터테인먼트와 (주)아츠플레이가 의기투합해 만든 소극장으로, '그 남자 그 여자', '강풀의 순정만화' 등 (주)가을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해 서울 대학로 무대에 올려졌던 작품들이 공연됐다. 경사를 두어 뒷 좌석 관객이 공연관람을 하는데 시선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여타 소극장과는 달리 개별 등받이가 마련되어 있다. 객석 164석. 개관기념공연으로 올려졌던 '그 남자 그 여자'가 공연기간을 정하지 않는 오픈런으로 공연되고 있다.

621-4005

cafe.daum.net/chocolate-factory

에저또소극장

극단 에저또 전용극장으로, 2008년 9월 24일 경성대학교 상경대학 입구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올해 처음으로 소극장 부흥과 부산연극의 성장을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2009 전국 에저또소극장 페스티벌'을 연다. 광주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창원극단 '미소', 극단 에저또 등 3개 극단이 참여한다. 객석 70석.

852-9161, cafe.daum.net/ejotto

- 8월 21일(금)-8월 23일(일)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학문외과'
- 8월 25일(수)-8월 30일(일) 극단 미소 '마술가게'
- 9월 1일(월)-9월 27일(일) 극단 에저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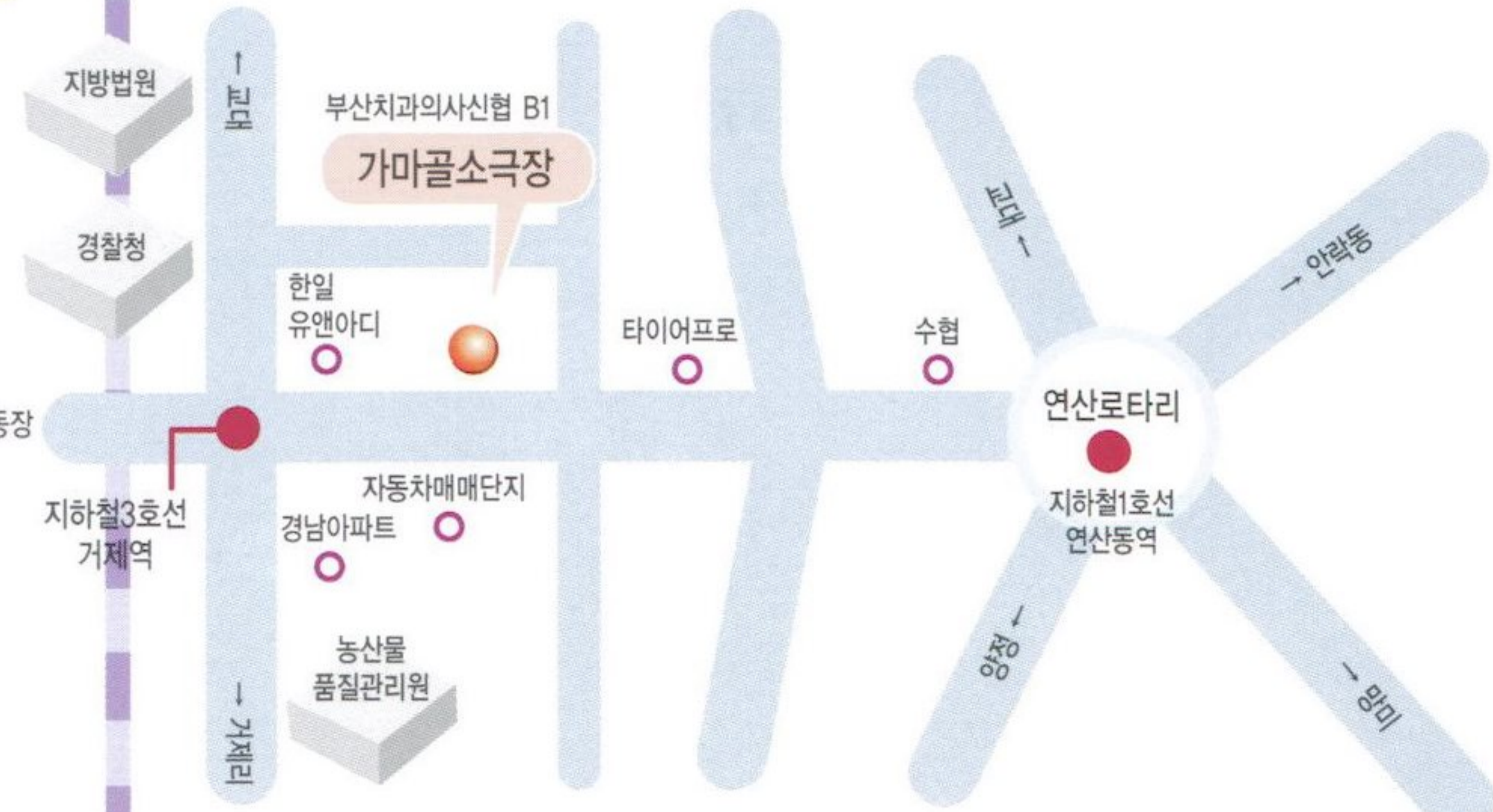


가마골소극장

연출가 이윤택이 이끄는 연희단거리패의 가마골소극장이 광복동 시대를 접고 지난 5월 8일 거제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1986년 연희단거리패 창단과 함께 광복동에 개관한 가마골소극장은 1988년 중앙동, 1997년 광안동으로 이전했다가 지난 2001년 다시 광복동으로 장소를 옮겼다. 극장 입구에는 관객쉼터인 북카페 '날마다 축제'가 자리잡고 있어 연극관련 책자와 OST, 지난 작품의 팸플릿도 구입할 수 있으며,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관객 대기실에서는 지난 23년간의 가마골소극장 포스터가 전시되어 지나간 가마골소극장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연제구의 유일한 소극장으로 '박스 시어터' 형식의 무대와 뮤지컬을 위한 음향시설, 181석의 개별좌석을 갖추고 있는데, 모든 객석은 예약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868-5955, www.kamagol.co.kr

- 8월 4일(화)-8월 9일(일) 우리극연구소 '윤무'
- 8월 12일(수)-8월 30일(일) 연희단거리패 '탈선 춘향전'



MBC롯데아트홀

5월 29일 개관한 지역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 부산 MBC 사옥에 자리한 기존 MBC 아트홀을 리모델링, 최고의 작품을 연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해 뮤지컬 공연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관공연 내마음의 품음을 시작으로 웃음의 대학, 형제는 용감했다 등의 공연에 이어 앞으로 연간 20~30편의 뮤지컬 및 콘서트를 공연할 계획이다. BS부산은행 조은극장에 이어 부산에서 두번째로 롯데백화점과 네이밍협약을 맺었다. 객석 905석. 760-1357, www.mbcarthall.com

- 8월 8일(토)-8월 16일(일) 팬양의 화이트 버블쇼
- 8월 21일(금)-8월 23일(일) 넘버벌 뮤직퍼포먼스 '핑퐁'



열린소극장

1989년부터 극단 열린무대의 전용극장으로 사용되어 오다 지난 2007년부터는 다양한 단체들로 꾸려진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에서 공동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로 3기를 맞는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는 마르, 배우·관객 그리고 공간, 휴먼프로젝트 사람, 극단 시나위, 극단 열린무대, 극단 차이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실험적이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열린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명륜동 지하철 맞은편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 객석 70여석.

555-5025

cafe.naver.com/opentheatre



사직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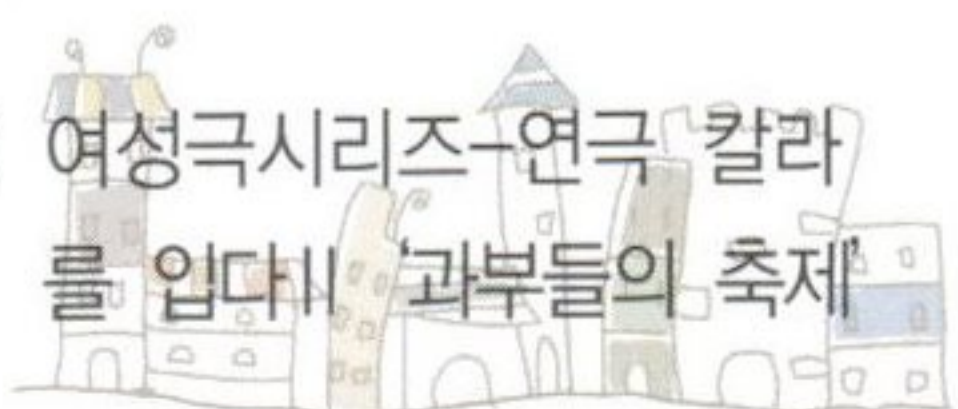


미리내소극장

2006년 12월 23일 연극인 박범식에 의해 개관되었고, 박범식 대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와 인연을 맺어왔던 구민주, 호민이 박대표의 뜻을 이어 2007년 8월 20일 극단 아센 전용극장으로 재개관 했다. 주변 큰 아파트 단지와 부산교대, 법조타운, 사직운동장과 가까워 유동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객석 90여석.

504-2544, cafe.daum.net/acen2000

- 7월 22일(수)-8월 23일(일) 여성극시리즈-연극 '칼라를 입다! 과부들의 축제'





소극장실천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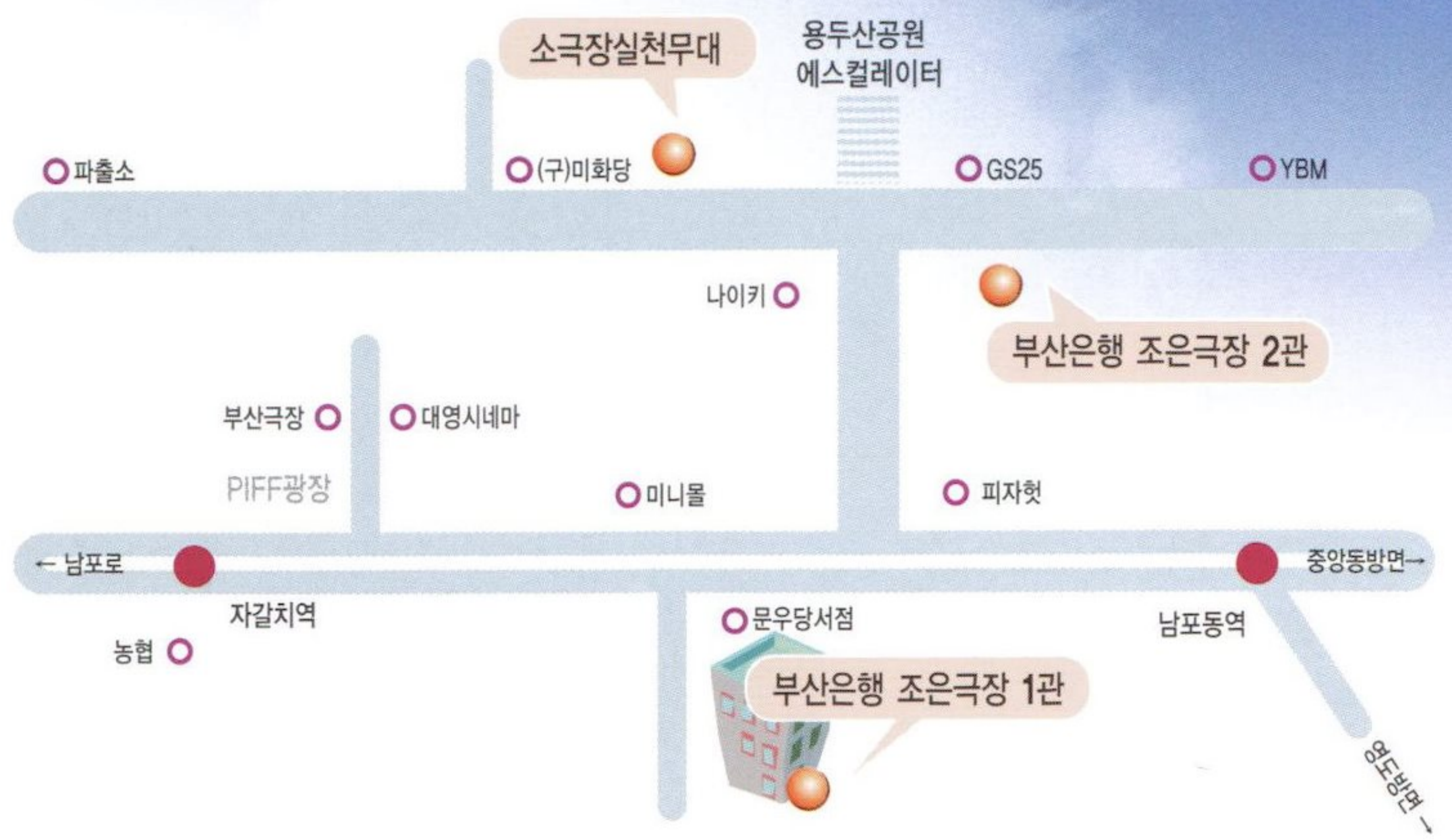


전신이던 소극장 '두레마당' 폐관이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1994년 개관했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서면, 명륜동으로 몇차례 이전하다 지난 2006년 현재의 광복동 자리에 새롭게 정착했다. 극단 새벽의 전용극장으로, 진보적 문예운동, 대안문화운동의 거점이 될 문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객을 위한 문화쉼터인 '시지프스의 하늘'이 있어 연극 뿐 아니라 노래와 연주, 영화상영 또한 가능하다.

객석 72석.

245-5919,

saebyeok.communea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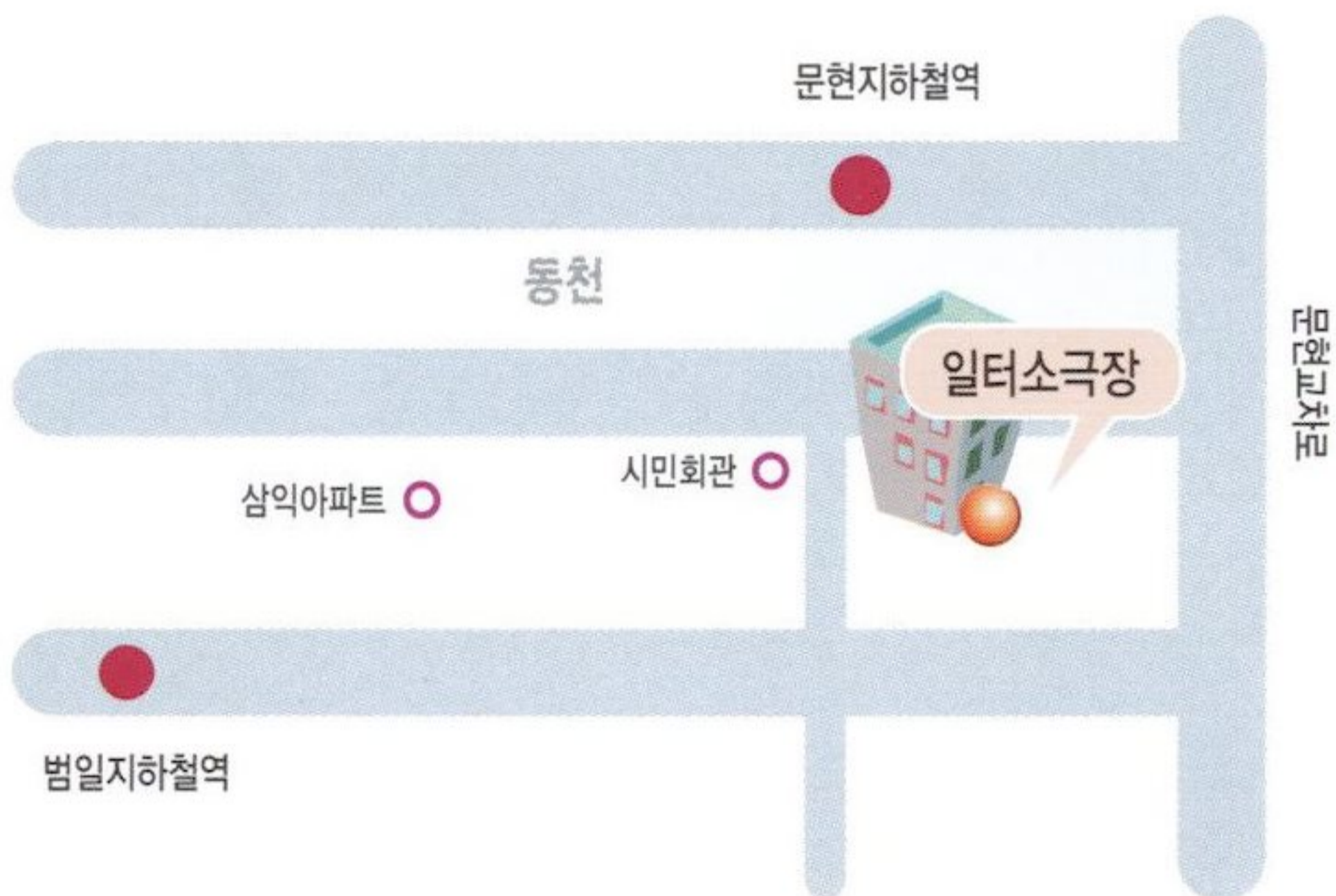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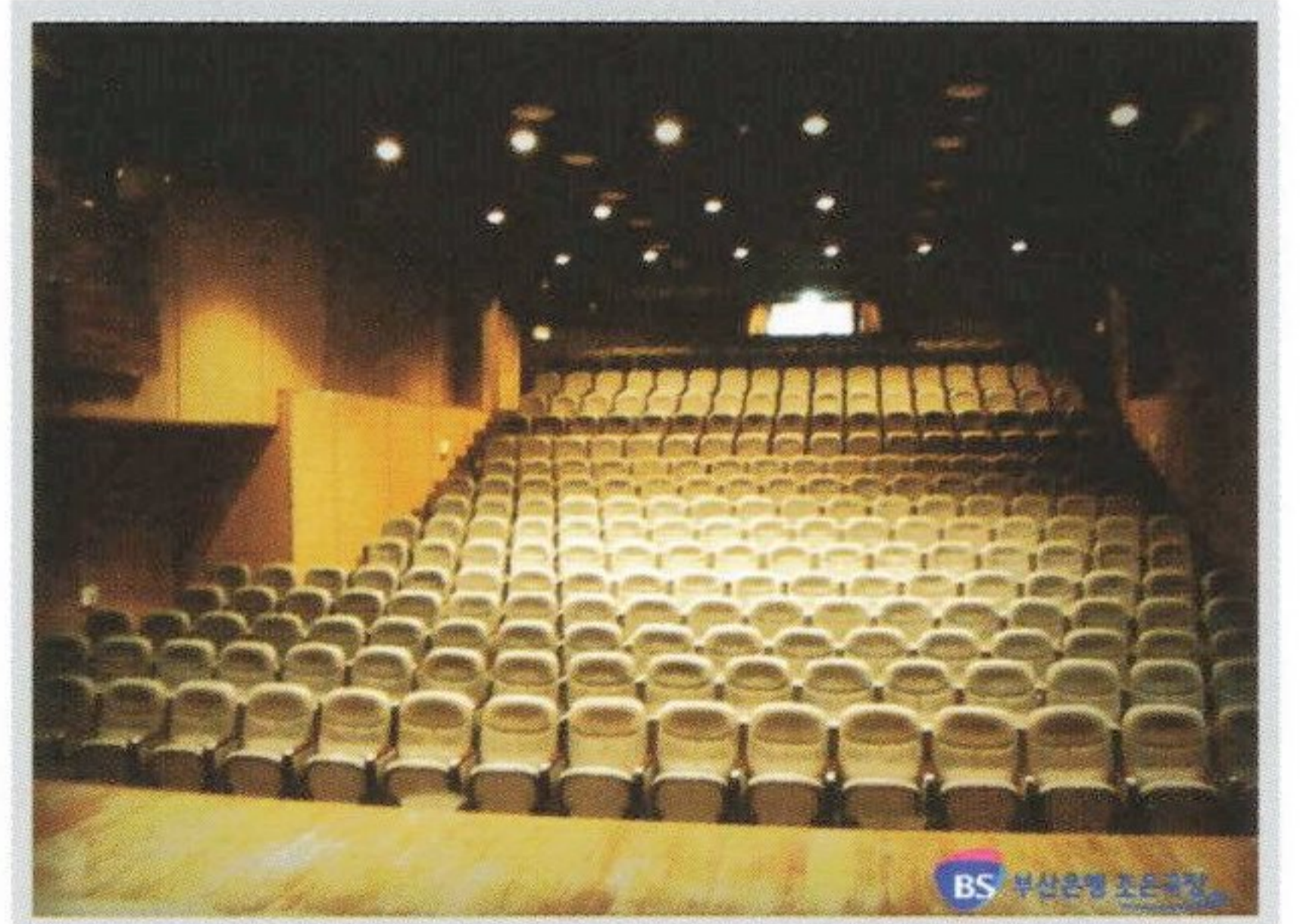
BS부산은행조은극장 1, 2관



지난해 4월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과의 네이밍협약을 통해 부산 최초로 기업이름을 단 극장으로 탄생한 BS부산은행조은극장은 남포동 문우당서점 인근에 위치한 1관과 옛 가마골소극장에 새롭게 문을 연 2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과 타 지역에서 인정받은 우수한 작품을 유치하고 부산지역의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1관은 객석 314석으로, 중규모의 뮤지컬과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으며, 2관은 총 119석이다.

1588-2757, www.gp-gp.co.kr

- 7월 30일(목)-8월 16일(일) 연극 '달라진 저승' -2관
- 8월 6일(목)-8월 30일(일) 아카데미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1관
- 8월 21일(금)-9월 20일(일) 뮤지컬 '락시타-즐거운시절' -2관



일터소극장



범일동 시민회관 옆 노동복지회관 지하에 위치한 일터소극장은 2004년 노동복지회관 소극장으로 개관한 후 지난 2008년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의 음악극 '너, 붉은 사랑'을 무대에 올리며 일터소극장으로 재개관했다.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의 전용극장으로, 일터의 레퍼터리 공연, 기획공연, 대관공연 등을 통해 앞으로 뮤지컬, 콘서트, 춤,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며 소극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나갈 계획이다. 객석 100석.

635-5370

www.ilter.or.kr



소극장 신명천지



1986년 창단된 후 부산, 경남지역민의 삶과 애환을 마당극으로 올려온 극단 자갈치의 전용극장. 공연 외에도 어린이연극학교와 부산시민을 위한 연극아카데미, 풍물, 탈춤, 민요 등의 전통예술교육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515-7314

www.jagalchi.or.kr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과천청소년교향악단의 클래식 향연

8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탄탄한 구성과 수준높은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과천청소년교향악단의 부산연주회.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서곡

브람스/헝가리무곡 제 1번 등 수곡

· 지휘/박진기

· 협연/김민지(피아노 · 과천중 3년, 과천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강민지(첼로 · 부산센텀초등 6년)

■ 관람료 전석 초대

■ 문의 과천청소년교향악단(02-507-1498)

부산원로교향악단 제 2회 연주회

8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 지역 클래식 음악의 초석을 다져 왔던 제 1세대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부산원로교향악단의 제 2회 정기 연주회.

전 부산시립교향악단 한병함 지휘자가 음악감독으로,

동의대학교 백재진교수가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 20번 K.V.466

드볼작/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 지휘/한병함(전 부산시립교향악단 2대 상임지휘자)

· 악장/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 협연/한은아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창단 20주년 및 부산 MBC창사 50주년 기념 제 1100회 MBC 목요일음악회 청소년해설음악회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의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클라리넷콰이어와 함께 하는 제 1100회 MBC목요일음악감상회.

1989년 창단된 부산클라리넷콰이어는 학교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클라리넷 저변확대에 기여해왔다. 창단 20주년을 기념한 이번 무대에서는 다국적의 다양한 작품들을 6가지 색깔의 클

재독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국 최초 내한공연

8월 8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모의 이민으로, 유학으로 독일에서 삶을 꾸려온 한국연주자들로 2007년 4월 창단된 재독 코리안 심포니 초청 연주회.

2009년 5월, 세계적인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의 연주를 통해 독일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재독 코리안심포니는 매 연주마다 한국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며 유럽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싸우스 베이 오페라, 산타 모니카 칼리지 오페라, 로스엔젤레스 컨스트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과 지휘자를 역임한 배중훈의 지휘, 전 세계 각종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주목받는 트럼펫 주자 엔스 린더만,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데뷔를 거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영 프리마돈나로 급부상 하고 있는 소프라노 엔젤 블루,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도르트문트 필하모니와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수석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장 김신경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아 그이었던가'

비발디/사계 중 '여름'

마스카니/오페라 '친구 프린츠' 중 간주곡

거쉬윈/오페라 '포기와 베스' 중 '썸머타임'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 5번 등 수곡

· 지휘/배중훈

· 트럼펫/엔스 린더만

· 소프라노/엔젤 블루

· 악장/바이올린 김신경

■ 관람료 VIP석 70,000원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10,000원 · 학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A석, 학생석 제외 20%할인)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제 4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애니메이션 음악회 with 코스프레

8월 11일 화요일 오후 4:00, 7:00 대극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오프닝 연주로 마련되는 다비드챔버오케스트라의 애니메이션 음악회 with 코스프레.

다비드 챔버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애니메이션 음악과 감동적인 영상, 코스프레를 준비한 학생들의 멋진 캐릭터로 재미를 더해준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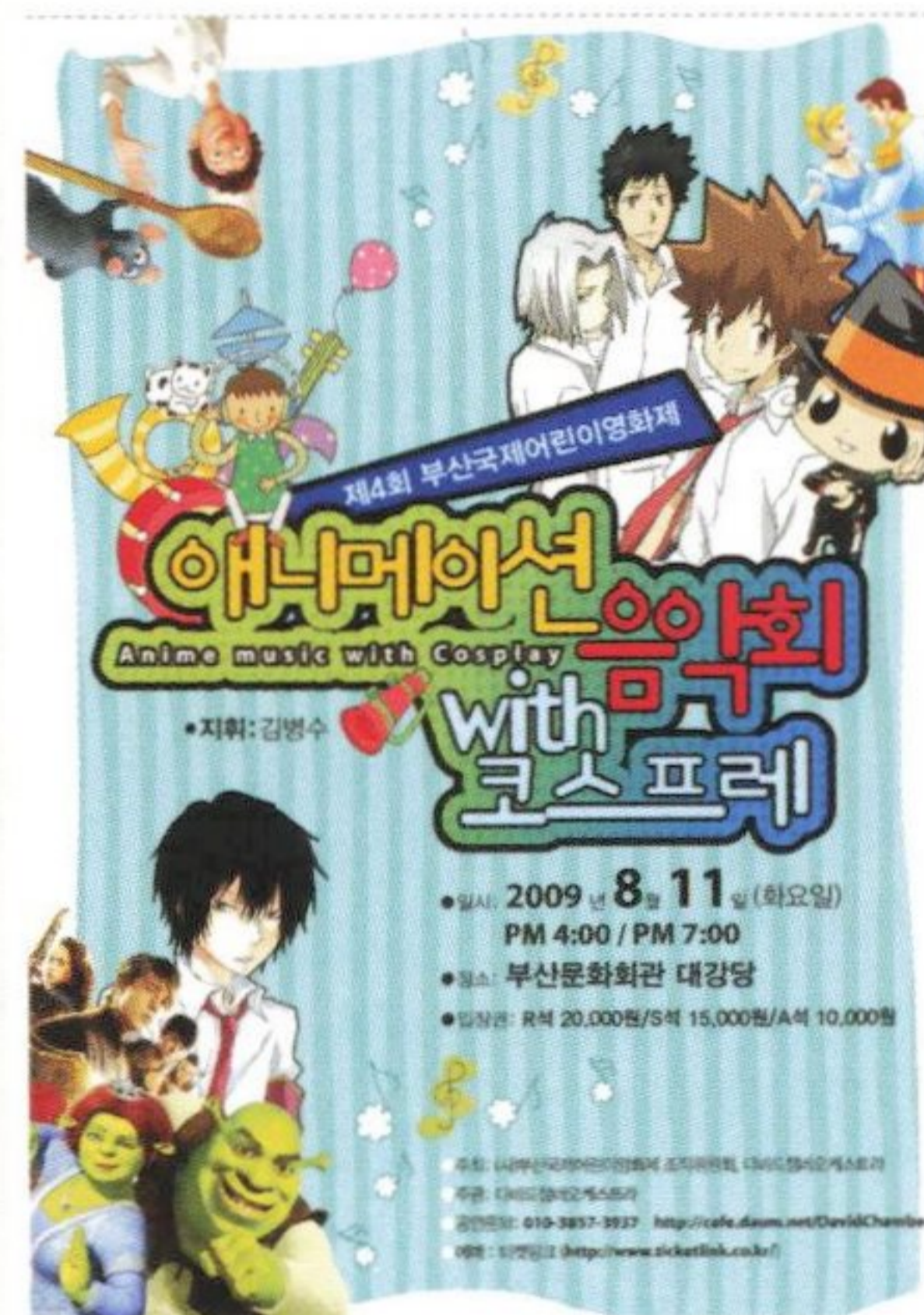
슈렉 'Im a Believer', 라따뚜이 'Ratatouille', 나니아연대기 'The Lion, The Witch & The Wardrobe',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하울의 움직이는 성 'Howl's Moving Castle', 신데렐라 '비비디 바비디 부', 이웃집 토토로 'My Neighbor Totoro',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히바리 테마' '츠나각성', 박물관이 살아있다 'Night at the Museum'

■ 관람료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문의 다비드챔버오케스트라(010-3857-3937)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라리넷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배르디/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맨시니/아기코끼리 걸음마
로스터/리쿠덤 등 수곡
· 해설/이동신

- 지휘/정우영(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한국클라리넷협회 회장)
- 협연/전다양(클라리넷), 뮤사타악양상블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이원기(010-8280-4646), 이성관(010-4446-3321)

부산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화려한 음악여행

8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96년 부산·울산·마산·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창단된 부산윈드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화려한 음악여행.

지난 5월 미국 BYU 윈드 심포니와 교류음악회를 가진 부산윈드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MBC 목요일음악감상회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H.G. Williams/The Rock

J. Wasson/캐러비안의 해적

B.Pearson & C.Elledge/Psalm and Celebration 등 수곡

· 지휘/백진현 · 협연/매그너스 닐슨(바순), 차창현(트럼펫)

· 특별출연/김형주아카데미 DIMF어린이뮤지컬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윤두현(010-5872-8480)

2010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프레음악회 6개 광역 도시 및 제주도 교류음악회

8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을 비롯 울산, 대전, 광주,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와 제주도 음악인들이 함께 마련하는 6개 광역 도시 및 제주도 교류음악회.

출연

매조소프라노 진지연, 피아니스트 박필은, 소프라노 윤미영, 테너 강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합창으로 보는 교과서'

8월 17일 월요일 오후 5:00 중극장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현직 음악교사의 해설로 들려주는 이번 무대는 중,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위주로

기악과 성악, 합창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청소년들에게 클래식음악의 재미를 전해준다.

프로그램

엘가/사랑의 인사

존 루터/아름다운 세상 주신 주께

김성태/동심초

토스티/꿈, 약속

우리민요 아리랑 연곡/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경기도아리랑, 홀로아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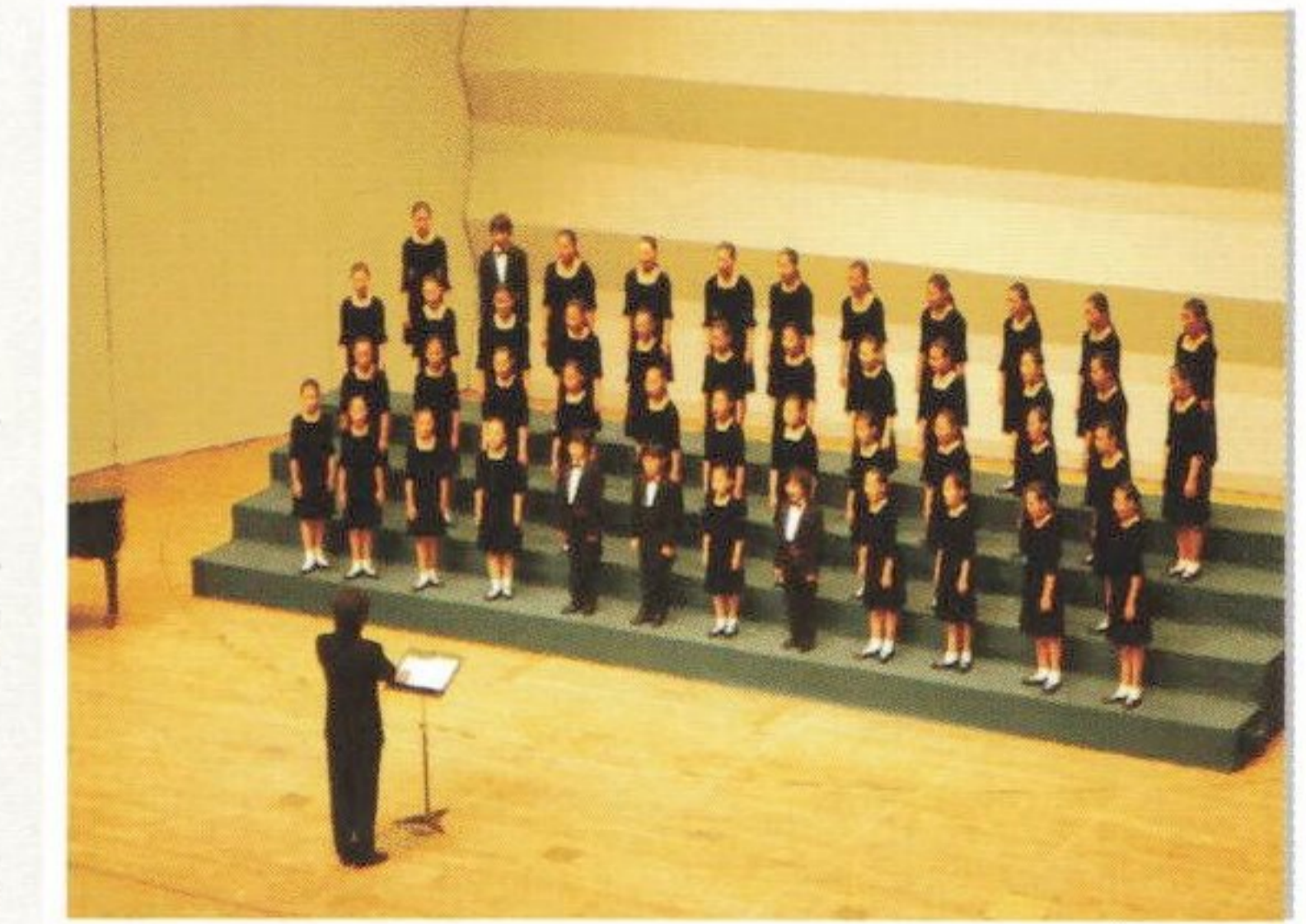
· 지휘/전상철

· 반주/이영옥, 이승윤

· 특별출연/현악 사중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테너/조윤환

· 피아노 독주/조혜정(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 해설/김종석(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보이스소프라노/김종영

· 소프라노/전귀만(부산시립합창단 수석)

· 플룻 독주/박찬경(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2)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8월 18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대극장

신선한 발상과 새로운 도전으로 무대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클래식은 내친구'.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온 금난새는 1994년부터 청소년음악회를 기획, 1999년까지 전회 전석 매진의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은 지휘자가 되었다.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차르테움에서 피아노 연주과와 음악교육학과, 동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2006년 귀국한 김혜린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교향곡 제 40번 중 제 1악장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 제 1악장

림스키-코르사코프/교향적 협주곡 '세헤라자데'

· 지휘/금난새(유라시안필하모닉 CEO, 경기필하모닉 예술감독, 경희대 교수) · 피아노/김혜린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지휘 금난새

피아노 김혜린

동명, 바이올리니스트 김영기, 소프라노 김유섬, 피아니스트 오성심, 소프라노 김유정, 현악 4중주 유니스 외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 문의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019-567-7379)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9.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최의욱

정진희

강모세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의 창작열정을 만날 수 있는 특별무대 2009.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올해는 수석 정진희의 '틀', 단원 최의욱의 '팔을 휘젓는 남자', 단원 강모세의 '그 꽃'으로 한여름 밤 다양한 춤의 세계를 열어준다.

작품

팔을 휘젓는 남자(연출/김미란 · 대본/김미란 · 안무/최의욱 · 출연/오수연, 장영진, 최의욱 · 특별출연/김학준)

틀(연출/서정숙 · 대본/정진희 · 안무/정진희 · 출연/정진희, 서정숙 · 악사/성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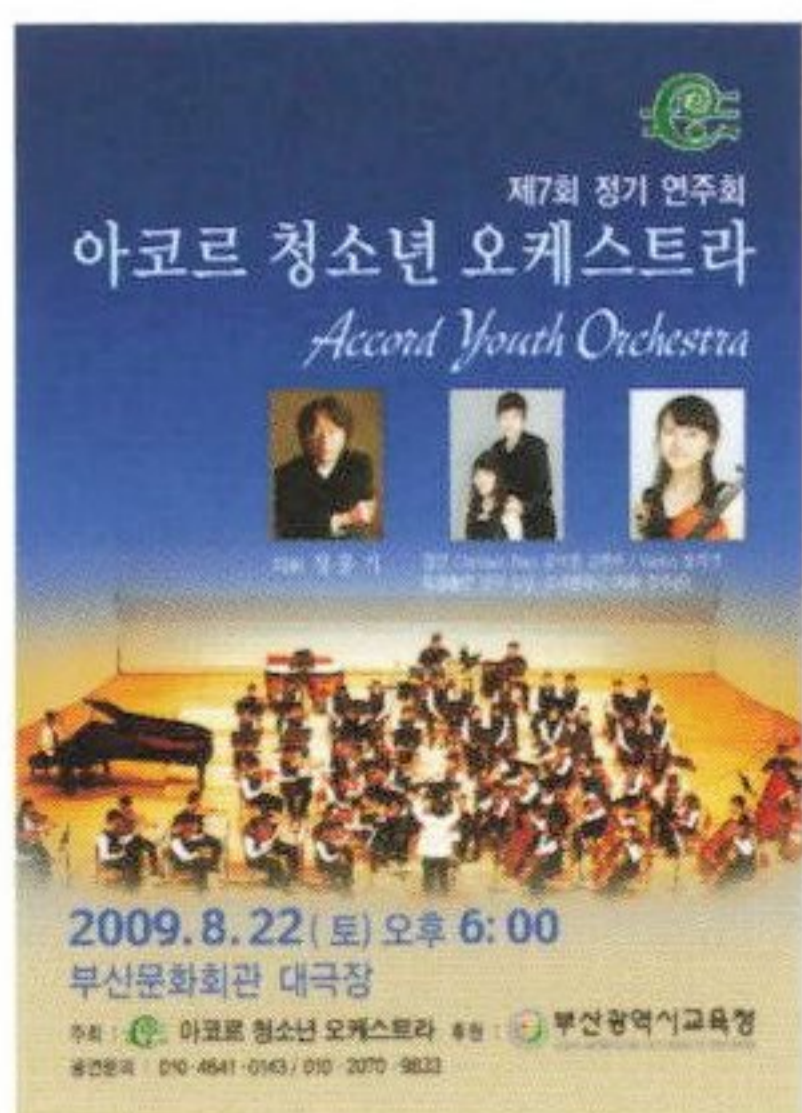
그 꽃(안무/강모세 · 대본/강모세 · 연출/이성원 · 출연/강모세, 김공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황대현, 조은미, 박민화)

· 무용감독/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2003년 1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 3번 K.216

피아졸라/리베레 탱고

요시타마 료/드라마 일지매 OST '외로운

발자국' 등 수곡

· 지휘/정홍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한여름밤의 콘서트 '국악과 성악의 만남'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매년 여름 팔방수같이 시원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2009년 새롭게 선보이는 한여름밤의 콘서트 '국악과 성악의 만남'.

부산대학교 배양현 교수가 객원 지휘하고 인생살이

의 애환을 소리로 빛어내는 장사익, 밝고 경쾌한 이미지와 깨끗한 목소리 톤으로 독자적인 팬 층을 구축하고 있는 트로트계의 여왕 주현미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양방언/창작관현악 'Prince of Cheju' 'Frontier'

이선택/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하는 민요연곡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장사익과 함께 하는 국악가요/황혼길, 아버지, 짚레꽃

주현미와 함께 하는 대중가요(편곡/백규진)/'신사동 그 사람' '또 만났네' '짝사랑' 등 수곡

· 지휘/배양현(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 협연/장사익(소리꾼), 주현미(가수), 신문범(모듬북), 최오성(모듬북)

- 관람료 A석 20,000원 · B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전석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09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교류음악회 '오페라 합창의 밤'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울산·경남의 3개 시·도 합창단들이 함께 들려주는 3개 시·도 교류음악회.

올해는 2009년 독일순회연주에서 최고의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합창단과 독일 자브뤼켄 공연을 가진

울산시립합창단, 새로운 모습으로 감동을 전하는 김해시립합창단이 100여명이 넘는 연합합창단을 구성,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명엽의 지휘로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바그너/오페라 '탄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베르디/오페라 '일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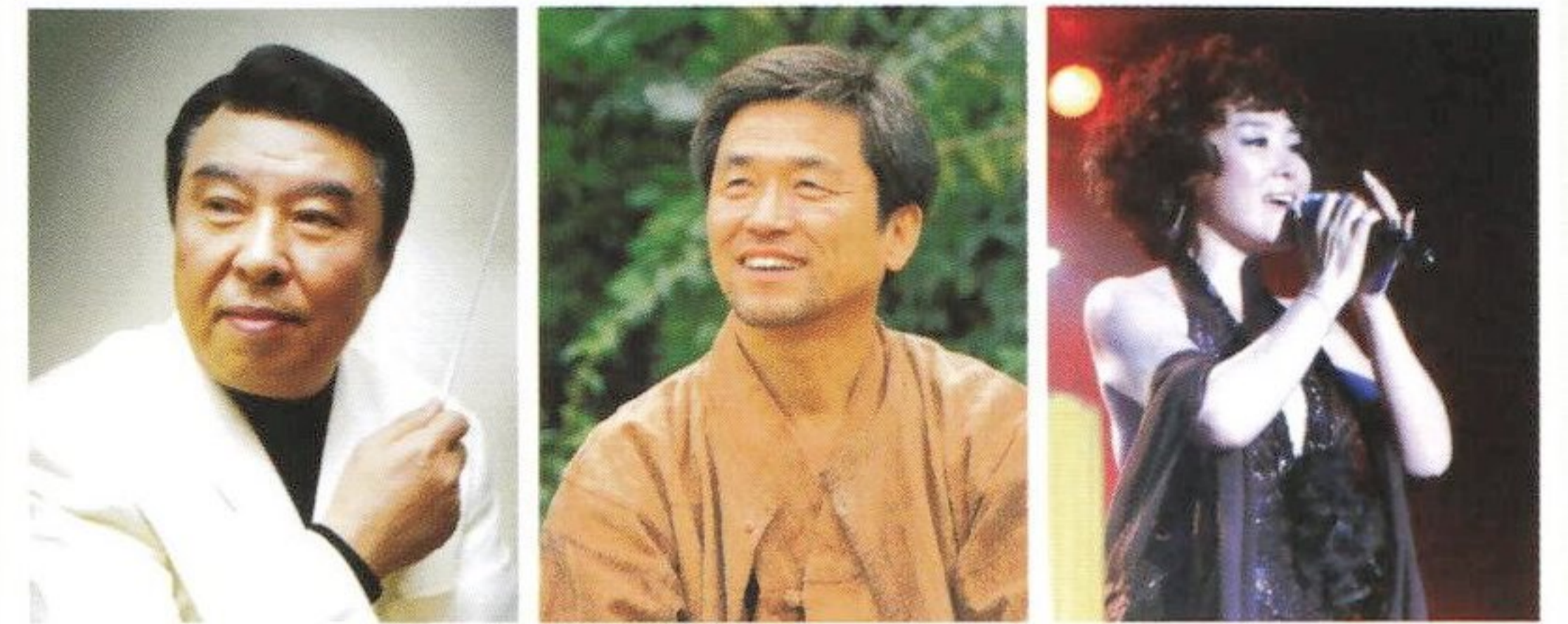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의 합창' 등 수곡

· 지휘/김명엽(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 협연/김유섬(소프라노), 김지호(테너)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지휘 배양현

소리꾼 장사익

가수 주현미



지휘 김명엽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 협연/김서영(클라리넷, 부산진여고 2년), 김현우(클라리넷, 동양중 3년), 장희영(바이올린, 동래여중 2년)
- 특별출연/남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김주곤)

- 관람료 초대
- 문의 아코르 청소년오케스트라(010-2070-9833)

2010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프레음악회 부산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우리음악 콘서트 '신나고 재미있는 교과 서 속의 우리음악이야기'

8월 23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2004년 창단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온 퓨전국악관현악단 '여운'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는 신나고 재미있는 교과서 속의 우리음악이야기.

프로그램

25현 가야금 독주를 위한 '도라지', 첼로와 해금, 피아노로 듣는 '고향의 봄' '아리랑', 국악관현악 '아, 목동아', 테너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박타령' '마이웨이', 민요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뱃노래' 등 수곡

- 지휘, 해설/홍희철
- 테너/강학윤
- 트럼펫/차창현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 문의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019-567-7379)

음악, 세대간의 교감

8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소프라노 김정애, 테너 김한길, YMCA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경현실버아카데미의 수료생으로 이루어진 경현시니어종합예술단 산하 '석정시니어콰이어'가 들려주는 '음악, 세대간의 교감'.

주폐의 '경기병서곡'을 첫 곡으로 우리 가곡 '내 맘의 강물', '강건너 봄이 오듯이', 오페라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칸쪼네 '오 나의 태양', 바다 주제에 의한 메들리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여름의 끝자락을 장식한다.

- 지휘/강재권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2009 비엔그룹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9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음악을 통해 희망과 화합의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비엔그룹이 마련하는 제 2회 대한민국 기업사랑음악회.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필라델피아



지휘 오충근 바이올린 데이비드 김 플루트 최나경

오케스트라 100년 역사상 최초 동양인 악장 데이비드 김,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부수석 플루티스트 최나경, 커티스음대에 재학중인 차세대 유망주 한효림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이탈리아 기상곡
메르카단테/플루트 협주곡 마단조 작품 67
시벨리우스/핀란드어 등 수곡

- 지휘/오충근(고신대학교 교수)
- 협연/데이비드 김(바이올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최나경(플루트,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수석), 한효림(바이올린, 커티스음대 재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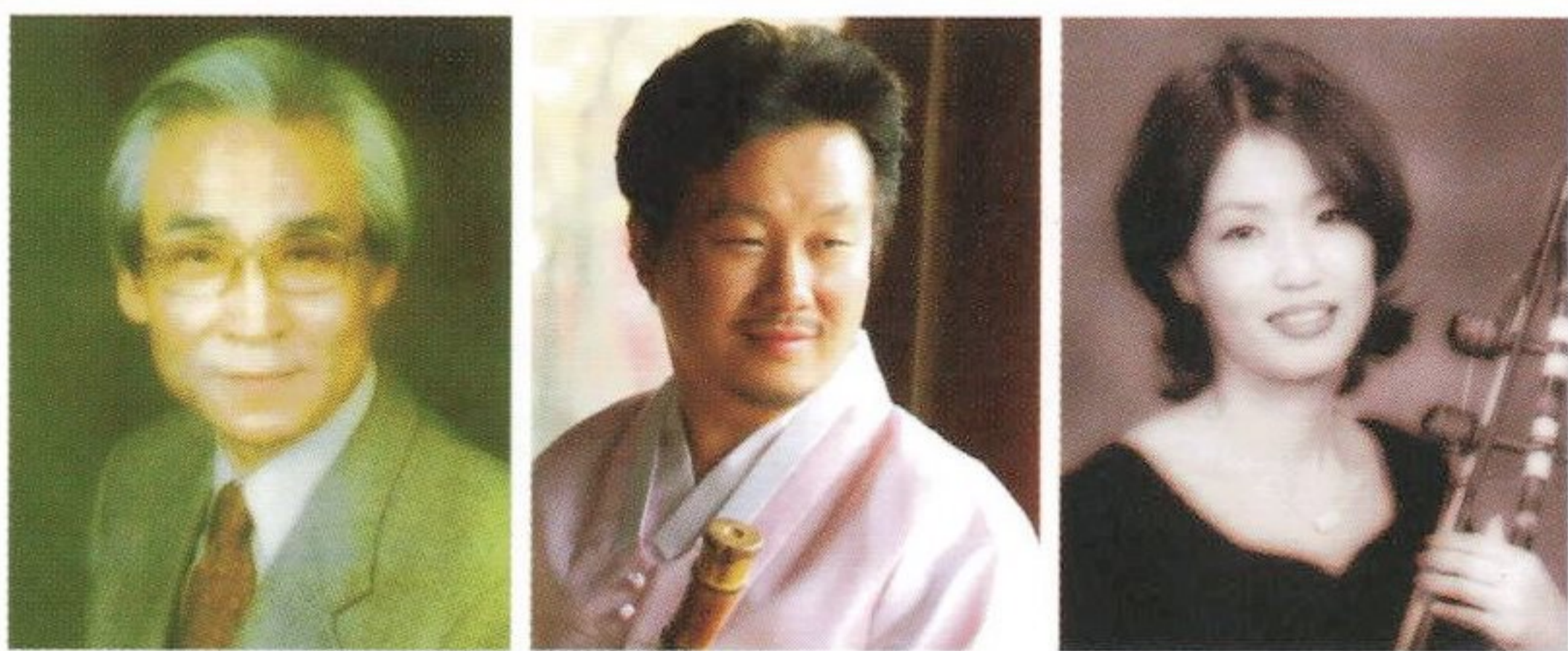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의 KNN방송국(1577-7600) www.knn.co.k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대바람 소리'

9월 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무용음악과 연극음악, 실용음악에까지 음악의 영역을 넓혀온 작곡가 이상규가 객원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해탈한 장지풍의 정취를 대금으로 표현한 객원지휘자



지휘 이상규 대금 어경준 해금 김성아

이상규의 대표곡 '대바람 소리'를 타이틀로 경쾌한 리듬의 선율이 한층 더 돋보이는 '가을의 기억', 한 민족 정신의 흥과 신명의 향이 묻어나는 해금협주곡 '향' 등 다양한 협연곡들이 이어진다.

프로그램

백규진/가을의 기억
이상규/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관현악
백대웅/남도아리랑
오혁/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협주곡 '코사무이'
박범훈/해금협주곡 '향(香)'

- 객원지휘/이상규(한양대학교 교수)
- 협연/어경준(대금, 경기도립국악단 단원), 김성아(해금, 한양대학교 교수), 김용우(피리, 태평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구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2010 부산세계음악제를 위한 프레임악회 제 10회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의 만남

8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내악 단체팀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한자리에서 들려주는 실내악의 만남.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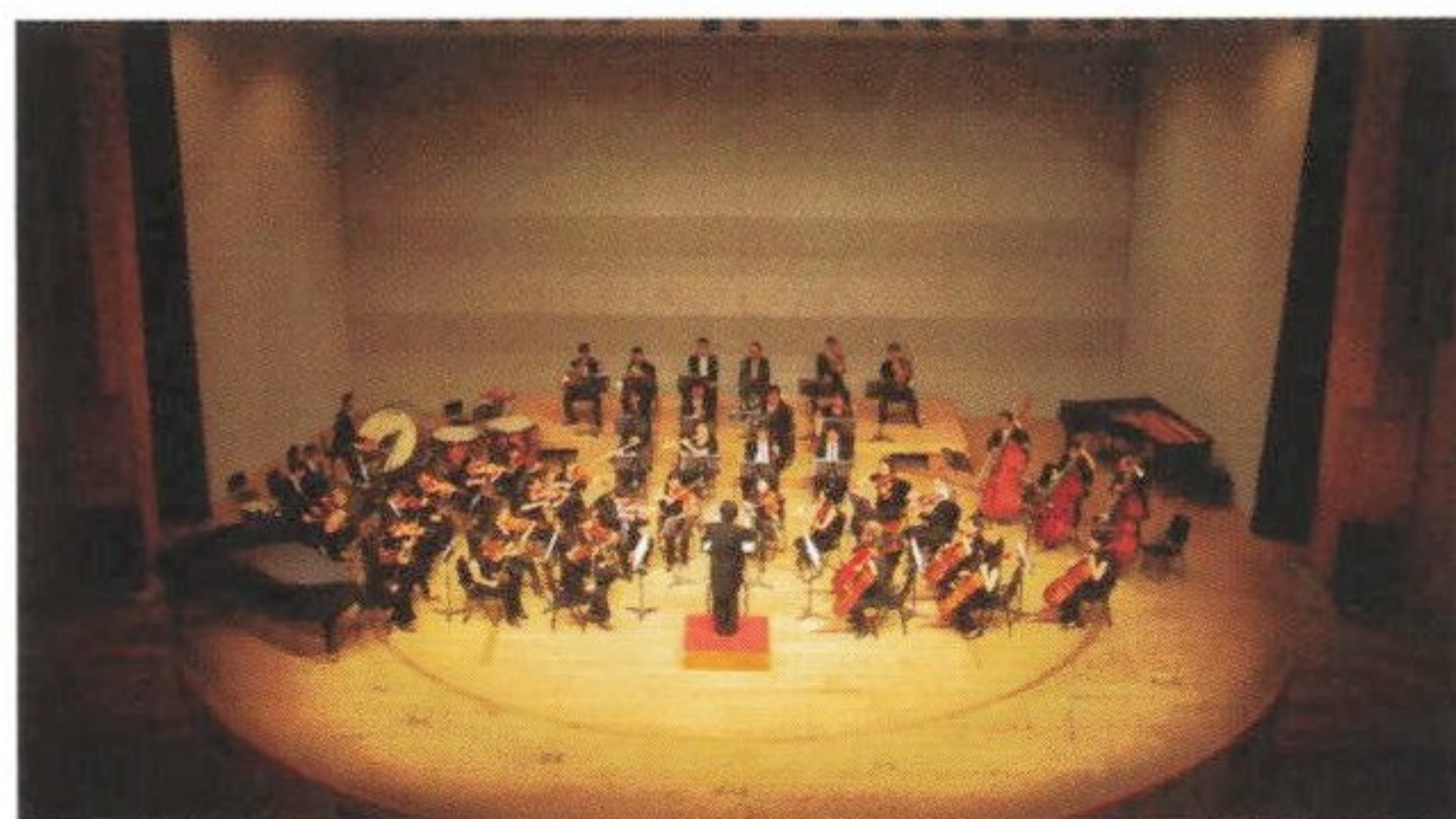
트리오, 고충진 클래식기타 트리오, 부산시립교향

악단 금관5중주, Sonus & Arcus, 소누스앙상블, 남성앙상블 칸타빌레, 문주연, 김은진 현악 2중주, 진민지(우정출연)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 문의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019-567-7379)

제15회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창작음악 & 클래식 음악여행

8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8년 창단이후 바로크에서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제 15회 정기연주회.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공모한 2009 부산 창작 관현악 작곡 콩쿠르 대상 작품을 초연한다.

프로그램

2009 부산창작 관현악 작곡 콩쿠르 대상작품
모차르트/Concerto for Three Pianos K.242
하순봉/Dittography for Piano & Strings
휴블러/혼을 위한 협주곡

- 지휘/백진현
- 협연/이경옥, 예브게니 이조 토브, 정년경

- 관람료 초대
- 문의 백진현(999-5265)

부산예술단 정기공연 -과거,현재,미래의... 전통음악과 춤이 만든 소리의 맥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1984년 故 이용식 선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부산풍물패를 시작으로 부산 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예술단이 그동안 발표해온 우리의 우수한 전통 레퍼토리를 알리고 전통이 바탕이 된 퓨전 타악과 춤의 연결고리 속에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입춤, 경기도당굿, 삼도설장구

민요, 북의 대합주 - 打(타) 천(천) 舞(무)

· 특별출연/정선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부산예술단 사무국(010-2627-2133)

제 5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오후 6:00
오후 7:30 중극장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제주 등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15세 이하 어린이 및 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하는 제 5회 한국청소년합창콩쿠르.

올해는 오전 11:00부터 오후 6:00까지 참가팀의 경연에 이어 오후 7:30 시상식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의 특별무대가 이어진다.

- 관람료 무료
-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32-0176)

참플룻 정기연주회

8월 30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글린카 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플루티스트 김혜정과 명혜빈, 박윤진, 장경인, 심수정 등 그의 제자 12명이 함께 하는 참플룻 정기연주회.

- 관람료 무료
- 문의 김혜정(010-4016-7477)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9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1993년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들로 창단된 고신의대 관현악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롯시니/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브람스/교향곡 제 3번 바장조 작품 90

· 지휘/황장수 · 협연/곽찬이(본과 3년)

- 관람료 무료
- 문의 이재민(010-8548-5562)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시~10시)



음악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4일 장철근, 김기도 듀오연주회

‘바이올린과 첼로의 만남’

러시아 성-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석사)과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장철근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진주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있는 첼리스트 김기도 듀오연주회.

■11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쉬어가는 음악시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와 피아니스트 정연희, 첼리스트 김기도가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앙상블 무대.

■18일 해피앙상블 초청연주회

‘야! 신나는 여름방학이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남성 성악가 특유의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앙상블을 들려주는 해피앙상블 초청연주회.

■25일 ‘늘함께’의 생활성가 콘서트 ‘음악소풍’

·출연/나현욱, 마르타, 이태희, 정진아, 석판홍 신부
·해설/장진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www.bccenter.or.kr)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5일 오후 4:00, 7:30

박종근과 함께하는 오카리나 여행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과 함께 떠나는 오카리나 음악여행. 클래식과 영화음악, 가요 등을 새롭게 편곡, 오카리나 연주로 들려준다.

■12일 오후 4:00

테너 3인의 높은음자리표 이야기



서명보

김동국

오동주

남성성악앙상블 4+1 단원으로 활동하는 테너 서명보, 김동국, 오동주 3인 음악회.

■12일 오후 7:30

베이스 권영준의 낮은음자리표 이야기



남성성악앙상블 4+1 단원으로 활동중인 베이스 권영준이 베르디, 모차르트, 벨리니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특별출연/남성성악앙상블 4+1
·피아노/최혜련

■19일 오후 4:00, 7:30 바리톤 고봉수와

노래하는 친구들(M&M 성악연구회)

미루샘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바리톤 고봉수와 그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노래이야기.

·특별출연/바리톤 고봉수, 소프라노 신정순

■26일 오후 7:30

동성Dream윈드 오케스트라 창단음악회

2008년 3월 사회복지법인 동성원 원아들로 창단한 동성Dream윈드 오케스트라 창단음악회.

·지휘/황남용 ·협연/소프라노 장은영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아름다운 재즈-홍노경

8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재즈싱어 홍노경의 아름다운 재즈무대로 마련되는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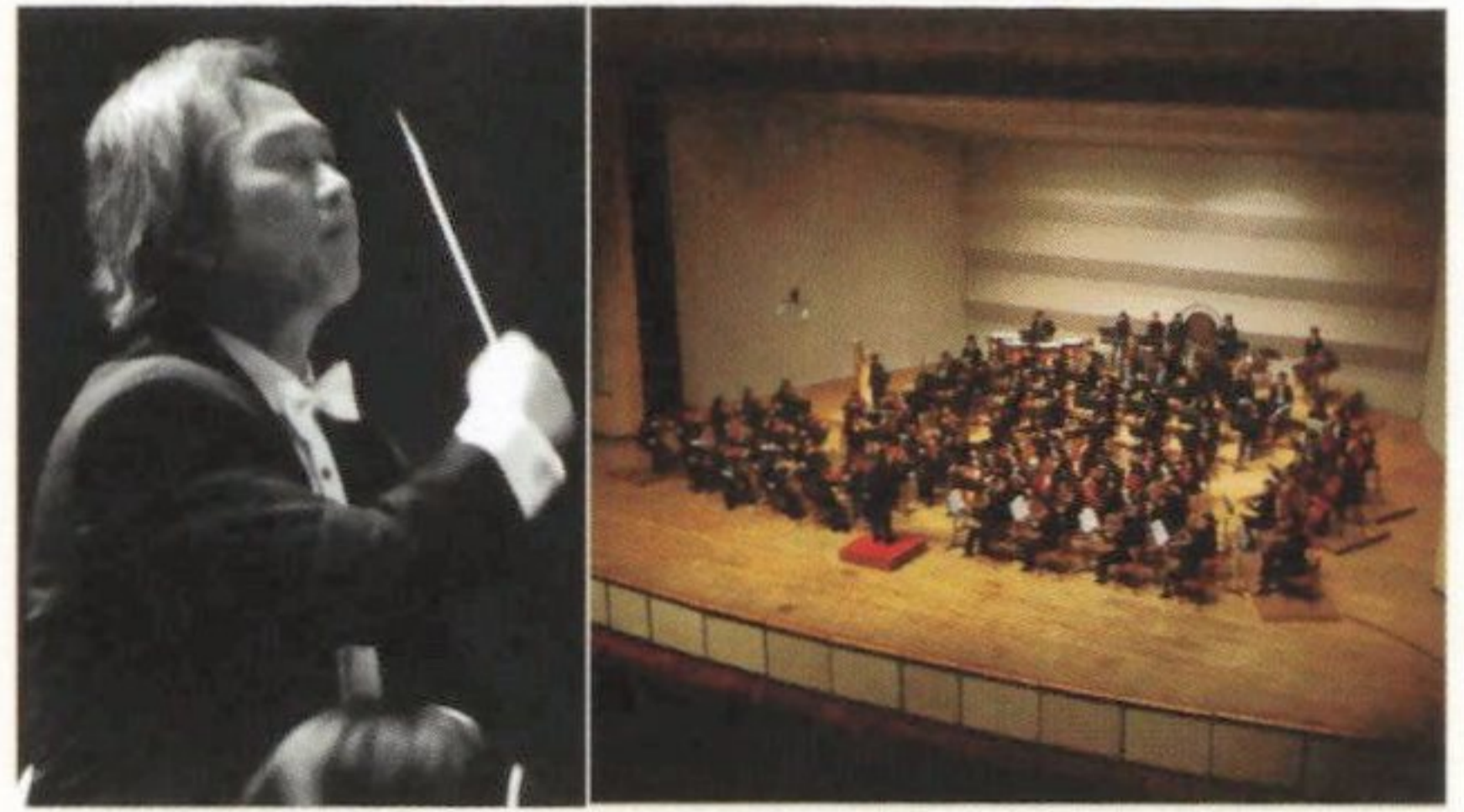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8월 9일 일요일 오후 7:30

광안리해수욕장 특설무대



박성완

가마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줄 해변 콘서트 ‘열린바다 열린음악회’.

소프라노 박은미, 테너 송승민, 베이스 이연기, 국악인 김지혜,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도진미가 출연, 국내외 가곡과 가요, 민요로 한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연주/가마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관람료 무료

■ 문의 국제신문(500-5222)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8월 9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 유일의 색소폰 전문 오케스트라인 아마빌레 색소폰오케스트라는 2002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왔다. 이번 무대에서 우리가요 및 민요 등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지휘/이수영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형욱(011-9044-7576)

책사랑54년 대형서점
지하1층~지상5층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과장아님)

국산/외국산 최상품 지구본 취급

▶국산:소·중·대·초대형·위성·지세·행정 20%할인
▶외국산:세계 매출 최고 독일스텔라노바 소·중·대·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들고, 한·영문 지명 선물 최고(교구용)

지도의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

★정부발행지도 지정판매처!

▶1:3000도 판매 각처의 사용 용도에 맞게
주문하는 크기로 연결코팅해 드림

▶관내도, 금융기관, 부동산업, 각업소 참고도면
▶건설, 유통업, 택배, 기타 작업체 필요부분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지번도면 확대축소

★전국사·도별, 전국교통관광, 국내외 관광책자

대형액자지도, 지구본 매장관람환영!

각종일부안내
51 해사도서
기술전문서적,
국정교과서

52 경제경영일반,
53 시고, 컴퓨터관리실

54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초지일관 · 양심경영
해사도서전문 취급 및 출판 전국 최고의 종합지도센터

Since 1955

문우당서점

1955년 창립 이래 54년 동안
전국 최고의 종합지도센터로
인정받았으며, 해사도서 전문
취급 및 출판사로도
인정받았습니다.

www.munbook.co.kr

문의 011-241-5555(대)
011-245-2714(공)
011-245-187, 011-245-232

부산광역시 중구 낙동동 69-1

각종일부안내
25 각종지도
26 각종외국어서적,
27 각종사전

28 국산지구본,
수입지구본, 소·중·대형

29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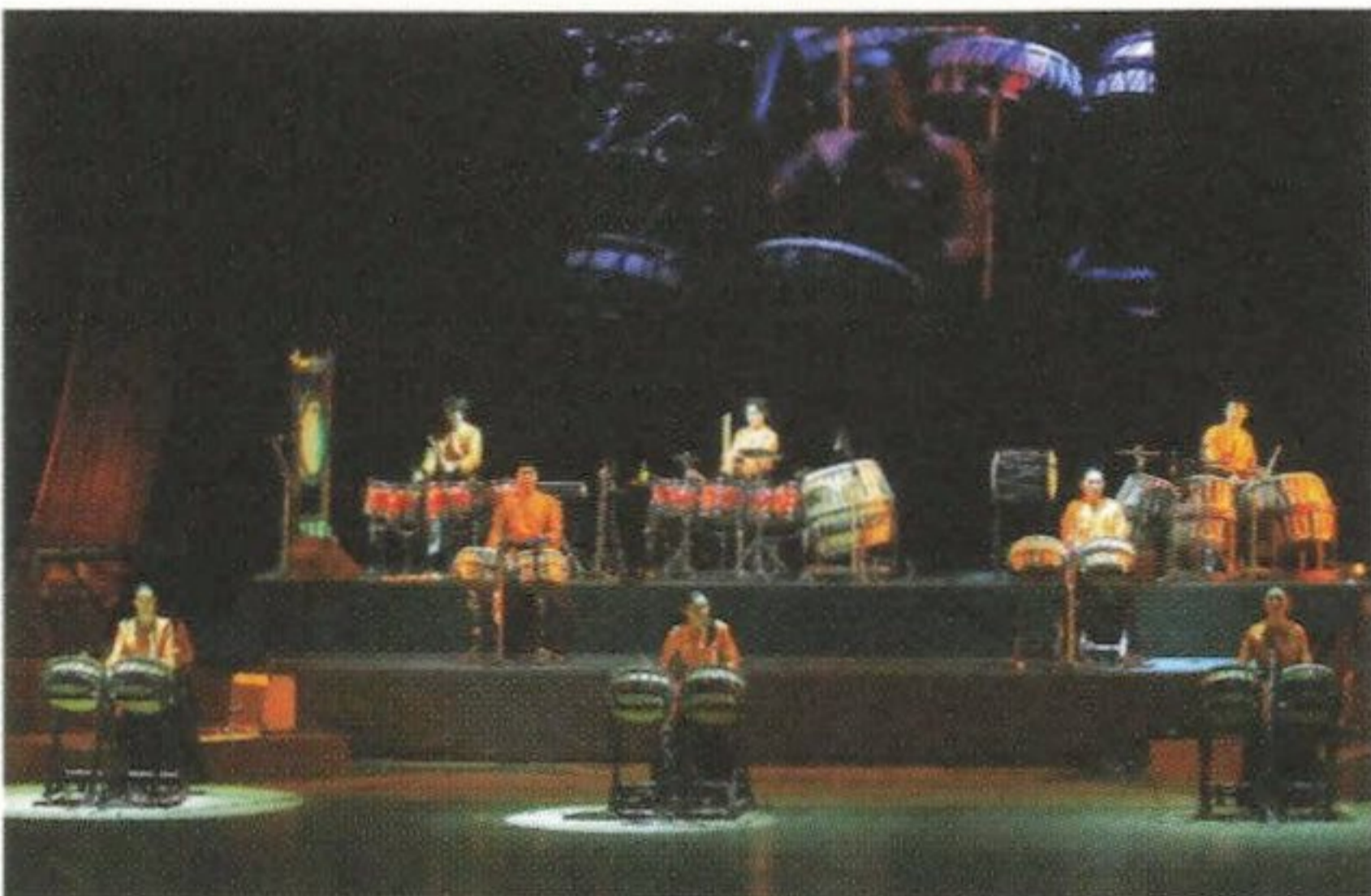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타로와 재즈피아노

8월 11일 화요일 오후 8:00
부산예술대학 콘서트홀



국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뜨거운 반향을 얻고 있는 타로와 세계적인 재즈피아노 연주자 타케나카 마코트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무대.

프로그램

사물놀이, 피아노독주 '벚꽃, 여름의 추억, 트로이메라이, 엘리제를 위하여', 판소리와 재즈피아노, 모듬북 협주곡 打 등 수곡

· 해설/박성희

■ 관람료 균일 10,000원

(20명 이상 단체관람시 20% 할인)

■ 문의 이일록(583-7958, 010-3282-8014)

유나이티드 바순앙상블 순회연주회

8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스웨덴 헬싱버그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는 바순연주자 매그너스 닐슨 초청으로 마련되는 유나이티드 바순앙상블 부산연주회.

프로그램

L.앤더슨/Bassoonist's Holiday
크라이슬러/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리스트/헝가리랩소디 제 2번 등 수곡

· 연주/매그너스 닐슨, 최호순(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장정호(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이민호(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표규선(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 협연/김동욱(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환타지아(02-3487-2096)

제 8회 동아피아노포르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한여름밤의 음악회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동아피아노포르테가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 연주/김미연, 박미숙, 김미진, 남현숙, 송학, 이현주, 곽윤희

· 특별출연/장진웅(바리톤), 황지영(오보에)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이미래(011-868-7961)

YMC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획연주회 가족사랑 음악회 시즌 1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7월 YMCA와 노동부가 연계하여 창단된 YMC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앞으로 문화소외 계층 및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지휘/홍성택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황성준(010-3556-7308)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홀이 공동주최하는 제 4회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교과서음악축제

8월 13일-15일 목-토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곡을 중심으로 상세한 해설과 함께 펼쳐는 청소년 교과서음악회, 연주회와 함께 연주홀 견학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진다.

· 해설/신영순(작곡가)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웃음을 주는 해피앙상블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콘서트

8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1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18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남성성악가들의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앙상블, 코믹한 연출과 재미로 친근한 무대를 선사하는 해피앙상블 여름방학 콘서트.

· 출연/이홍길, 박훈, 황성학, 우경준, 이승우, 우원석 (테너), 강재석, 고정현, 김대성(바리톤), 정용욱, 권영기, 김정대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이홍길(010-3839-1084)

아지무스오페라단 청소년해설음악회 바로크에서 영화음악까지

8월 14일 금요일 오후 4: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바로크시대에서부터 고전,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곡과 성악곡, 뮤지컬,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프

그림을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청소년음악회.

· 출연/KO-Asia오케스트라(지휘/김종진), 송윤경(소프라노), 김태형(베이스), 박종관(오보에), 이영영(바이올린), 김기도(첼로), 크로체남성중창단

■ **관람료** 균일 10,000원(인터넷 예매, 할인쿠폰 소지시 20% 할인)

■ **문의** 손욱(526-4048, 011-9520-4649)

2009 부산기타페스티벌

8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페스티벌기타앙상블과 보티첼리기타사중주, 클래식기타리스트 심주영, 서승완, 고익석 초청으로 마련되는 2009 부산기타페스티벌.

기타로서는 국내 최초로 연주되는 비발디 '사계'를 비롯해 남미의 경쾌한 탱고, 로드리고 아랑훼즈협주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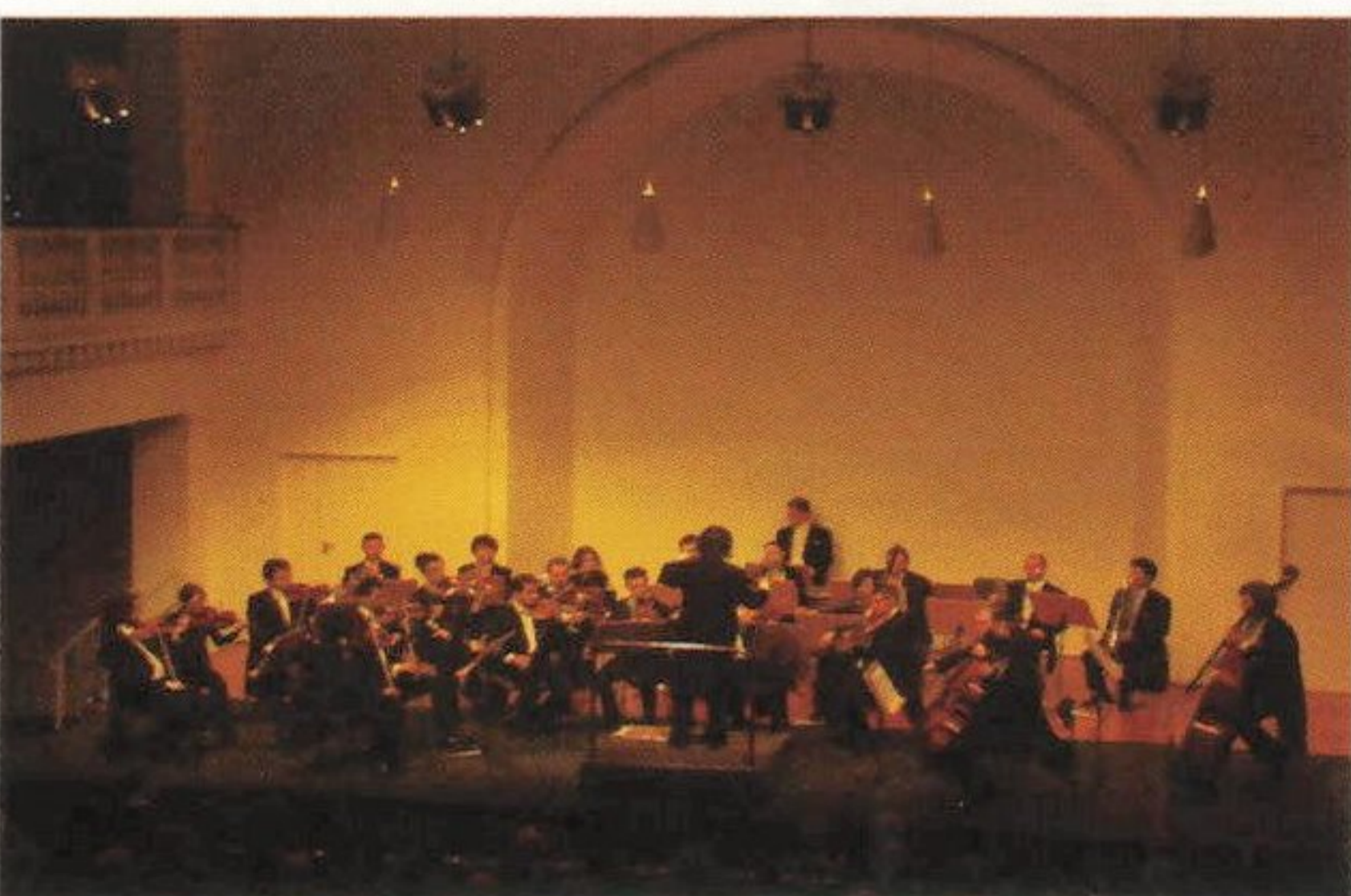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서승완(010-5198-0074)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 2009 내한연주회

8월 16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세계 각국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뉴 필하모니아 함부르크는 1999년 창단 이후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팔츠부르크 교향곡 바장조 KV 138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등 수곡
· 지휘/사무엘 바르세지안

■ **관람료**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주니어와 함께하는 에코의 썸머콘서트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00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플루트앙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조진학을 중심으로 결성된 플루트 에코와 제자들이 결성된 주니어 에코가 함께하는 무대.

· 음악감독/조진학 · 지휘/백상홍
· 협연/박혜영(성악가)

■ **관람료** 초대

■ **문의** 플루트 에코(010-6230-8226)

2009년도 제 19회 주목받은 부산의 차세대 신인음악회

8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부산 출신 유망주들의 발표무대 '신인음악회'.

· 출연/김은샘(바이올린), 진지연(메조소프라노), 박주영(첼로), 김선정(소프라노), 조상한(피아노), 구민영(소프라노), 조혜운(바이올린), 김현애(소프라노)
· 우정출연/박진영(피아노)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김화정 제자발표회 제 3회 꿈꾸는 우리들의 노래

8월 19일 수요일 오후 5:00,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테너 김화정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발표무대로, 초·중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이태리, 독일가곡 등을 들려준다.

· 오후 5:00

윤상원(송수초등), 강다현(월산중), 이인철(부산예중), 최우석(해강중), 김도엽(부산예고), 김상현(진영고), 김수진(중앙여고), 김엘림(부산예고), 김준현(배정고), 안진우(브니엘예고), 이장태(브니엘예고)

· 오후 7:30

김건후(브니엘예고 졸), 김두성(한국예술종합학교), 김조은(부산대), 민영욱(중앙대), 박요한(한양대), 박현수(동의대), 이지영(부산대), 정재연(인제대), 황동남(대구가톨릭대), 허민지(울산예고 졸)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화정(011-9208-9752)

한 톨 교수 초청 리코더 연주회 해설과 함께하는 리코더 연주회

8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독일 브레멘음악대학 교수이자 미국 인디애나 'Jacob's School of Music' 대학 초빙교수로 있는 리코더연주자 한 톨의 연주로 펼쳐지는 해설과 함께하는 리코더 연주회.

독일 드레스덴음악대학과 프라이부르크음악대학을 졸업한 첼발로 연주자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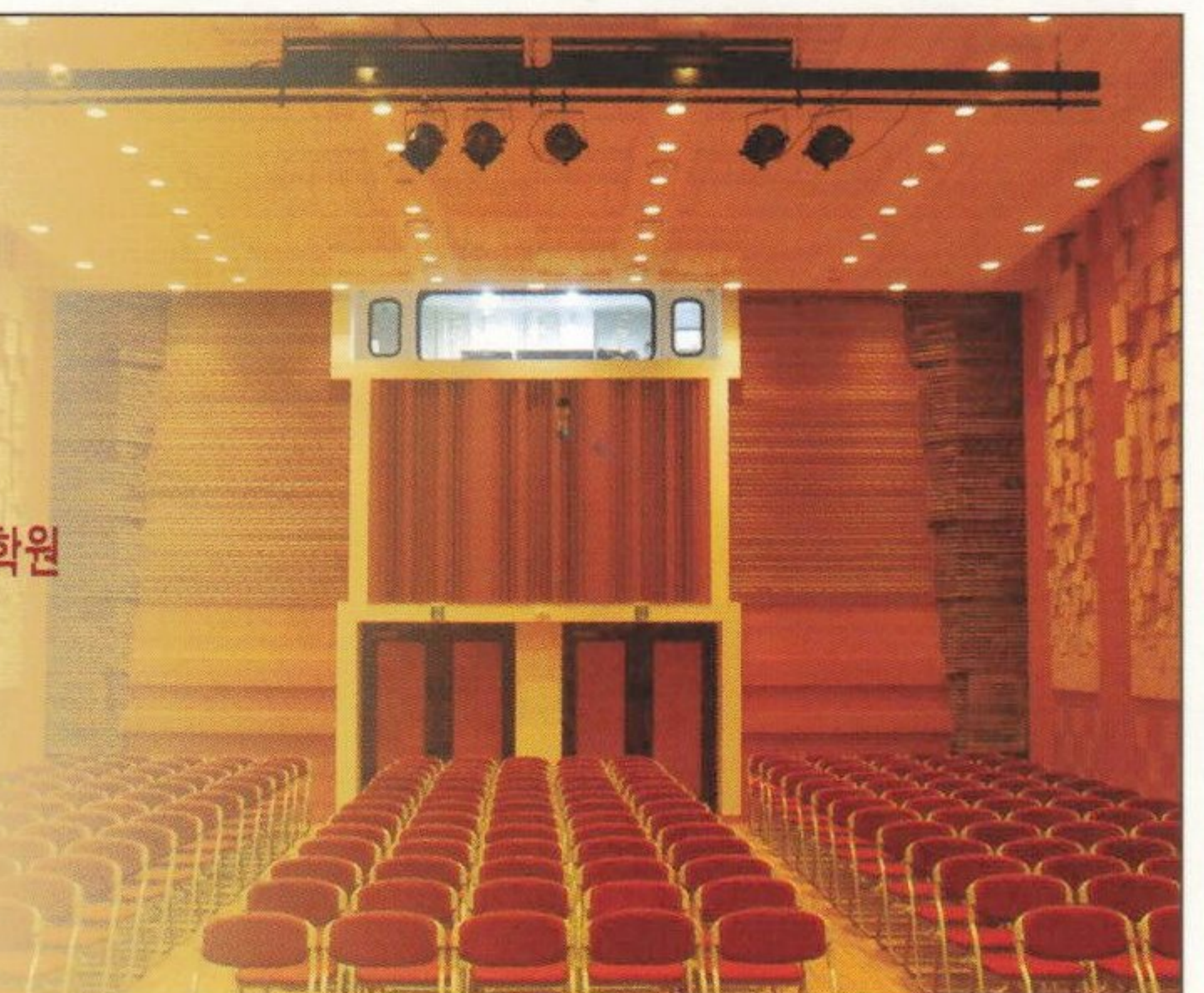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녹음홀 · 연주홀

GloVil Art Hall

대관 · 녹음 음반제작
음악영재대안학교 **살롬국제음악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장
목사 · 음악목사 · 교회음악지도사 교육기관 **미네소타찬양신학대학원**
말씀 · 찬양 · 시편의 교회 **살롬채플**

가을학기 접수마감 **8월 2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T.051-505-5995 Fax.051-505-593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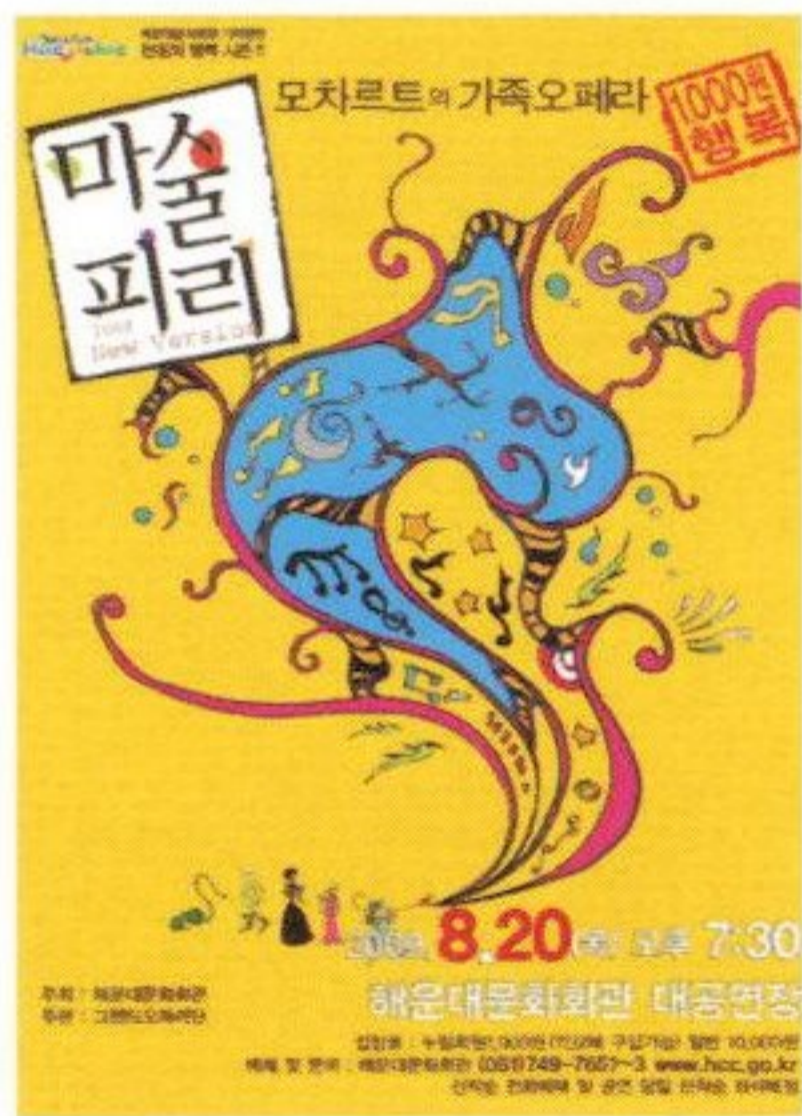


재연이 함께 출연, 고음악의 대표적인 악기인 리코더와 첼발로 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20,000원(10인 이상 단체 및 청소년 20% 할인)
- 문의 리코디아(02-2692-7945)

모차르트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21일-22일
금-토요일 오후 4:00,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동화적 상상력과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진 환상과 마법의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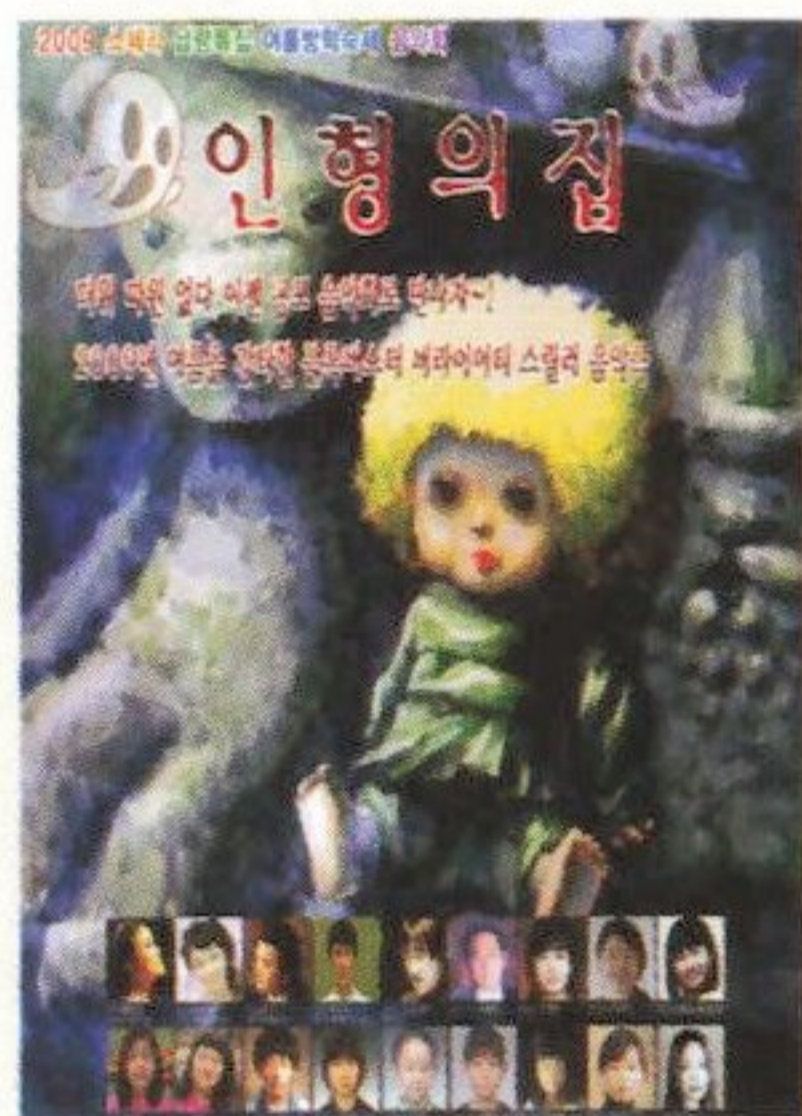
타미노 왕자가 파미나 공주를 찾아 떠나는 환상적인 모험이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으로 펼쳐진다.

- 연출/안지환 · 협력연출/안주은
- 드라마투르기/오계영

- 관람료 VIP 40,000원 · R석 30,000원
A석 20,000원(단, 20일 공연은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3)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코리아쇼페라단 납량특집 여름방학숙제 음악회 인형의 집

8월 20일-25일 목-화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6:0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퓨전오페라 무대를 선보여왔던 코리아쇼페라단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납량특집 음악회 '인형의 집'.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무서운 이야기와 함께 교과서에 수록된 연주곡으로 청소년들이 클래식을 보다 쉽고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색무대이다.

- 출연/배수진, 윤장미, 조현진, 권예리, 권예나, 윤석, 박건태, 김도형, 박재현 외
- 피아노/황다운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코리아쇼페라단(703-898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합창으로 보는 교과서

8월 21일 금요일 오후 5:00
울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휘 전상철

해설 김종석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곡을 위주로 기악과 성악, 합창이 어우러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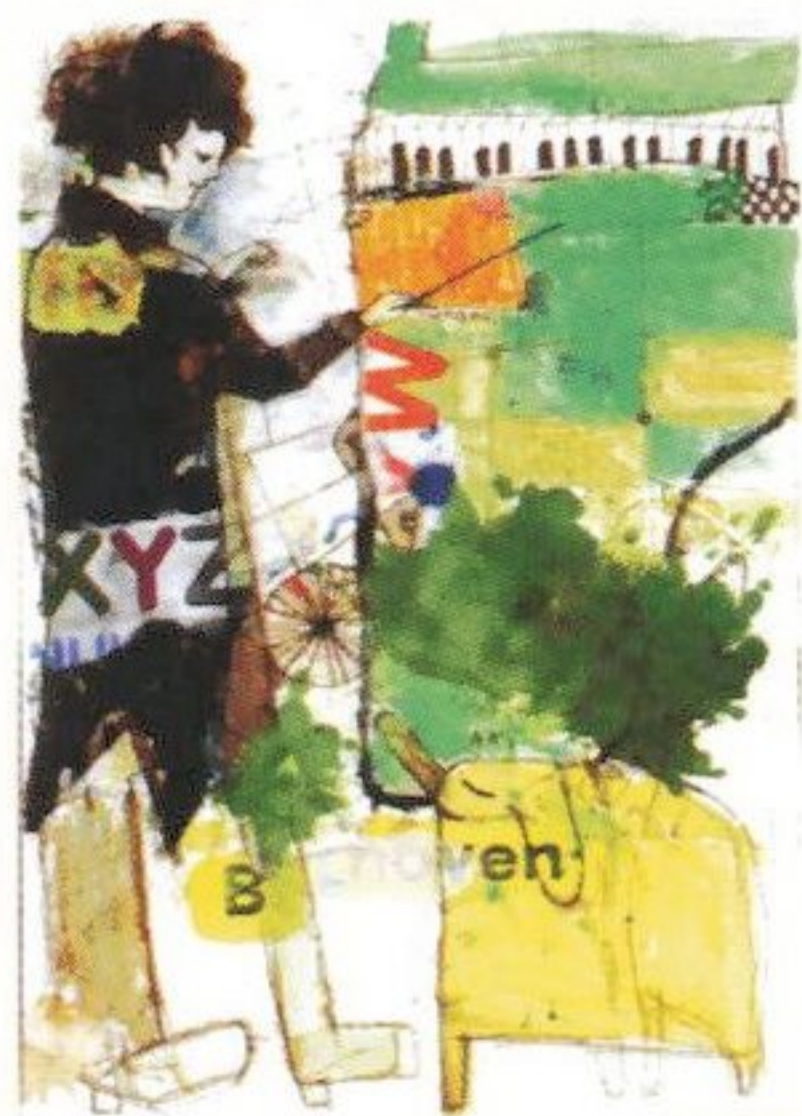
남성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있는 김종석의 재미나는 해설로,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해설음악회로 마련된다.

- 지휘/전상철(수석 지휘자)
- 반주/이영욱
- 안무지도/노금선 · 합창지도/김양자
- 특별출연/테너 조운환, 소프라노 전귀만,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4중주
- 해설/김종석(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관람료 무료
-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2009 예술기획과 함께하는 뮤페라 내친구 베토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뮤지컬과 오페라가 만난 새로운 형식의 뮤페라 '내친구 베토벤' 부산초연무대.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어린시절을 배경으로, 베토벤의 명곡을 노래와 타악, 연주, 합창 등으로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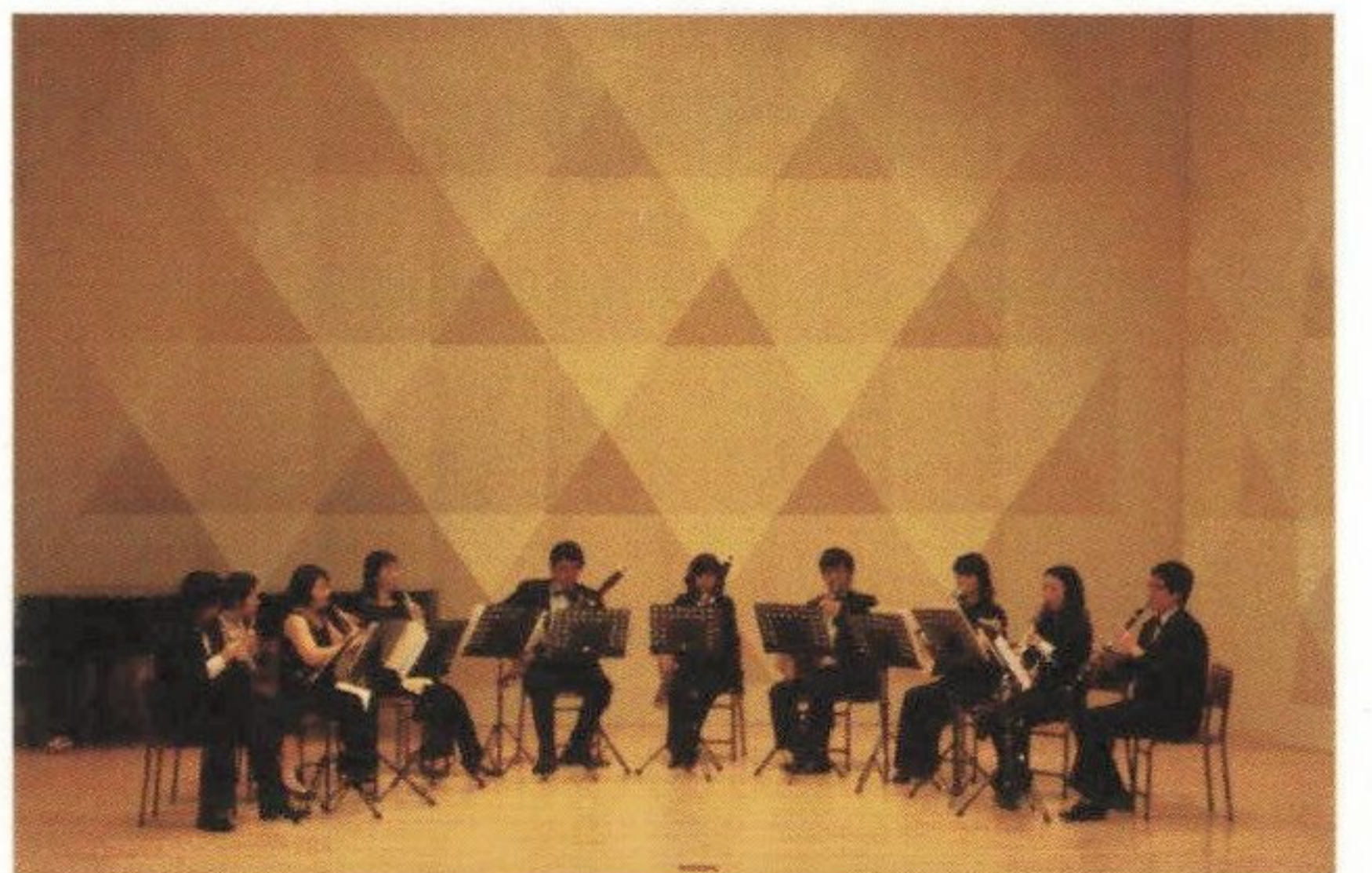
- 총기획/이형흔(예술기획 대표)
- 연출, 각색/김성경(오페라제작소 밤비니 대표)
- 작, 편곡/진소영(부산대,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 지휘/박부국(부산여자대학 외래교수)
- 연주/스트로코타악앙상블

· 출연/조정우, 윤현숙, 오세민, 황동근, 최자빈, 윤희선, 김유나, 황예진, 오유진, 이연수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부산우드윈드앙상블 특별연주회 내 악기를 소개합니다 시즌 II -오보에, 첼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2005년 클라리네티스트 원준연, 플루티스트 최낙주, 오보이스트 박지연, 호른리스트 최영희, 바수니스트 여대현으로 구성된 부산우드윈드앙상블 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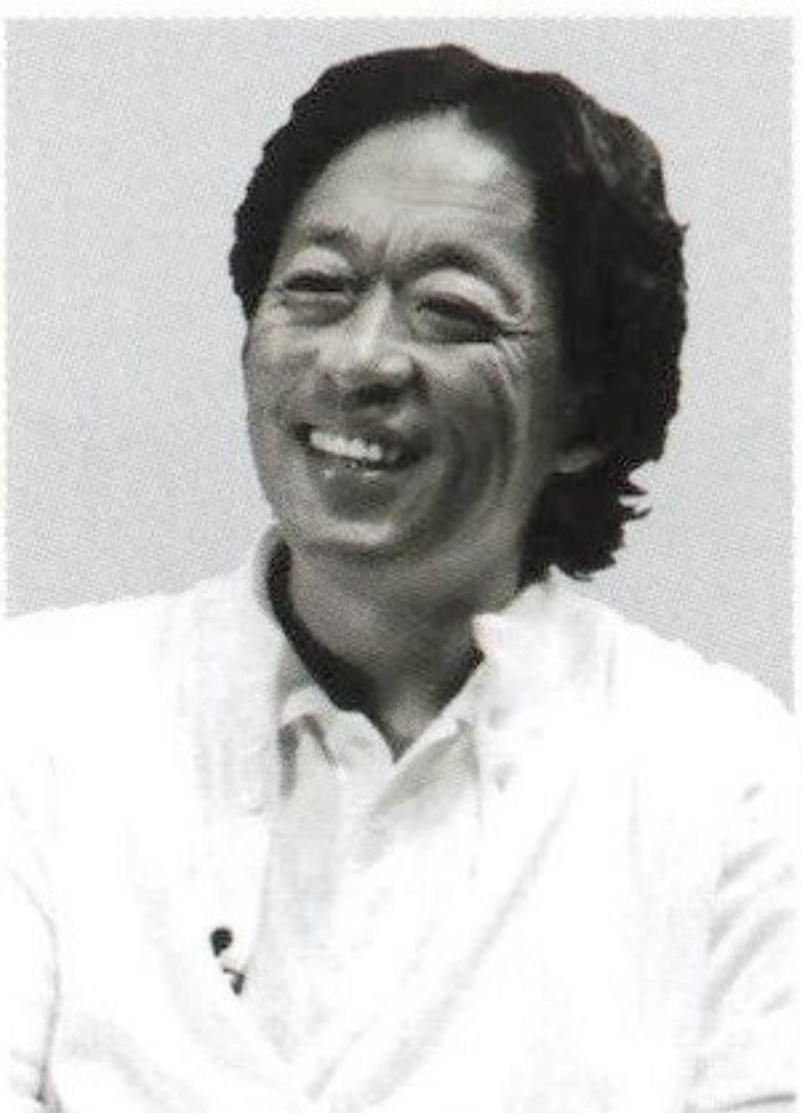
감미로운 목관5중주 선율과 함께 오보에, 첼로를 상세한 해설로 만날 수 있다.

- 협연/김화실(오보에), 김진솔(첼로)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원준연(019-660-3919)

7인의 음악인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오랜만에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서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피아니스트 김선욱,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이유라, 첼리스트 송영훈, 양성원, 비올리스트 최은식 등 우리나라 최고 연주자 6명이 함께하는 실내악 드림팀 '7인의 음악인들' 부산공연.

프로그램

- 슈베르트/현악 4중주 제 12번 다단조 드볼작/피아노 듀오
- 쇼스타코비치/피아노 3중주 제 2번 마단조 작품 67
- 슈만/피아노 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 44
- 음악감독/정명훈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 관람료 VIP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91년 창단된 이후 부산의 대표적인 플루트앙상블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해설음악회로 꾸며진다.

- 해설/이하룡(한국플루트협회 회장)
- 출연/박찬엽,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김성은, 김인호, 정병태, 강미경, 박에니
- 특별출연/이주현(피아노), 정명호(콘트라베이스)
- 협연/장정림(부산예고 3년)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장극태(011-582-5189)

박성희와 함께하는 교과서 속의 우리음악 여행

8월 23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의 대표 소리꾼 박성희와 박성희판소리연구소 회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한 '교과서 속의 우리음악 여행'.

교과서 속에 나오는 민요, 시조, 판소리 등 전통 3대 성악장르와 창작동요, 전래동요 등 우리소리를 감상하고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해설음악회이다.

- 해설 및 소리/박성희 · 교수/신문범

- 출연/방지혜, 최백송, 이우경, 김유영, 방하신(박성희판소리연구소 회원)
- 객원출연/김나령(시조), 박남주(민요), 박효지(민요)
- 특별출연/김민지, 김도연, 권나영, 장하영, 박철희, 박경량, 박민용(운송초등학교 5년)
- 우정출연/(사)부산새울타악진흥회
- 연주/공유(김연은, 김성경, 김은경, 김나영)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4인가족 이상 10% 할인)
- 문 의 박성희판소리연구소(011-878-6370)

GEM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FunFun한 음악회

8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트 연주자와 플루트를 사랑하는 아마추어연주자들로 결성된 GEM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청소년 해설음악회를 열어준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김선영(010-5037-6903)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여름방학특집 청소년음악회 -앙상블 디 마레 & 금관5중주-

8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 '앙상블 디 마레'와 금관5중주가 마련하는 특별연주회.

- 프로그램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중 제 1, 3, 5곡



앙상블 디 마레 금관5중주

- 마이클 맥린/ '여섯 무곡' 중 '세레나타' '차르다시' 영화음악 모음곡/문리버, 오버 더 레인보우 등 수곡
- 앙상블 디 마레/이은옥, 권남희, 김영주, 민정화, 조양희, 강선덕, 최은정(바이올린), 홍영선, 김상철, 신지현(비올라), 김근아, 서송은(첼로), 박정숙(더블베이스)
- 금관5중주/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안명기(트럼펫), 정선헌(트롬본), 막심 멜니코프(호른), 송인봉(튜바), 조용길(세트드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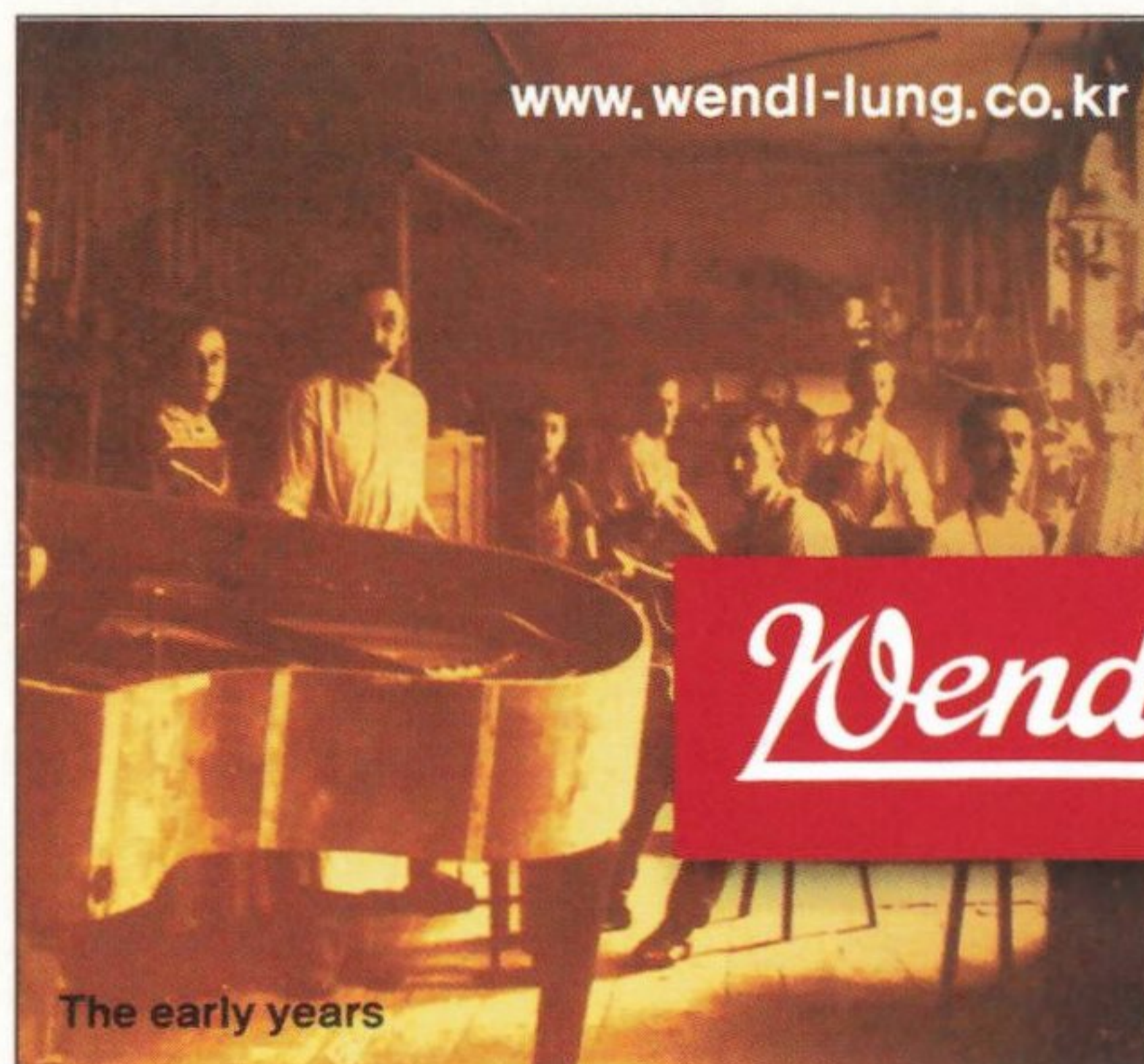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5)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제 20회 행복음악회

8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경희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문영미가 특별출연하는 글로벌아트홀 행복음악회.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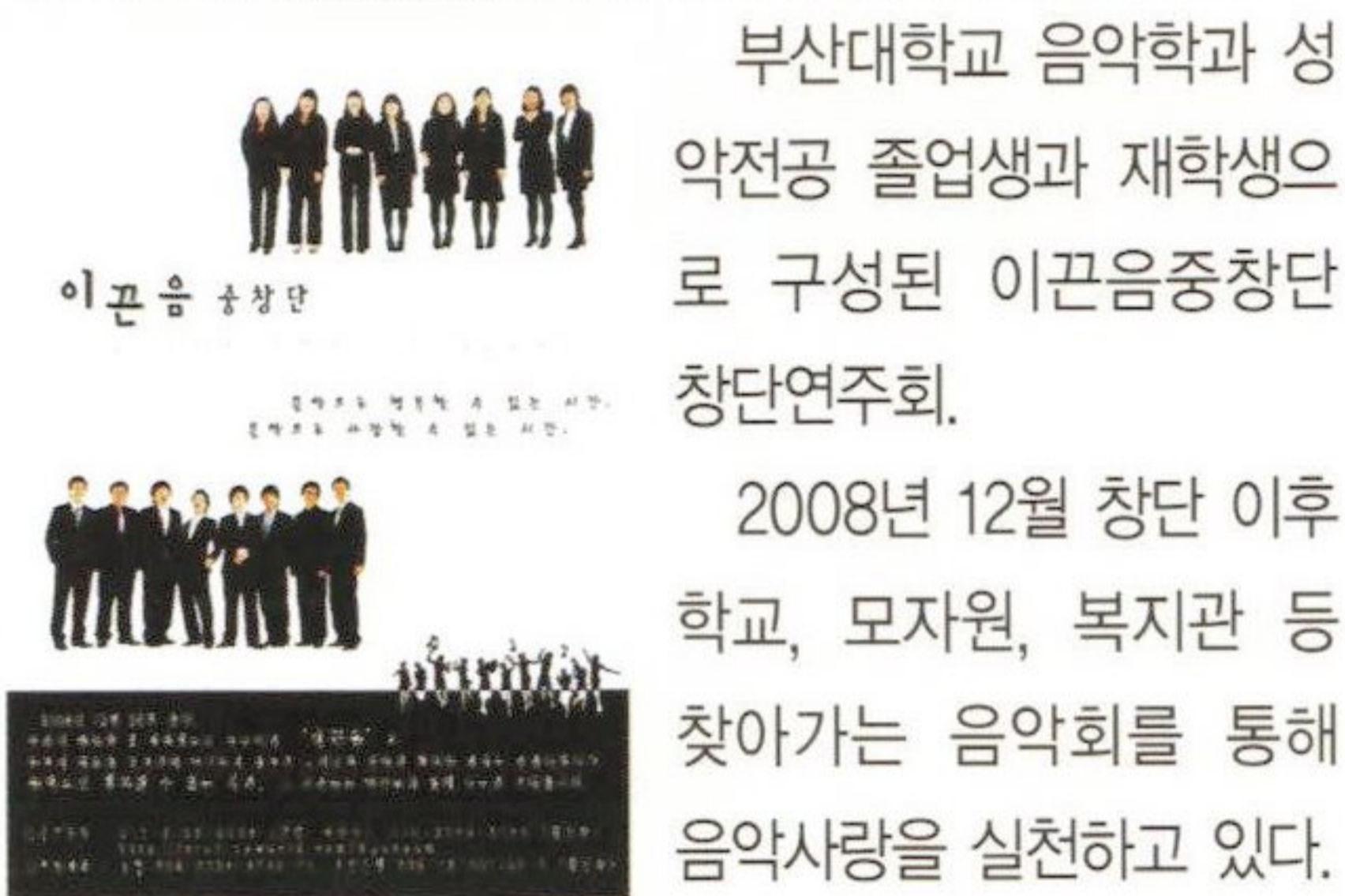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관람료 자율 이웃돕기 성금
- 문 의 글로비아아트홀(505-5995)

이끈음중창단 창단연주회

8월 3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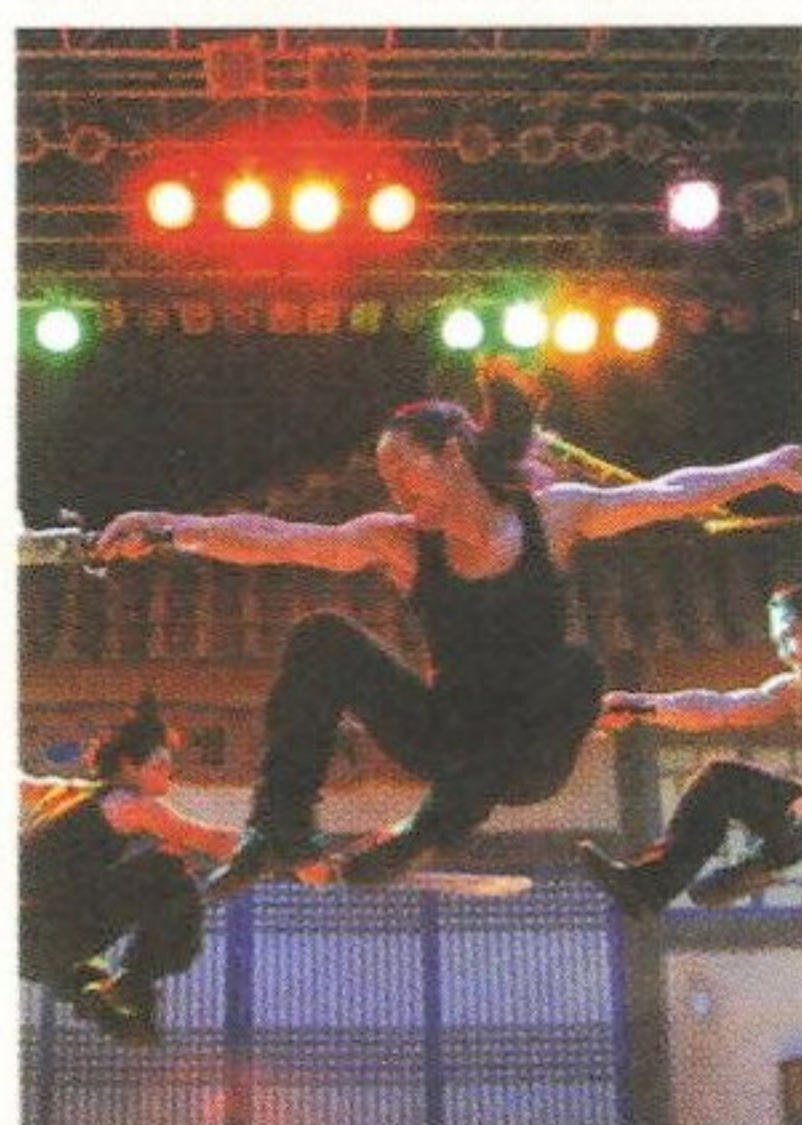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이끈음중창단 창단연주회.
2008년 12월 창단 이후 학교, 모자원, 복지관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음악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최진아(010-5129-0538)

연극

2009 점프 부산

1월 1일(금)-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언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주)아트포(744-4885)

연극 그남자 그여자

3월 6일(금)-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운명적 만남에서 핑크빛 사랑과 쓰라린 이별, 그리고 아련한 추억까지 달콤쌉싸름한 사랑의 과거와 현

재, 미래를 그린 연극 '그남자 그여자'.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 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뮤지컬 슈사인보이

7월 4일(토)-8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얼떨결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구두닥이 주인공이 대그룹 총수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지는 동화같은 이야기 '슈사인보이'.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여성극시리즈-연극 COLOR를 입다 II 과부들의 축제

7월 22일(수)-8월 2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남편과 사별한 공통점을 지닌 세 친구 앞에 나타난 한 남자를 두고 펼쳐지는 우정과 삶에 관한 블랙 코미디 '과부들의 축제'.

- 연출/호민
- 출연/손동일, 황자미, 김희지, 길수경
-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7월 29일(수)-9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사랑과혁명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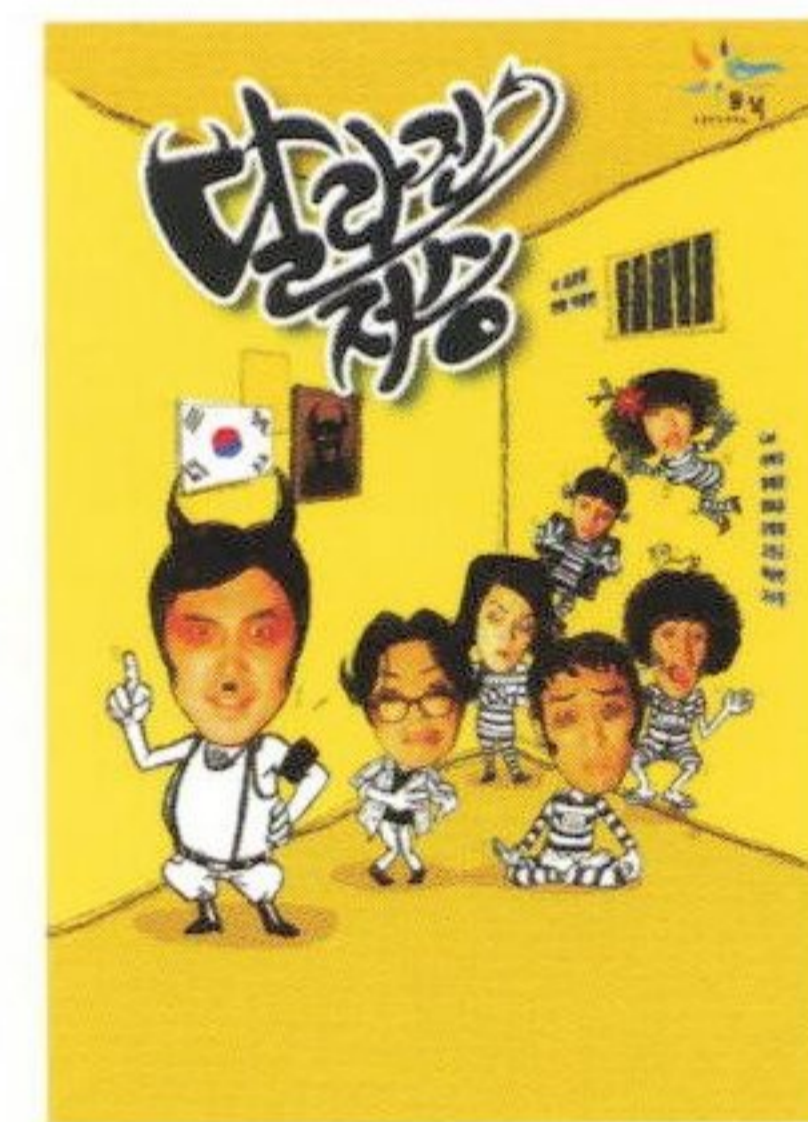
만화에서나 나올만한 의성어, 의태어로 상황을 표현하고 아카펠라와 탭댄스만으로 음악이 완성되는 독특한 발상의 창작뮤지컬 '두근두근'.



별볼일 없는 한 남자의 사랑찾기 프로젝트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폭소 속에 펼쳐진다.
· 작/정세혁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달라진 저승

7월 30일(목)-8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저승에 막 도착한 신입 저승인을 위한 환영공연 중에 일어나는 갖가지 헤프닝을 통해 현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한 코믹풍자극 '달라진 저승'.
· 작/김광림
· 연출/박용헌

- 출연/이혁우, 양효윤, 강원재, 정애경, 백승헌, 고수정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개그 습격사건

8월 1일 토요일 오후 4:30, 7:30 KBS부산홀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 문 의 와이믹스엔터테인먼트(757-9876)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8월 6일(목)-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8/15 일 오후 3:00, 6: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인위적인 무대장치를 거부하고 모든 배경을 배우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형식의 아카펠라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 작/최은이 · 연출/구지선
- 출연/김정연, 이호경, 마두영, 이지해, 정선아 외

Program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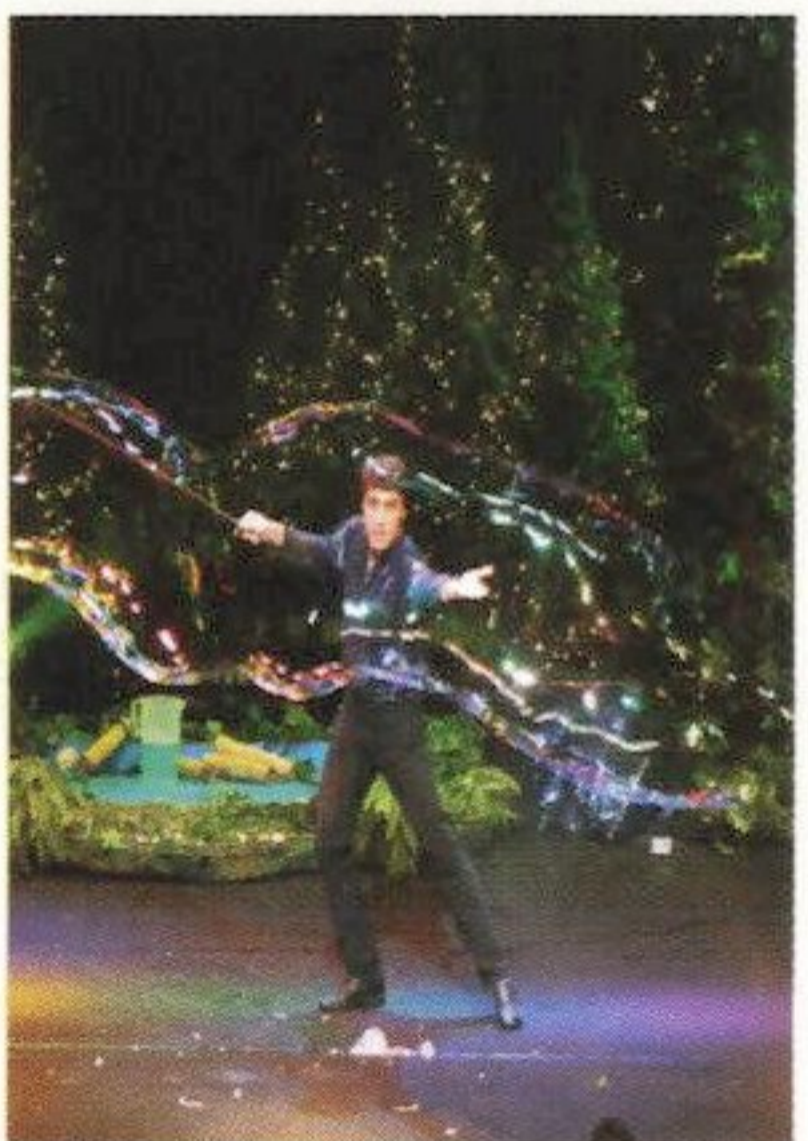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 관람료 균일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팬 양의 화이트 버블쇼

8월 8일(토)-16일(일) 화-수요일 오전 11:00, 오후 5:00, 목-금요일 오후 3:00,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8: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세계 최고의 버블 아티스트 팬 양의 화이트 버블쇼. 팬 양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실제 이야기가 한편의 뮤지컬처럼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버블쇼로 펼쳐진다.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8월 8일(토)-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아내의 재산을 노린 남편에 맞서 이혼 계획을 세우는 아내, 꼬여가는 사건과 마침내 밝혀지는 진실, 그리고 상상치 못한 반전이 이어지는 코믹 스릴러극 극단 에저또의 '뛰는 놈 위의 나는 놈'.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공포연극 오래된 아이

8월 14일(금)-3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마을축제 전날 사라진 여자아이 '인우' 실종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나 '인우'를 자처하는 청년 '진'이 마을을 찾아오면서 밝혀지는 마을 주민들의 비밀과 사건의 전말을 그린 공포연극 '오래된 아이'.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가족뮤지컬 공주님의 달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15일 토요일 오후 2:00, 4:00, 1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을숙도문화회관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29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30일 일요일 오후 1:00, 3:00 해운대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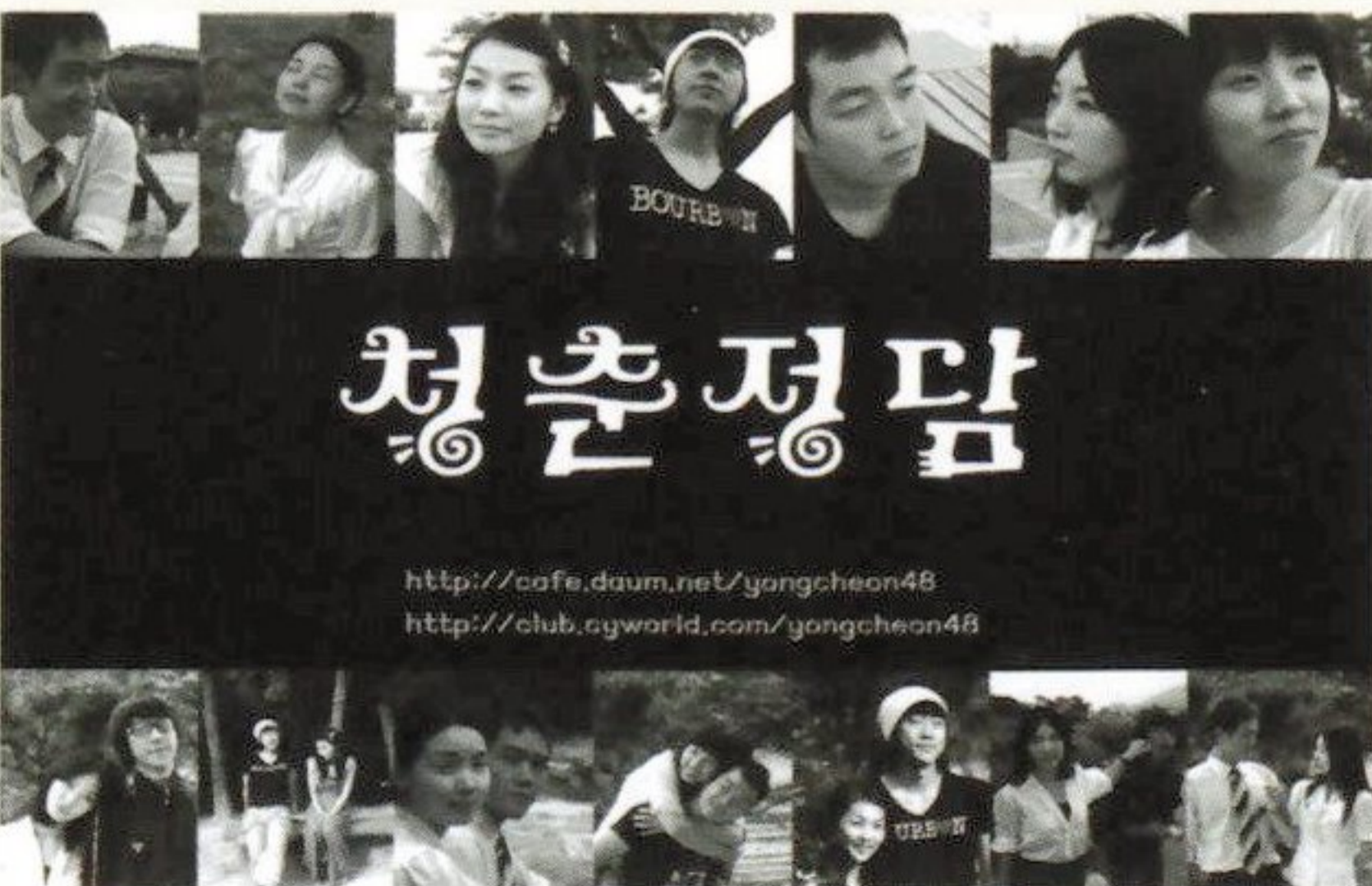


하늘의 달을 따달라는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동화를 소재로, 동화속 주인공들과 함께하는 상상여행 놀이체험극.

- 작, 연출/윤희균
- 출연/박경아, 김혜영, 김봉신, 전태경
- 관람료 균일 12,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청춘정담

8월 14일(금)-30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용천지랄소극장



청춘정담

http://cafe.daum.net/yongcheon48
http://club.cyworld.com/yongcheon48

각기 다른 4쌍의 커플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청춘과 사랑의 의미를 담담하게 그려낸 연극 '청춘정담'.

- 작/김효진 · 연출/김지용
- 출연/엄준필, 서정민, 장민, 김정원, 정재원, 박선희, 안수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의 용천지랄소극장(625-0767)

개그 페스티벌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KBS부산홀

- 관람료 VIP 77,000원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 문의 KJ기획(507-8225)

가족뮤지컬 피터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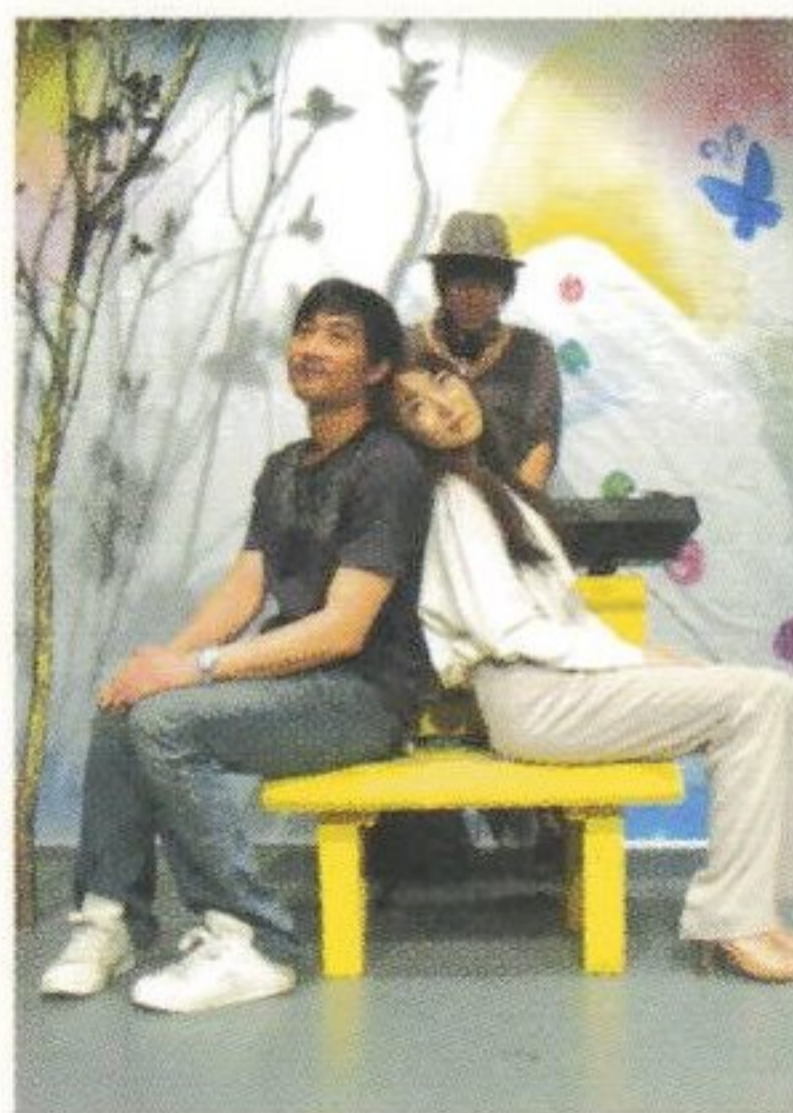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00, 3:00, 5:00, 16일 일요일 오후 1:00, 3: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악당 후크선장에 맞서는 피터팬의 모험이 특수조명과 화려한 무대 속에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피터팬'.

- 각색, 연출/이지영
-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 문의 플러스기획(080-271-1212)

창작뮤지컬 Love is... 세 번째 이야기 결혼한 타인, 결혼안한 연인

8월 18일(화)-9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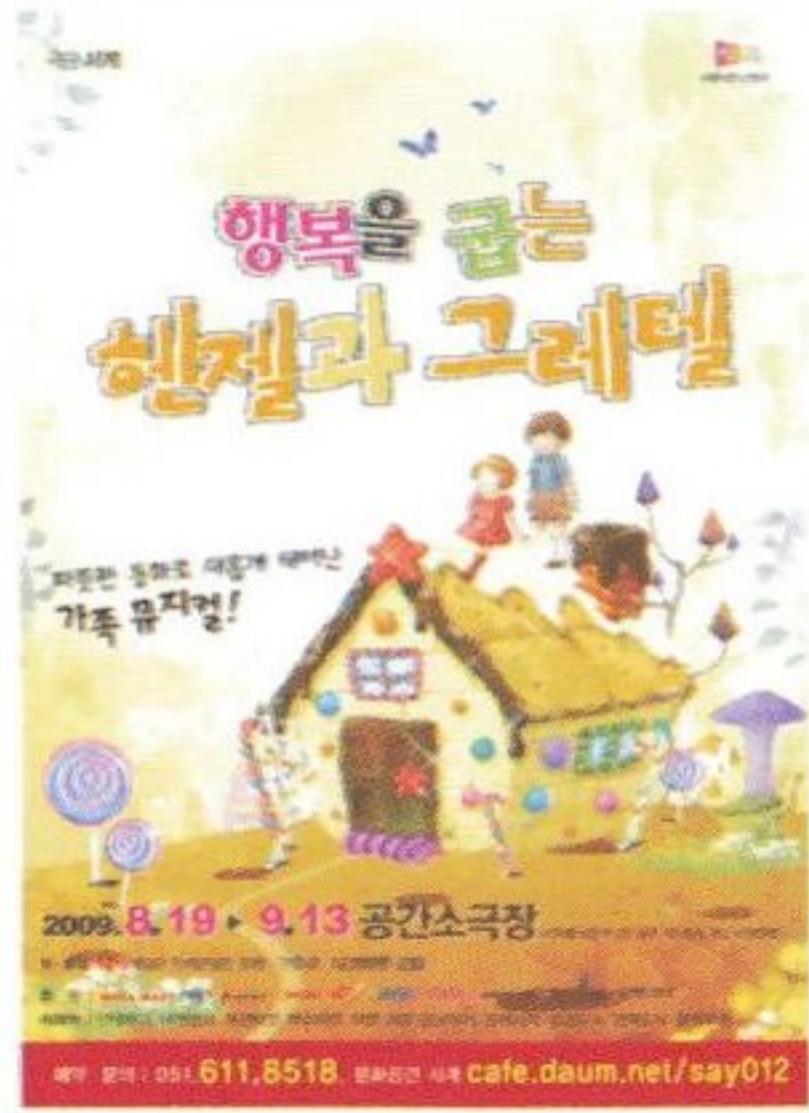
첫 눈에 반해 결혼한 커플과 우정인지 사랑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서로를 애타게 바라만 보는 연인의 서로 다른 사랑의 모습을 그린 로맨틱 코믹 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의 공간소극장(611-8518)

행복을 굶는 헨젤과 그레텔

8월 19일(수)-9월 13일(일)

주말 오후 2:00(평일은 단체관람) 공간소극장



그림형제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새롭게 각색, 가족의 사랑을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 가족뮤지컬 '행복을 굶는 헨젤과 그레텔'.

· 작/전상배
· 연출/김만중

- 관람료 균일 12,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년버벌 뮤직 퍼포먼스 핑퐁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재활용품의 변신으로 탄생된 새로운 형식의 년버벌 뮤직 퍼포먼스로 세계의 악기, 우리 국악기, 직접 만든 리사이클 창작악기가 신명나게 어우러진다.

- 관람료 R석 35,000원 · S석 24,000원
A석 20,000원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뮤지컬 락시(樂時)터-즐거운 시절

8월 21일(금)-9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낯서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린 뮤지컬 '락시터'.

· 작, 연출/위성신 · 작사, 작곡/강민호

- 출연/강민호, 오종훈, 이봉련, 오의식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2009 전국 에저또소극장 페스티벌

8월 21일(금)-9월 27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에저또소극장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 광주, 창원 지역 소극장이 함께 하는 2009 썸머 소극장 페스티벌.

■ 8/21일(금)-23일(일)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학문외과'
치질 치료과정에서 일어나는 배꼽잡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광주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학문외과'.

· 작/이기인 · 연출/이행원
· 출연/정경아, 고난영, 양정아, 김소영, 박선영 외

■ 8/25일(수)-30일(일) 극단 미소 '마술가게'



물건을 훔치려 들어온 두 도둑을 통해 바라본 세태풍자 코믹극 창원극단 미소 '마술가게'.

· 작/이상범 · 연출/천영훈
· 출연/장종도, 전수영, 주요한, 박계란

■ 9/1일(월)-27일(일)

극단 에저또 '뛰는 놈 위의 나는 놈'
반전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오는 코믹 스릴러극 극단 에저또 '뛰는 놈 위의 나는 놈'.

· 작/로베르 또마 · 연출/최재민
· 출연/이지훈, 김상호, 김지연, 김지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 문 의 극단 에저또(852-9161)

2009 뮤지컬 헤드윅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00, 6:00, 9:00
23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부산롯데호텔 아트홀

동독출신 트랜스젠더 락 가수의 인생여정을 담은 록뮤지컬로, 2005년 한국에서 초연된 이후 최고의

매니아층을 형성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헤드윅' 2009년 무대.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 문 의 부산 MBC(760-1166)

개그콘서트-개그선물세트

8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 부산홀

- 관람료 VIP석 66,000원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문 의 디비커뮤니케이션(818-3114)

영화

우디 앨런 특별전

7월 26일(일)-8월 23일(일)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확인)

찰리 채플린 이후 최고의 코미디 작가로 사랑받아 온 우디 앨런 특별전, 소심한 지식인의 성적 불안, 무력감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대표작 18편 상영.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cinema.piff.org)

행사

2009 상상놀이터

7월 10일(금)-8월 30일(일) 경성대학교 미술관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제 14회 부산바다축제

8월 1일(토)-9일(일) 부산지역 6개 해수욕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와 해양스포츠,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부산바다축제'.

- 문 의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888-3392)

2009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월 6일(수)~9일(일) KBS부산홀

최현우, 줄리어스 플라크, 마크 오베론 등 국내외 유명 마술사들의 공연과 마술경기대회 등이 펼쳐진다.

■ 코메디 마술쇼: 6일(목)~9일(일) 오후 1:00

■ 매직갈라쇼: 6일(목)~8일(토) 오후 8:00
9일(일) 오후 6:30

■ 마술경기대회: 7일(금)~9일(일) 오후 2:30

※ 개막식: 5일 해운대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

■ 문의 부산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
(626-7002, www.hibimf.org)

동래야외극페스티벌과 함께하는 2009 동래바캉스예술제

8월 7일(금)~20일(목)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야외무대

■ 7일(금)~8일(토) 극단 맥 '내 마음의 풍경'

196,70년대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있는 빛바랜 사진 속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극단 맥의 '내 마음의 풍경'.

■ 9일(일)~10일(월) 극단 맥 '밴드래기 이야기'

장독뚜껑인 밴드래기를 아기로 아는 때문지 않는 흥순의 성장기를 동화같은 감성으로 그려낸 작품.

■ 11일(화)~12일(수) 극단 맥 '비나리'

우리의 전통춤과 소리, 장단을 통해 신명나는 전통 연희극을 선보이는 극단 맥 '비나리'.

■ 13일(목)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골든 브라스' 공연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골든 브라스'의 경쾌한 무대.

프로그램

비제/ '카르멘' 중 '행진곡'

앤더슨/나팔수의 휴일

멕시코 음악 메들리 등 수곡

· 연주/황성렬, 윤상명(트럼펫), 전해상(트롬본), 이민정(호른), 조진혁(튜바), 예병현(세트드럼)

■ 14일(금) 달콘밴드 '한여름밤의 연애'

· 연주/김상호(기타), 이재영(베이스), 김홍민(드럼), 키보드(박영태)

· 찬조출연/김규배(통기타 가수)

■ 15일(토) 국악연주단 '민들레' 공연



2004년 2월 창단 후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에 서온 국악연주단 '민들레' 공연.

■ 16일(일) 장인숙무용단 공연

살풀이, 장구춤 등 멋과 흥이 넘치는 우리 전통춤으로 마련되는 장인숙무용단 공연.

■ 17일(월)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와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 판굿 등이 펼쳐진다.

■ 18일(화) 김희숙 경기민요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제 19호 선소리 산타령 전수자로 활동하는 김희숙 경기민요.

■ 19일(수) 부산시립극단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여'



장승설화를 바탕으로, 권력의 힘에 의해 짓밟히는 달래와 껍시의 비극적 사랑을 통해 우리 민초들의 잡초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는 마당극.

· 원작/김정옥 · 재구성/이돈희

· 출연/박찬영, 염지선, 유성주, 백상희, 김상균 외

■ 20일(목) 부산콘서트콰이어 공연

1990년 창단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부산합창제, MBC목요음악회, 광복 60주년 특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부산콘서트콰이어 무대.

■ 관람료 균일 2,000원

(종합관람권 10,000원, 17일, 19일 공연은 무료)

■ 문의 동래문화회관(550-4481), 극단 맥(625-2117)

전시

여름놀이展

7월 28일(화)~8월 9일(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갤러리

■ 문의 진영섭(010-3871-5930)

Views and Order(질서의 풍경)

7월 18일(토)~8월 16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관람시간/오전 11시~오후 7:00(월요일 휴관)

문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부산수채화협회

2009 내 마음의 바다풍경전

7월 21일(화)~9월 3일(목)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 문의 (553-4944~5)

맥화랑 기획전

10만원대 행복한 그림전

7월 25일(토)~8월 12일(목) 맥화랑

■ 문의 맥화랑(722-2201)

제 35회 부산미술대전

7월 25일(토)~8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뜻밖의 일상사

7월 25일(토)~10월 4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조현정 개인전

8월 3일(월)~8월 31일(월)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삼색부산, 부산의 지리적 풍경展

8월 4일(화)~8월 16일(일) 갤러리 영광

· 4일(화)~9일(일) 제 1부 해안의 지리적 풍경

· 11일(화)~16일(일) 제 2부 삶과 내륙의 지리적 풍경

■ 문의 갤러리 영광(816-9500~4)

행복을 노래하는 경찰 서부경찰서 **그린나래 합창단**



지난 7월 18일 부산시립합창단의 '이야기가 있는 팝 합창음악회'에 서부경찰서 조한성 서장을 비롯한 경찰가족 25명이 부산문화회관으로 총 출동(?)했다.

속삭이듯 감미롭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울려 퍼지는 합창무대를 남다르게 지켜본 이들은 이제 창단 100일을 넘긴 그린나래합창단 단원들. 지난 4월 29일 서부경찰서 직원들로 창단된 그린나래합창단은 많이 보고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합창단인 만큼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는 빠지지 않고 찾고 있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경찰합창단은 평소 음악애호가로 소문난 조한성 서장이 서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하면서 만들어졌다. 동부경찰서 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007년 1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은행나무 합창단을 창단한 바 있는 조한성 서장이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취임 후 또 다른 합창단을 창단하게 된 것.

평소 노래를 좋아하지만 기회가 없었던 직원들이 합창단 창단에 적극 동참해 4월 13일 합창단 예비모임에서 남성 12명, 여성 19명이 처음 모였고, 오디션을 거쳐 현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47명에 이른다. 지휘자, 반주자도 물론 서부경찰서 직원이다. '그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합창단명 '그린나래'는 단원들의 공모를 거쳐 결정되었다.

처음에는 수갑이나 경광봉, 가스총 대신 악보를 든 모습이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연습을 거듭하며 그린나래합창단 단원들은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많이 놀란다.

그린나래합창단은 4월 27일 행정발전위원회 월례회에서 동료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식' 무대를 가졌고 지난 6월 '임시수도 그때를 아십니까' 식전 무대에 서는 영광을 누렸다.

음악을 통해 경찰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참가한 수사 지능1팀 김도곤 경위(54)는 그린나래합창단 내에 최고령 단원이다. 김도곤 경위는 20대 의경들을 비롯한 젊은 합창단원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연습곡을 녹음해 계속 반복 연습하는 등 열의가 대단하다.

"그린나래를 통해 처음으로 합창단 경험을 해본 단원들이 많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한두번 공연을 하고나서 단원들이 많이 달라 졌어요".

지휘를 맡고 있는 정수도 경위는 테너에 응모했다가 성가대 경력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지휘자로 스카웃 되었다. 지휘가 낯설어 지금도 피아노 치는 딸아이 옆에서 지휘 연습을 하고 있다.

주 1회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이연기 씨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는 그린나래합창단은 현재 사랑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방랑자, 맨 처음 고백, 작별, 아빠의 청춘, 마이 웨이, 젊음 그대, 맘마미아, 도라지꽃 등 민요, 가요, 가곡 등 많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딱딱하고 삭막하다고 알려진 경찰서에 음악이 울려 퍼지니 직원들도 좋아합니다. 음악을 통해 친화, 단결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갑갑한 일상을 노래의 날개짓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린나래합창단. 2009년 송도바다축제 개막축하공연 준비로 어느때보다 행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글/백경옥)

헨델 메시아 초연 250주년 기념 연주회

George Frideric Handel(헨델, 1685~1759, 독일),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 구세주', HWV56

김 중 옥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음악방송제작단장



종교를 초월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메시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67년 전인 1742년 영국의 런던 초연에 참석한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메시아'에 나오는 No. 42-합창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에서 감격한 나머지 기립했다는 얘기는 잘 알려진 바 있지요. 오늘날에도 그부분에서는 전원이 기립하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지 2세는 주도면밀한 외교와 내정 부문을 발전시켰고 평화를 추구하고 검소하게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음악이었고, 오페라를 좋아했으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독일 작곡가 헨델의 경제적 후원자였답니다.

'메시아'는 1741년 8월 22일에 시작되어 24일만에 곡을 완성했는데요, 이러한 대작(전곡 연주시간-2시간40분가량)이 단 24일만에 작곡되었다는 사실은 경탄과 아울러 헨델이 얼마나 작곡에 올인 했었던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의와 좌절이 거듭된 끝에 창조된 그 드높은 세계, 일찍이 어떤 음악도 성취하지 못했던 영광의 구현, 그 웅장한 스케일과 구도, 곡 하나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환희의 눈물을 흘렸고, 다시금 열광하여 다음 곡을 작곡했다는 그 때의 정황은 음악을 가까이 해 보시면 가슴속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감격과 열광을 느끼지 않고서는 이 곡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1732~1809)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열린 헨델 추모음악회에 참석해 헨델의 '메시아'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눈시울을 적시면서 "헨델이야말로 우리들 중 참다운 거장"이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헨델을 존경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헨델의 작품 못지않는 위대한 곡을 쓰겠다고 작정하고 '천지창조(The Creation)'란 위대한 곡을 작곡하여 1798년 4월 초연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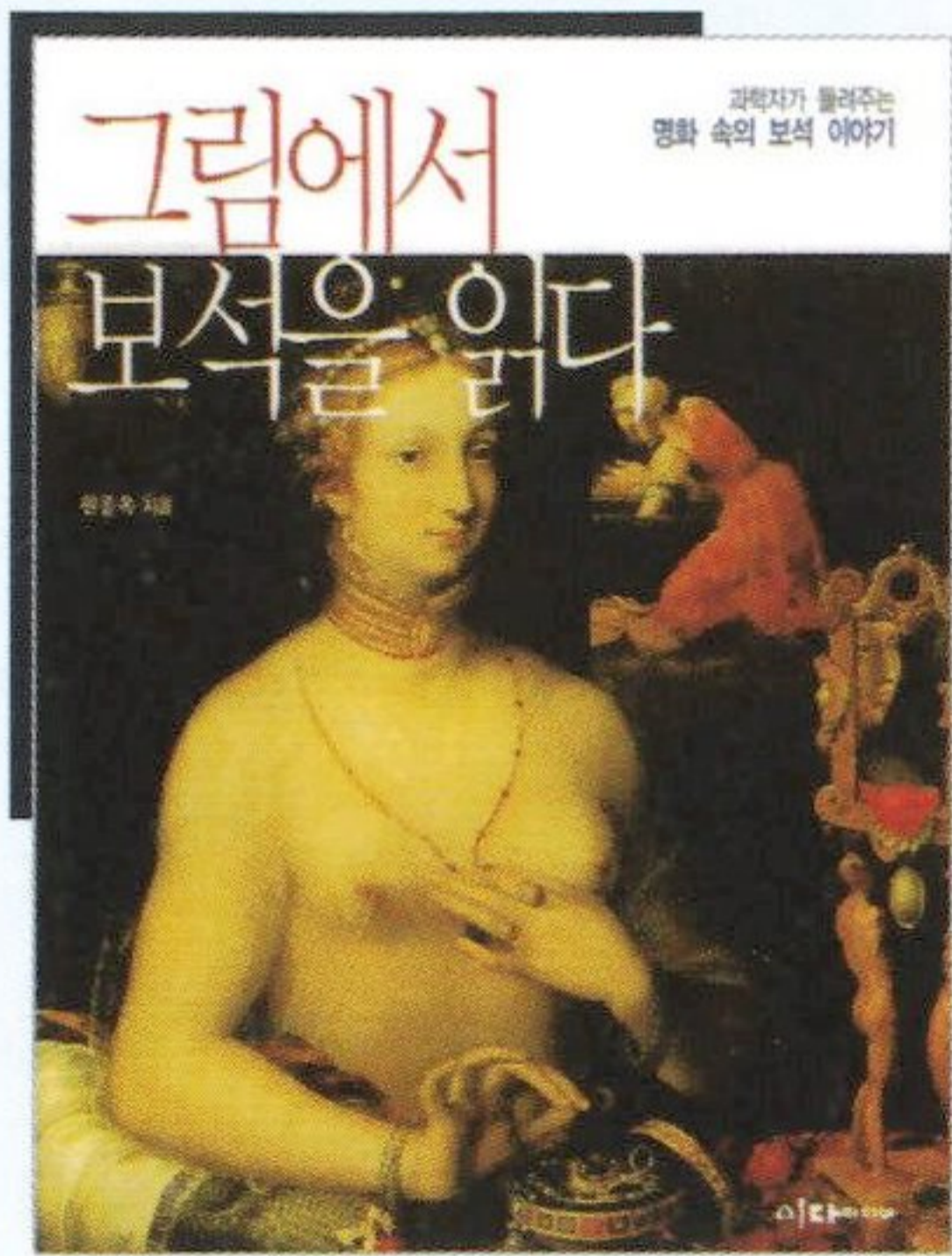
'메시아'는 교회를 위한 교회음악이라기 보다는 극장에서 연주하기 위해 작곡된 연주회용 작품으로 생각되며 자선단체의 부탁으

로 작곡되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기독교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전세계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가장 광범위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음악의 한계를 벗어나 인류 공동의 위대한 음악적 유산으로 승화되고 있는 음악으로 헨델이 57세가 되던 해(1742년) 4월 12일 아일랜드의 더블린(Dublin)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음반은 250년이 지난 1992년, 더블린의 포인트 극장(The Point Theatre)에서 녹화된 '초연 250주년 기념 연주회' 녹화 음반(Laser Disc/2장-3면)입니다.

이 음반은 네빌 마리너 경의 섬세한 연주력과 성 마틴 아카데미의 연주와 합창, 특히 안네 소피 폰 오터의 메조 소프라노가 돋보입니다. 제 1부-예언과 탄생, 제 2부-수난과 속죄, 제 3부-부활과 영생 등 전곡이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시간 37분동안 총 51곡이 연주됩니다.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서 광명과 영광, 그리고 열광을 되찾는 삶을 위한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음악으로, 그것은 헨델 자신이 혹독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곡이 작곡된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헨델을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한 베토벤이 병세가 악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의사가 봄이 오면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만일 나를 소생하게 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의 이름은 기적(Wonderful)일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메시아'의 제 12곡에 나오는 구절(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베토벤이 '메시아'를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있었던가를 짐작케 해 주는 대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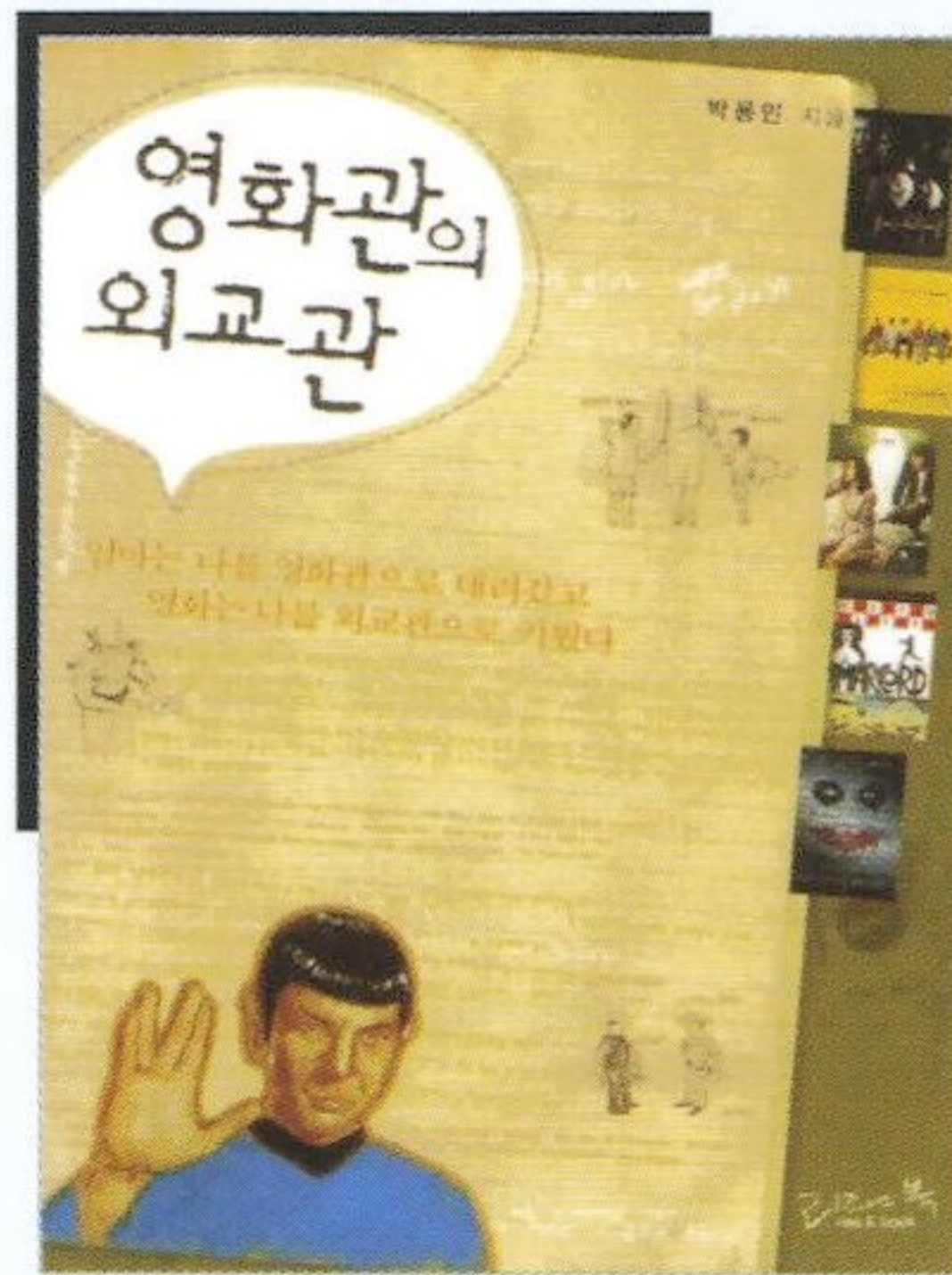
자! 그러면 '메시아'에 따라다니는 에피소드(episode), 잘 이해가 되셨다면 최고의 영상과 음질로 가득한 방에서 적당한 음량으로 눈과 귀로 감상해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석을 읽다

원종욱 지음
이다미디어 / 381p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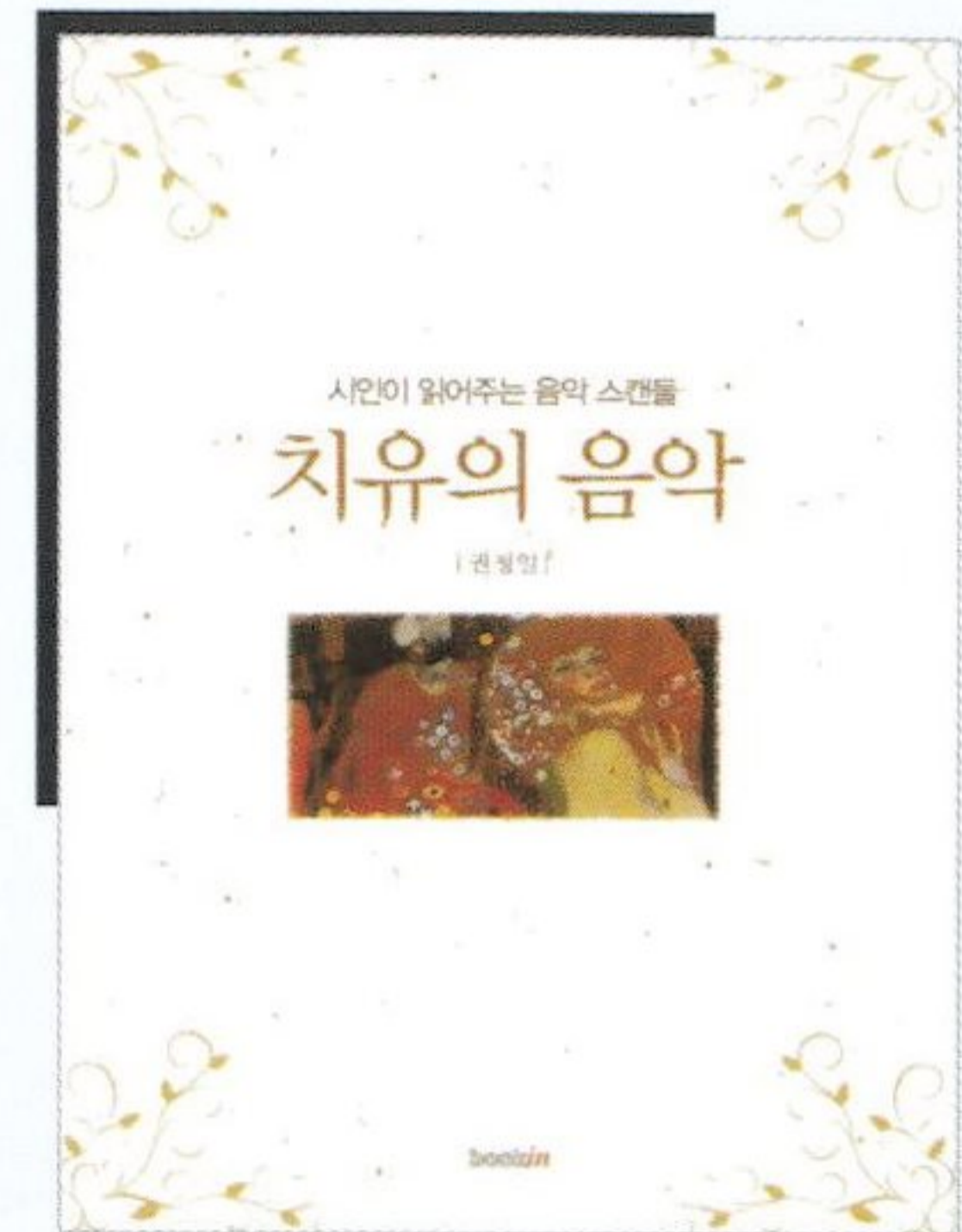
세상의 대부분의 여인들이 열광하는 보석의 실체는 돌덩어리이다. 다이아몬드는 흑연이나 숯처럼 탄소로 만들어졌고, 에메랄드는 모래와 성분이 비슷하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리지만,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합성 다이아몬드는 단 3주 만에 완성된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면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를 구분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보석을 어찌 단순히 돌덩어리라고 부를 수 있으랴. 과학 분야에서도 화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석을 탐구하는 과학자 원종욱 씨가 세계 명화 속의 보석 이야기를 들려준다. 안 베르메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진주 귀고리, 산치오 라파엘로의 〈유니콘을 안고 있는 여인〉-비 펜던트, 루벤스의 〈엘레나 푸르망, 아들과 함께 있는 루벤스〉-페리도트 브로치, 카라바조 〈막달레나〉-황금 허리띠와 장신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흰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제트 목걸이 등 명화 속에 담긴 보석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 예술의 경향을 알아보고, 그림 속 주인공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들여다본다. 사회 변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보석의 인기나 세공법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영화관의 외교관

박용민 지음
리즈앤북 / 439p / 15,800원

학창 시절부터 연극과 영화 관람, 글짓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기타 치며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겼고, 종내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취미 번잡증'이라는 핀잔을 받기도 한 젊은 외교관 박용민 씨가 영화에 대한 애정 어린 추억담을 풀어놓은 책. 그림과 사진, 음악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영화 내용과 관련한 온갖 정보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글 속에 녹아있다. 책 속의 삽화도 저자가 직접 그렸다. 이런 왕성한 의욕을 바탕으로 영화를 읽어내는 저자의 시선이 새로운 자극을 준다. 저자는 영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그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도 빼놓지 않는다. 영화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전해주면서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온갖 전문 용어를 총동원하여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하는 영화평론가들은 물론이고, 평론가가 무색할 만큼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마니아들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이 활동하는 곳이 영화판이다. 그러다 보니 영화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영화평에 대한 식견은 날로 높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직 외교관이 본 영화의 세계는 어떨까.



치유의 음악

권정일 지음
북인 / 212p / 10,000원

1999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마지막 주유소〉 〈수상한 비행법〉 등 두 권의 시집을 낸 권정일 시인이 펴낸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 듣는 20여 곡의 음악과 그 음악에 얽힌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음악에 둘러 싸여 있다. 거리의 상점들은 제품 홍보와 고객 유도를 위해, 커피전문점·찻집·음식점 등에서는 매장 분위기에 맞게 혹은 소화를 돕기 위한 음악을 들려준다. 라디오, 텔레비전의 각 프로그램은 특별한 효과를 위해 특별한 음악을 사용하고, 핸드폰에도 컬러링이 있다. 음악은 의식주 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인 것이다. 권정일 시인이 책에 불러들인 음악도 우리에게 낯익은 음악들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등 5개 파트로 나눠 각 파트 당 클래식, 팝송, 샹송, 러시아 로망스, 민요, 구음 샹폴이 등 4곡씩 모두 20개 음악을 선정하였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 음악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이 음악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라는 등등의 궁금증을 일으켰던 독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줄 수 있는 에세이집이다. 시인 특유의 감성과 이미지로 다시 듣는 음악.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0회 정기연주회

리 신차오 신임 수석지휘자와는 지난해 11월 제 444회 정기연주회 때가 첫 만남이었고, 이번 취임연주회는 나에게서는 두번째의 설렘으로 다가왔었다. 굳이 중앙 좌석으로 예매한 것도 그를 가까이서 만나보기 위함이었다. 역시 기대 이상의 무대였다. 특히 커튼콜로 나와서 들려줬던 '아리랑'은 너무 감동적이었다. "리 신차오, 아리랑을 그렇게 멋지게 연주해내다니요!!"

- 한 연 순(연제구 연산9동)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인터넷 안엔 없는 게 없다더니, 자살을 위한 정보공유 사이트란 게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사이트 대표 '안락사' 씨는 다양한 자살상품을 소개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 살려 달라고 난리를 치는 아이러니...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자살, 분명 흥밋거리로 전락해서도, 충동적인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자살이라는 심각한 소재가 블랙 코미디 장르속에 버무려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 이 은 숙(김해시 장유면)

7월 한낮의 유U; 콘서트

좋은 연주회가 되려면 좋은 감상태도를 함께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주회에서는 관객이 공연 중에 잡담을 하거나 핸드폰이 울리거나 또는 과자 등을 먹는 부시력거리는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심지어 공연을 마치기 전에 좌석을 이탈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오늘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연주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맥이 빠질까... 오늘같은 날에는 관객으로 인해 절대 좋은 공연이 될 수 없었으리라. 공연장에 함께 한 이상 그 연주회는 연주인들과 관객의 하모니에 의해 좋은 연주회도 되고 나쁜 연주회도 된다고 생각하며, 최소한의 공연감상 예절은 지켜 줬으면 한다.

- 이영일(중구 영주 1동)

부산시립합창단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음악회

지난달 POP합창 음악회 소식을 접하고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폈다. 라디오에서 만나던 임진모씨의 재미난 진행과 해설, 내 오랜 추억이 담긴 소중한 레파토리를 하나둘 펼치며 즐거운 토요일밤을 보냈다. 의미없이 반복되는 기계음들이 아닌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는 그런 음악들이 새삼 그리워졌던 하루... 부산시립합창단이 나에게 준 큰 선물이다.

- 이 미 옥(사하구 하단 1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 이야기

어른들도 몰랐던 악기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동화와 설명, 악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되어 있어 좋았고, 악기 연주를 더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악기와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네요.

- 이 미 정(금정구 남산동)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최고급 한우만을 고집합니다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풍 전문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 이야기 쇼케이스 대 성황

미취학 아동들에게 오케스트라 악기와 음악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기획 프로젝트 '악기가족 이야기' 쇼케이스 공연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2010년 1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될 '악기가족 이야기'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선곡과 동화 구연가의 해설과 진행으로 악기를 직접 만져보거나 연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10년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오전 10시30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쇼케이스는 공연신청 문의가 폭주해 당초 2회로 계획된 공연이 6회로 늘어나는 등 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10년 악기가족이야기 공연일정

일 자	제 목	비 고	장소/시간	
1월 22일(금)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현악기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오전 10:00	
1월 29일(금)				
2월 5일(금)	휘릭 휘릭, 피리 가족 이야기	목관악기		
2월 12일(금)				
2월 19일(금)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금관악기		
2월 26일(금)				
7월 23일(금)	핑가 핑가, 난타 가족 이야기	타악기, 하프, 피아노		
7월 24일(금)				
8월 24일(화)	악기가족 다 모여래	종합편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전 11:00
8월 25일(수)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1~5)



소극장에서 열린 악기가족이야기 쇼케이스 공연

9월 1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예매시스템 가동에 따른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 변경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가 9월 1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자체 예매시스템 가동으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로 변경, 운영된다.

기존 정기회원은 가입비에 따라 공연 관람 횟수를 차감해나가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공연을 관람한 후에는 재가입 하는 방식이었다. 새롭게 변경되는 정기회원 제도는 회원 가입비와는 별도로 매 공연마다 할인된 금액으로 공연 좌석을 직접 선택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기존 제도보다 티켓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예매시는 물론 공연당일 현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문화회관 제 3기 부산문화대학 개강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이 2007년부터 열어온 부산문화대학 제 3기 강좌가 9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8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9월 2일 부산국제연극제 김동규 추진위원장이 진행하는 '생활 속에서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를 시작으로 황의중(부산대학교 국악과 교수), 도용복(오지여행가), 채경혜(판화가), 문화숙(문화병원장), 최영철(시인), 고인범(연극인), 이동신(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등이 다양한 주제로 강의한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 2기 부산문화대학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8월 공연일정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8월 공연일정이 확정되었다.

8월에는 동래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동래바캉스예술제'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극단이 참가하고, 시청 로비콘서트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다.

■ 8월 일정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8.12(목)	14:00	장소/사상구도서관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8.13(목)	20:00	장소/동래문화회관 야외무대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시립극단 8.19(수)	20:00	장소/동래문화회관 야외무대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8.20(목)	14:00	장소/동구도서관 시청각실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시립교향악단 8.21(금)	19:30	장소/학생교육문화회관
시청로비콘서트 시립국악관현악단 8.26(수)	12:30	장소/시청로비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시립예술단 전화번호 변경 ※ 변경일시 : 2009. 6. 26(금)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10
사무실 607-3111
연습실 607-3116
약보실 607-3117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실 607-3120
사무실 607-3121
연습실 607-3126
약장실 607-3127
사물놀이실 607-3128

시립무용단

안무자실 607-3130
사무실 607-3131
연습실 607-3136
소품실 607-3137

시립합창단

지휘자실 607-3140
사무실 607-3141
연습실 607-3146

시립극단

연출자실 607-3150
사무실 607-3151
연습실 607-3156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실 607-3160
사무실 607-3161
연습실 607-3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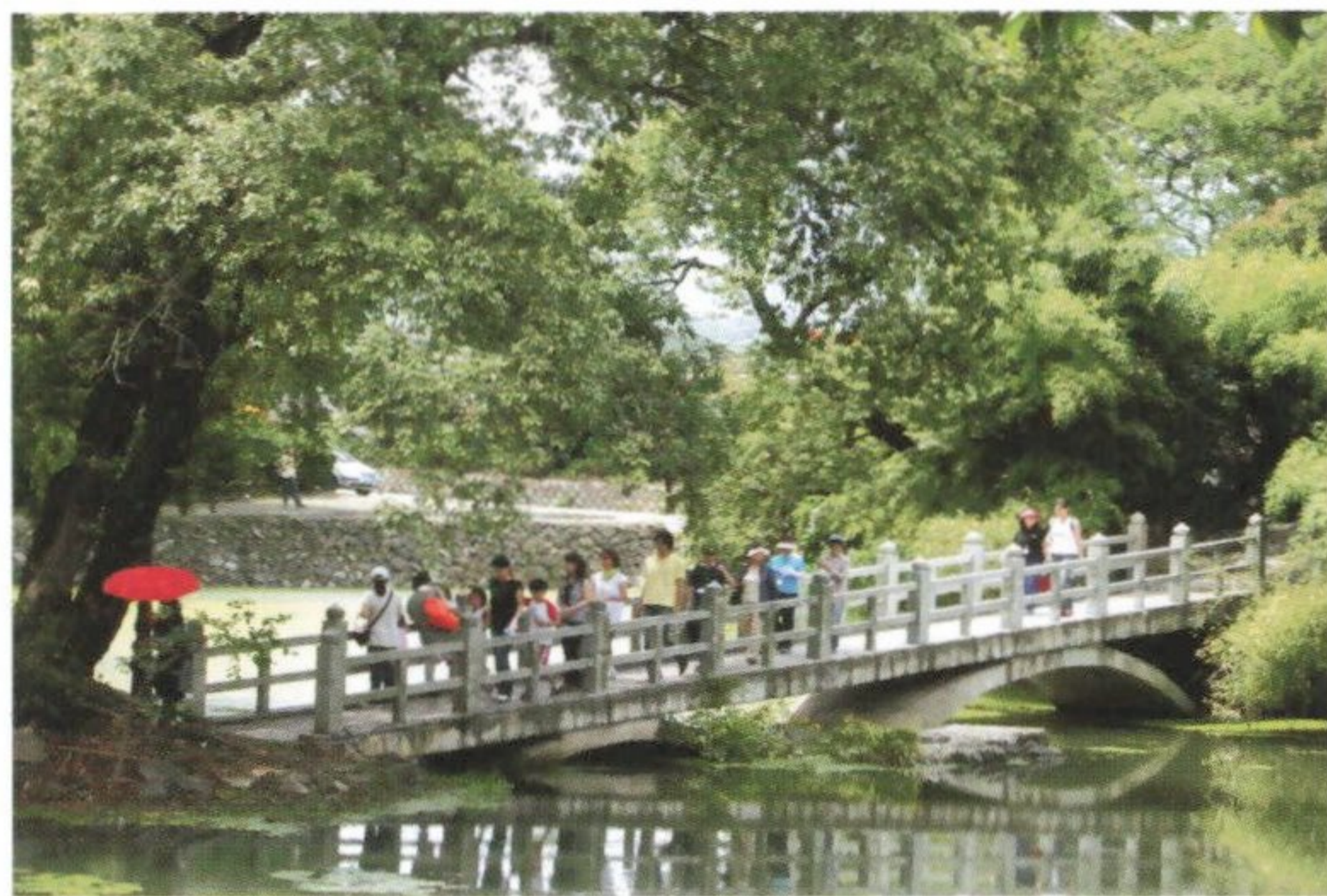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70
사무실 607-3171

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607-3100
FAX 607-3109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고장 함안



7월 테마여행은 설
새없이 쏟아지던 장마
비 때문에 출발하는
날 아침까지 마음을
졸였다. 7월 10일, 테
마여행에 참석하는 정
기회원들이 이른 아침
부터 부산문화회관 주
차장에 모였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심하게 불던 비바람에
'제대로 떠날 수 있을
까' 우려하던 회원들
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개인 하늘에
상쾌한 기분과 설레임
으로 여행을 시작했
다. 이번 테마여행에
는 부산시립국악관현
악단 단원 김지현, 김
현주, 김원지 씨가 동
행했다.

7월 테마여행지는 아라가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고장 함안. 옛 아라가야의 도읍지로 알려진 함안은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꽃피었음을 보여주는 선사시대 유물, 유적이 도시 전역에 산재해 있다.

정기회원 가족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지난 2003년 10월

문을 연 함안박물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아담한 규모의 함안박물관은 선사시대 유물부터 근대 유물까지 다양하다. 특히 지금의 아라가야라 불리는 고대 안라국(安羅國)과 관련된 유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함안박물관에 도착하자 전정렬 문화유산해설사가 마중나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안라국은 삼한시대 작은 나라였던 안야국이 성장하면서 4세기 때는 지금의 함안 뿐 아니라 인근 마산의 진동면과 현동지역, 의령과 진주의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후기가야의 중심국으로 성장했으나 561년 무렵 신라에 복속되었습니다.”

함안박물관에는 1992년 출토된 4~5세기 수장층의 말 갑옷과 환두 대도, 옥재 목걸이와 같은 지배계급의 유물과 수레바퀴 모양의 토기, 불꽃무늬가 있는 굽다리접시 등 아라가야만의 독특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토기류를 비롯해 도항, 말산리 고분군 일원에서 출토된 안라국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전정렬 문화유산해설사와 전시실을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박물관 인근 도항, 말산리 고분군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항, 말산리 고분군은 아라가야 왕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100여기의 대형고분들과 1,000여기가 넘는 중소형 고분들이 열을 지어 자리하고 있다.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반까지 만들어진 이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성립과 발전, 멸망의 과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고분군의 출토품과 같은 유물이 동래와 경주,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아라가야의 문화가 다른 가야와 신라, 일본에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함안박물관을 떠나 다음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 '무진정'. 조선 명종 22년 무진 조삼 선생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지은 '무진정'은 팔작지붕과 누마루 형식으로 지어진 앞면 3칸, 옆면 2칸의 정자로, 기둥 위에 아무런 장식



나 조각물이 없어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해 조선 전기 정자형 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겨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내곡리 여산 팔경마을을 찾았다. 봄이면 지천으로 피는 진달래와 벼랑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가을의 운치를 자랑하는 단풍나무 등 내곡리의 아름다운 풍광을 암각에 새긴 '여산팔경'으로 유명한 마을이다. 마을에서 직접 나는 각종 나물들을 맛깔스럽게 무쳐낸 점심식사로 오랜만에 고향의 손맛을 맛본 회원들은 마을을 둘러보거나 마을의 특산물인 맥아차와 옛기름, 꿀 등을 시식하며 소박한 고향의 정을 느끼기도 했다.

다음 일정은 정기회원들이 가장 기다리던 부산시립예술단원과의 만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김지현, 김현주, 김원지의 흥겨운 국악양상블 연주가 펼쳐지면서 연주회가 열렸던 마을회관은 금새 박수소리와 열기로 달아올랐다. 특히 이 날은 여산팔경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자리해 더욱 훈훈한 무대가 되기도 했다. 연주회 후에는 마을의 특산물인 꽃감을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썰낸 여산곶감떡을 맛보며 오후 체험장소인 칠북과수마을로 장소를 옮겼다.

한 여름 포도 익어가는 향기로 가득한 칠북과수마을은 포도와 단감, 복숭아를 주 소득작물로 재배하는 과수마을이다. 이날 정기 회원 가족들들은 신맛이 적고 달콤한 과즙이 많은 캠벨따기 체험을 가졌다.

지루한 장마기간 중 활짝 갠 7월 여행. 이번 테마여행은 지리한 일상에서의 즐거움으로 오랫동안 정기회원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글, 사진/정복엽)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편

9월 의병의 고장 의령

2009년 9월에는 의병의 고장 의령으로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 테마여행 응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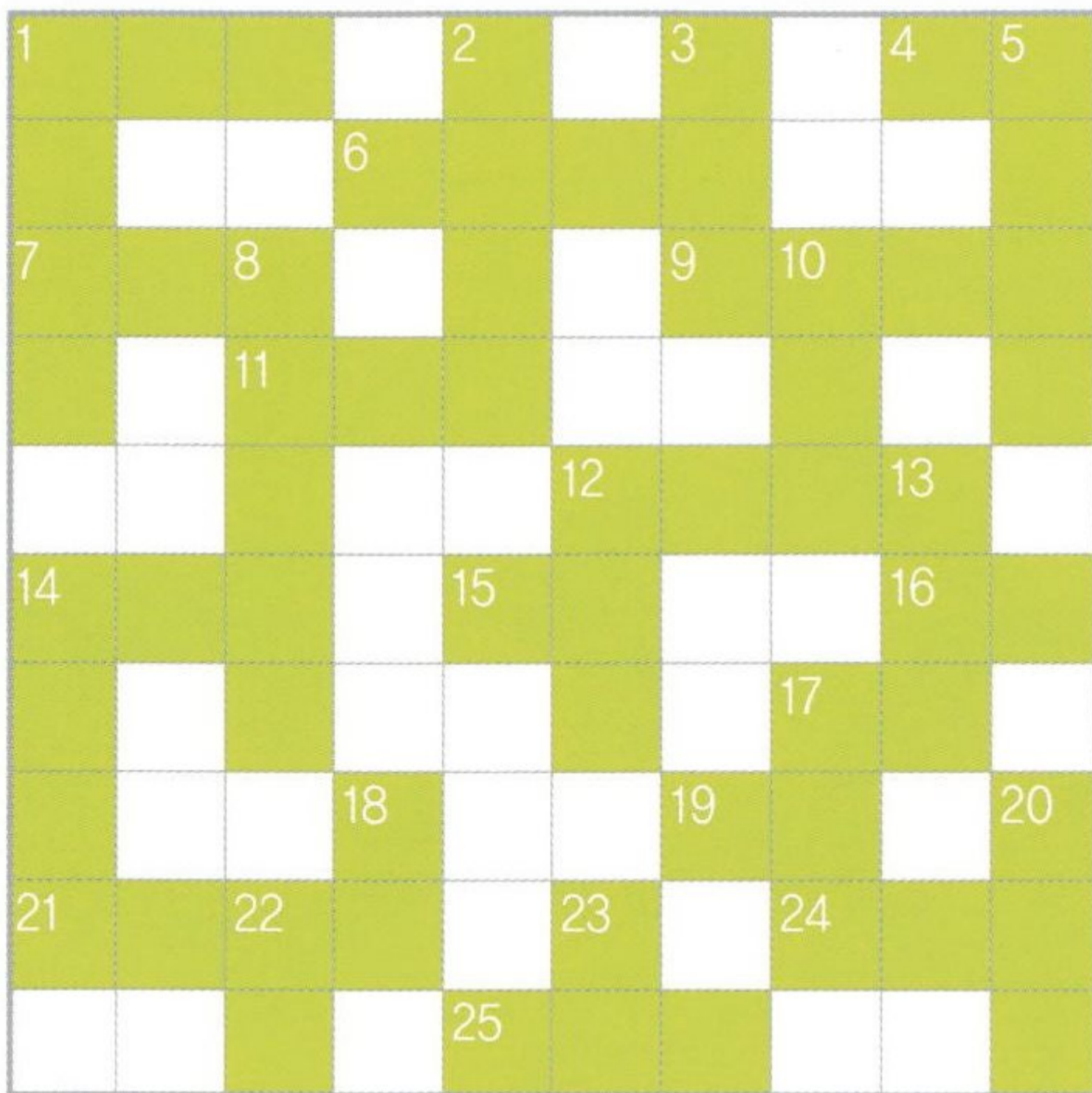
테마여행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테마여행에 참가하실 분은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8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8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래식은 내친구'에서 지휘와 해설을 맡은 지휘자.
- 물 속에서 한가히 놀던 물고기가 낚시꾼의 교묘한 수작에 속아 그만 잡히고 만 광경을 경쾌한 가락으로 그린 슈베르트의 가곡.
- 두 명의 남자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대표작으로 영화 '이지 라이더',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등이 있다.
- 조선시대에 사용된 로켓추진 화살. 2008년 김유진 감독, 정재영, 한은정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 신라 제27대 왕.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켰고 구휼사업에 힘썼으며 첨성대, 황룡사 9층탑을 건립

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 일정한 시점에서 본 물체와 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평면 위에 표현하는 방법.
- 여수, 순천사건에서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약 5년 동안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가 조정래의 소설.
- '물레방아' '뽕' '빙어리 삼룡이' 등 객관적인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발표한 근대소설가.
- 전라남도 서부에 있는 군(郡). 매년 5월 수만 마리의 나비가 장관을 만들어내는 나비대축제가 열린다.
-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겨레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윤극영의 동요.
- 주로 실내에서 보고 즐기는 관상용의 자연석.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 곳.
- 중앙아메리카 북서단에 있는 나라. 마야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300년 동안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1847년 정식으로 공화국이 되었다.
-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선이 달라지는 등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 조선 여인의 아름다움을 잘 들어낸 회원 신윤복의 걸작.

세로

- 조선 세조 때에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 대기업 및 일간신문,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국회에서 참여한 논란을 벌이다

- 7월 22일 국회부회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법
- 조선 말기 천재적 화가 장승업의 일대기를 그린 임권택 감독, 최민식 주연의 영화.
- 프랑스작가 생텍쥐페리의 동화.
- 베토벤의 6번째 교향곡. 자연에서 받은 분위기와 정서를 표현했으며 베토벤 자신이 직접 제목을 부쳤다.
-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母山)이라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 나팔 모양으로 된 우리나라 고유의 관악기. 호적(胡笛), 쇠납(瑣唳), 날라리라고도 불린다.
- 석영과 장석이 섞여 보리밥으로 만든 주먹밥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돌.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찜질방, 식기, 의류기 등에서 이용된다.
-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
- 8월 출고를 앞두고 있는 최초 국산헬기의 이름. 독수리의 OO와 100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O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독수리의 용맹함과 국산화 100% 및 완벽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고대 하와이음악에 따라 발생한 하와이의 독특한 무용으로, 춤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 조선 시대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지휘자. 근대음악 발전의 과도기에 절망감이나 염세관, 종교적이라고 할 만한 고독한 만족감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대표작 '대지의 노래', '젊은 나그네의 노래' 등이 있다.
- 일제강점기 때 노래활동을 시작한 '가수 1세대'의 대표적인 대중가수. '신라의 달밤', '비 내리는 고모령', '굳세어라 금순아' 등으로 격동의 시대에 서민들의 아픔과 향수를 달래주었다.

지난호 정답

돈	키	호	테	아	사	달	태
조	헤	마	마	당	극		
반	밀	란	쿤	데	라	기	
니	체	로	우	아			
스	시	라스	베	가스			
히	나	발	컴	펜	싱		
말	리	스팅	오				
라	디오	스타	카	마			
야	워	킹	홀	리	데이		
물	랭	루	즈	나	산		

퍼즐당첨자 명단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김나미(사상구 주례2동)
- 김광웅(사하구 당리동)
- 김아름(서구 부민동 3가)
- 석상훈(부산진구 부암1동)
- 안은실(북구 화명3동)

■ 큰집

- 구미선(사하구 장림1동)
- 박미선(사상구 학장동)
- 박석수(부산진구 범천2동)
- 박인규(동래구 사직3동)
- 황정애(수영구 광안4동)

■ 나랏소

- 김미선(서구 초장동)
- 김수기(부산진구 주례동)
- 이봉주(남구 대연3동)
- 박선영(남구 대연3동)
- 박진규(동래구 사직동)

■ 공간 소극장

- 강주찬(해운대구 반송 3동)
- 권달순(수영구 광안4동)
- 이중희(수영구 광안2동)
- 신영은(동래구 사직동)
- 주상수(수영구 남천동)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TEL.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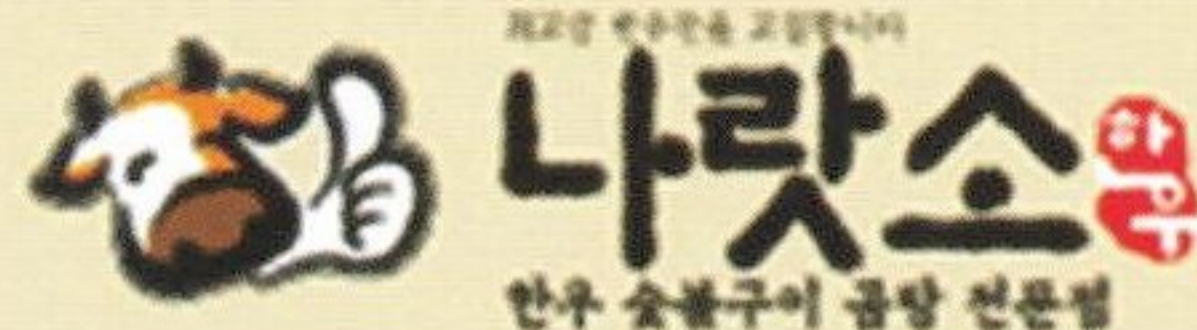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세계적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제3기 문화대학 수강생모집

부산 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고품격 강좌를 개설합니다. 한국문화예술계 최고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제3기 문화대학 강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운영기간 2009. 9. 2 ~ 10.21/기간 중 총 8회 실시
- ✓ 시 간 매주 수요일 14:00~16:00 ※각 회별 수업시간 변경될 수 있음
- ✓ 장 소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 ✓ 모집인원 100명(일반인)
- ✓ 신청기간 2009. 8.3(월) ~ 8.28(금)
- ✓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공연과) 방문접수 or 팩스(607-6049)
인터넷(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접수
문화대학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09. 8. 31(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신청서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 ✓ 수 강 료 30,000원(교재 제공)
- (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7-9 부산문화회관)
- ✓ 문 의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6, 6057 문화대학 담당자

첫째주 (9.2)	김동규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생활속에서 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다섯째주 (9.30)	문화숙 문화병원장 중요한 여성질환 5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둘째주 (9.9)	황의종 부산대 국악과 교수 한국음악의 아름다움		여섯째주 (10.7)	최영철 시인 시와 삶	
셋째주 (9.16)	도용복 오지여행가 음악이 있는 세계 문화 기행		일곱째주 (10.14)	고인범 연극인 방송인 생활속 연극의 힘	
넷째주 (9.23)	채경혜 판화가 재미있는 판화이야기		여덟째주 (10.21)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클래식음악을 재미있게 듣는 법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가 9월 1일부터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로 바뀝니다

부산문화회관 자체 전산 예매 시스템 가동으로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제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립예술단 공연 등의 좌석을 할인된 금액으로 자유롭게 선택, 예매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구분

구 분	특별회원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회 비	50,000원	30,000원	20,000원

변경내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명칭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으로 바뀝니다.
- 기존 공연 횟수 차감방식에서 할인제도로 전환됩니다.
 -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 할 인 율 : 기획공연 5~30%, 예술단 공연 5~20%, 대관공연 0~50%
 - ▷ 좌석선택 : 전체좌석에서 선택가능
 - ▷ 할인횟수 : 제한없음(회원가입 기간 동안 예매 외 현매시에도 할인혜택 제공)
 - ▷ 서 비 스 : 조기에매 기회 제공, 문화강좌 할인, 기존서비스와 동일서비스 제공
- 회원 종류에 따라 공연 할인 매수가 달라집니다.
 - ▷ 특별회원 : 가입비 5만원, 1회 4매 할인
 - ▷ 일반회원 : 가입비 3만원, 1회 2매 할인
 - ▷ 청소년회원 : 가입비 2만원, 1회 1매 할인
- 정기회원 단체 가입은 30명이상 가입 시 10% 할인됩니다.
- ※ 기존 가입자는 기존 서비스 적용을 받습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회원제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돈키호테

★ 본 공연 30분전 객석에서 '문훈숙 단장의 돈키호테 감상법' 과 함께 하세요
★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공연 중 장면에 대한 자막 해설이 제공됩니다.

2009.10.9 | 금 | 오후 7:30~10 | 토 |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유니버설발레단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예 매 : ticketlink^h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예리한 액센트, 절제된 다이내믹, 이 시대 진귀한 첼리스트!

2009.11.23 | 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예성기획

입장료 : R석 150,000원 · S석 120,000원 · A석 80,000원
B석 50,000원 · C석 30,000원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예성기획 582-202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출연
유키 구라모토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매회 전석 매진의 신화

유키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Romance

2009.11.24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주)크레디아
입장료 :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예 매 : ticketlink^h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피아니스트 핌킨 콜린

첼로 장한나 초청 독주회

Brahms Cello Sonata

2009.12.3 | 목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주)피엠지코리아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8월 3일~28일까지 조기에매시 20% 할인)

조기에매 : ticketlink^h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행비 **5%** 할인받으세요!!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BEST 인기여행

인기여행 베스트3
초강력 추천!!



[신.감.각] 실속여행
상해/항주/소주 4일

CCP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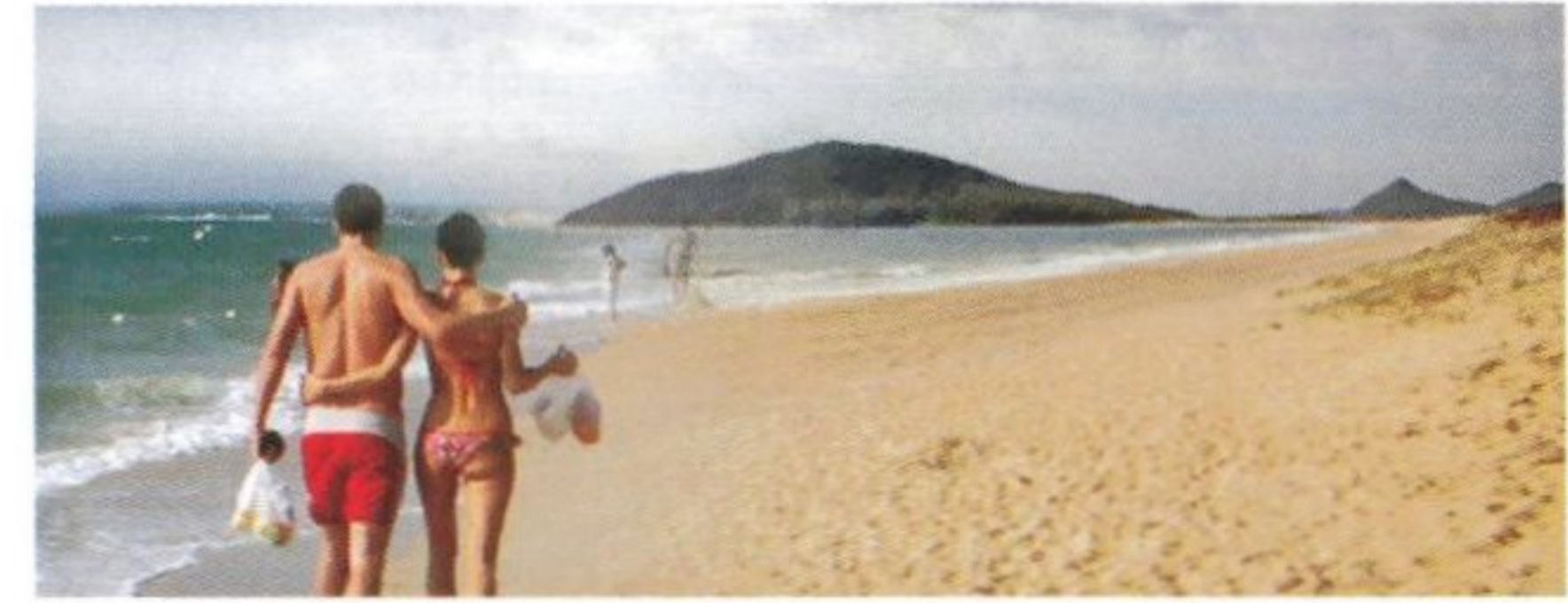
199,000원~



일본만의 특별한 매력
카멜리아 북큐슈 온천 3일

JKP560

259,000원~



부산출발
방콕/파타야 4,5일

AAP701

459,000원~

강력추천 국내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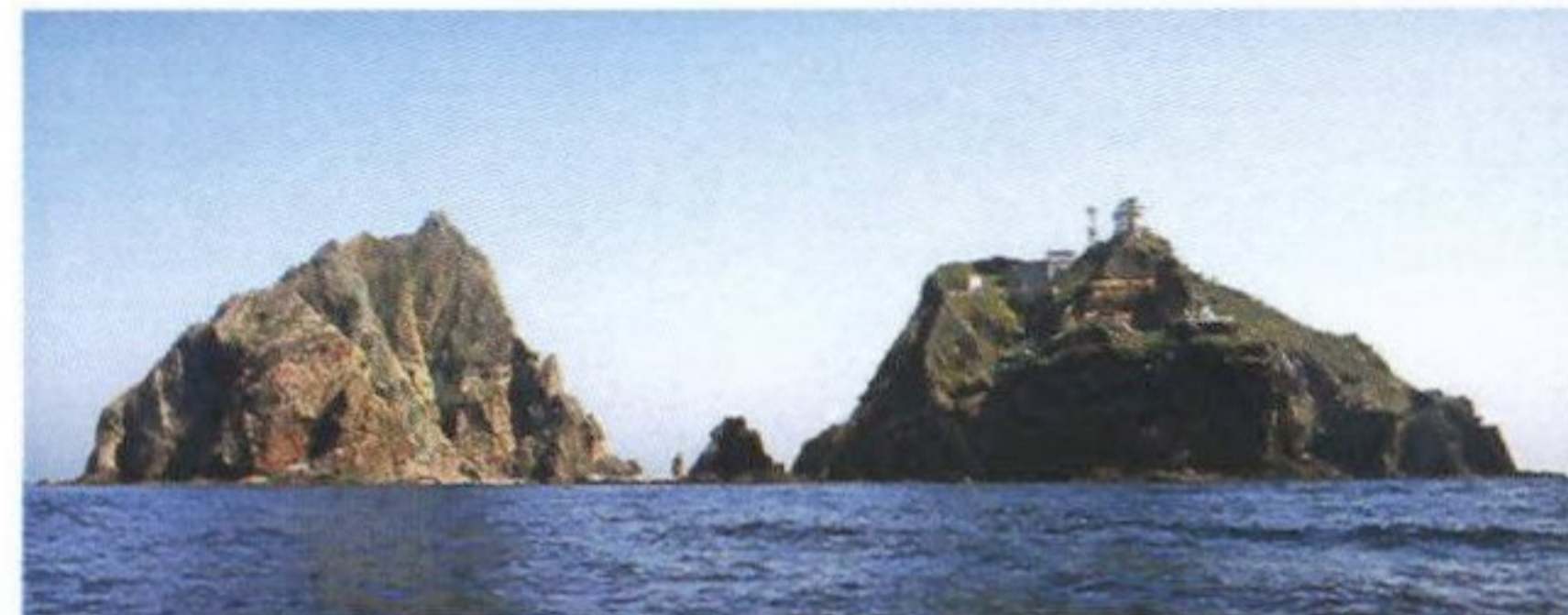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내 가족여행



[당일여행] 초록빛 물결~
보성녹차밭 + 담양죽녹원 당일여행

AKFK32

14,000원



우리의 자존심과 자부심
울릉도/독도 2일, 3일

AKFK00

27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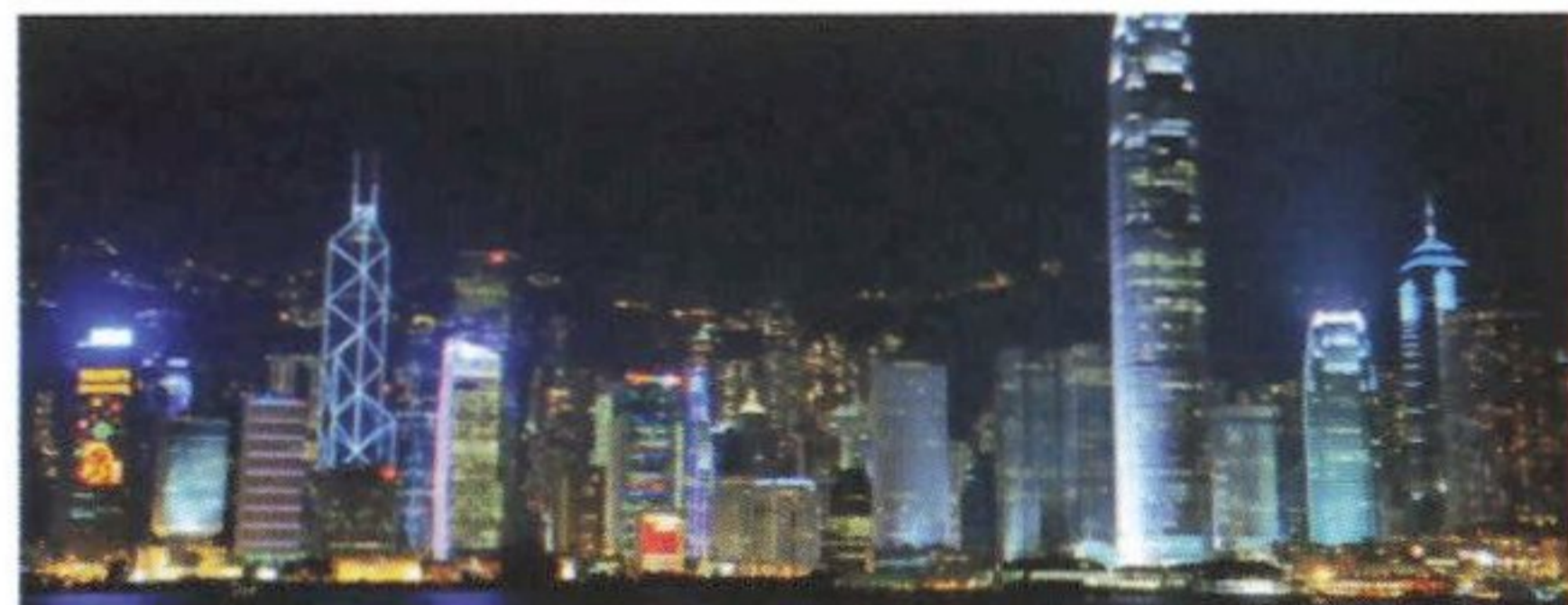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우도와 제주 일주여행 3일

AKPK51

270,000원~

쇼핑천국 홍콩여행

쇼핑과 놀이의 천국
일석이조! 홍콩여행



홍콩 쇼핑홀릭
홍콩 자유여행 4일 (부산출발)

CHA703

469,000원~



어린이들의 꿈의 낙원
홍콩 디즈니랜드 3, 4일

CHP705

649,000원~



실속 패키지 여행
홍콩 마카오 심천 4일, 5일

CHP704

799,000원~

관/사이판 가족휴양

부담 없이 직항
가족 휴양 여행!!



부산출발 [전세기] - 추천!! 가족 휴양여행
괌 PIC 리조트 5일

PGP701

1,249,000원~



부산직항 - 추천!! 가족 휴양여행
사이판 '특급-월드리조트' 6일

PSP703

1,299,000원~



추천!! 럭셔리 휴양
사이판 '초특급 하얏트' 5일

PSP701

1,2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김수현 직통전화 070-8270-2579 / 박상헌 직통전화 070-8270-7774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www.hihana.co.kr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8월 8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박성희판소리연구소 공연



□ 프로그램

현악합주 '수요남곡' / 단가 사철가
 심청가 중 '심봉사가 딸 찾으러 나가다 개천에 빠지는 대목'
 적벽가 중 '군사 설움 대목'
 흥보가 중 '제비구원 ~ 제비노정기'
 특별공연 장구 합주 '다드리-점 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구성/신문범)
 춘향가 중 '사랑가'
 수궁가 중 '토끼가 세상 살아 돌아와서 자라한테 욕을 퍼붓는 대목'
 · 소리/박성희 · 고수/신문범
 · 특별출연/(사)새울전통타악진흥회 이봉우, 장주영, 이경희,
 권보름, 최정욱, 권두솔, 박민지, 강우담

8월 15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서지영무용단 '광복, 신명 춤잔치'

□ 프로그램

전통무용 허튼신명춤(출연/서지영) 즉흥성이 강조되며 어디에서나 쉽게 출 수 있는 춤으로 인생의 연륜에서 표현되어지는 멋스런 아름다움으로 어우러진다.
 창작무용 '아리랑춤, 하나'(출연/윤정미, 조현영, 왕정희, 신영지, 정선영) 밀양아리랑 변주곡에 맞추어 우리춤의 신명을 환희로, 연약한 화초에서 들꽃의 강인함을 함께 표현한 창작무용.
 전통무용 한량무(출연/김기원) 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상의 여유와 기개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
 모듬장고춤(출연/서지영, 윤정미, 조현영, 정선영·반주/이주현, 최정민) 신무용 계통의 장고춤과 설장고의 가락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진도북춤(출연/남선주, 서시영, 이진주, 안정미) 양손에 북채를 쥐고 다양한 가락을 구사하며 힘찬 진군과 일복시 노동의 신명

을 표현한 작품.

소고춤(출연/윤정미, 조현영, 서시영, 왕정희, 신영지, 정선영, 이진주) 소고를 이용하여 도약과 회전을 주된 표현으로 한바탕 휘돌아가는 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공연



□ 프로그램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군무 과장-문둥이 과장-양반과장-영노과장-할미·영감과장
 1967년 12월 2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동래야류는 부산의 10가지 자랑거리로 지정된 부산을 대표하는 민속가면극으로 양반계집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중극장에서 공연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부산예중, 부산대학교 등에서 국악수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부산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은 전통음악, 크로스 오버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독주, 중주, 관현악을 들려주고 있다.

□ 프로그램

25현가야금 3중주를 위한 '오봉산타령'(가야금/박경진, 서재원, 양아실)
 한범수류 대금산조(대금/신승윤·장구/황진삼)
 여창가곡 우조 우락(노래/정다운·거문고/최경철·대금/신승윤·해금/최유리·장구/박우정)
 판소리 '춘향가' 중(판소리/김다솜·고수/정온다)
 2대의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3중주 '모닝'(해금/고예슬, 최유리·피아노/이혜선)
 신명나는 사물놀이(출연/박우정, 김보람, 정온다, 황진삼)

※해설, 음악감독/홍희철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9년 9월 11일(금) 의병의 고장 의령, 의병 유적지 순례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객재우 홍의장군과 17장령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있는 의병의 고장 의령으로 떠나는 여행.

의병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남강을 따라 의병 전적지를 뗏목으로 탐사하며 호국정신을 함양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의령도착-충익사, 정암진, 객재우 생가 탐방
- ▷ 12:00 중식
- ▷ 14:00 뗏목 탐사(장박교→화룡정)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2009년 10월 9일(금) 별빛 추억 가득한 영천 가을 여행

‘별의 수도’ ‘별의 도시’ 영천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영천 유일의 국보인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을 시작으로 폐교에서 아름다운 미술 휴식공간으로 변신한 시안미술관, 영천의 자랑 별빛 포도 수확 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가을 여행을 떠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09:30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답사
- ▷ 12:00 시안미술관 도착, 중식 및 전시관람
- ▷ 14: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5:30 보현산 별빛 포도마을, 머루포도 따기 체험
- ▷ 16:30 부산으로 출발

8월 기차타고 떠나는 청도여행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골든 브라스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2009년 8월 14일(금) 오후 4시 청도 아트갤러리 청담

-청도 8경중 하나인 유호연지의 아름다운 연꽃이 장관을 이루는 아트갤러리 청담에서 즐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단의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
 성자의 행진, 리수스트롬본
 뉴욕 뉴욕 등 수곡



청도 아트갤러리 청담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10%** 할인



2009. 8. 6(목)~8. 30(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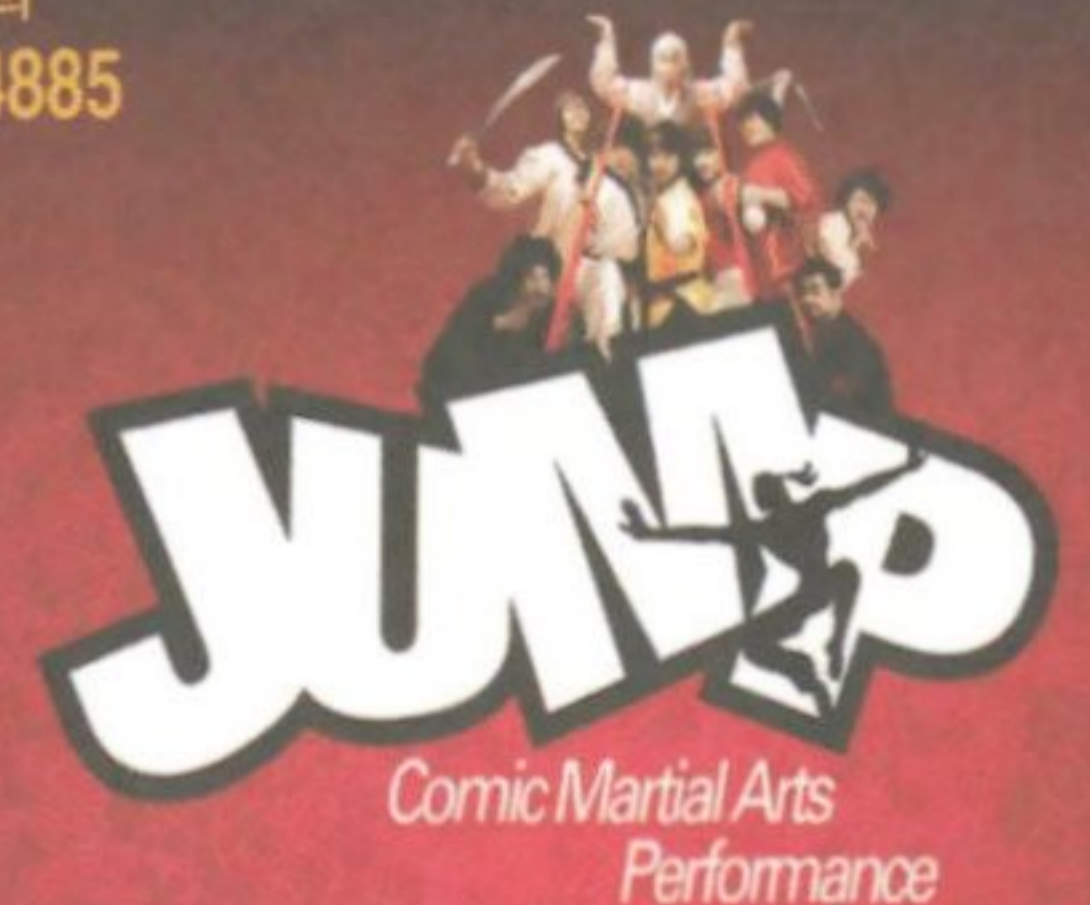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IBK (세운대그랜드호텔 B1)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부산원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화려한 음악여행

무더운 여름! 부산원드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시원한 음악선물

2009.8.14 | 금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백진현 협연 매그너스 닐슨(바순), 차창현(트럼펫)

특별출현 김형주 아카데미 DIMF어린이 뮤지컬

입장료:균일 10,000원 문의:윤두현(010-5872-8480)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하늘아래 그 콘서트

도시적 삶의 코드 우리들만의 아지트가 생기다!
속닥한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 하늘아래 그 콘서트!



이한철
9.11(금)



노리플라이
10.16(금)



심현보
11.13(금)



이지형
12.11(금)



킹스톤루디스카
2010. 1.15(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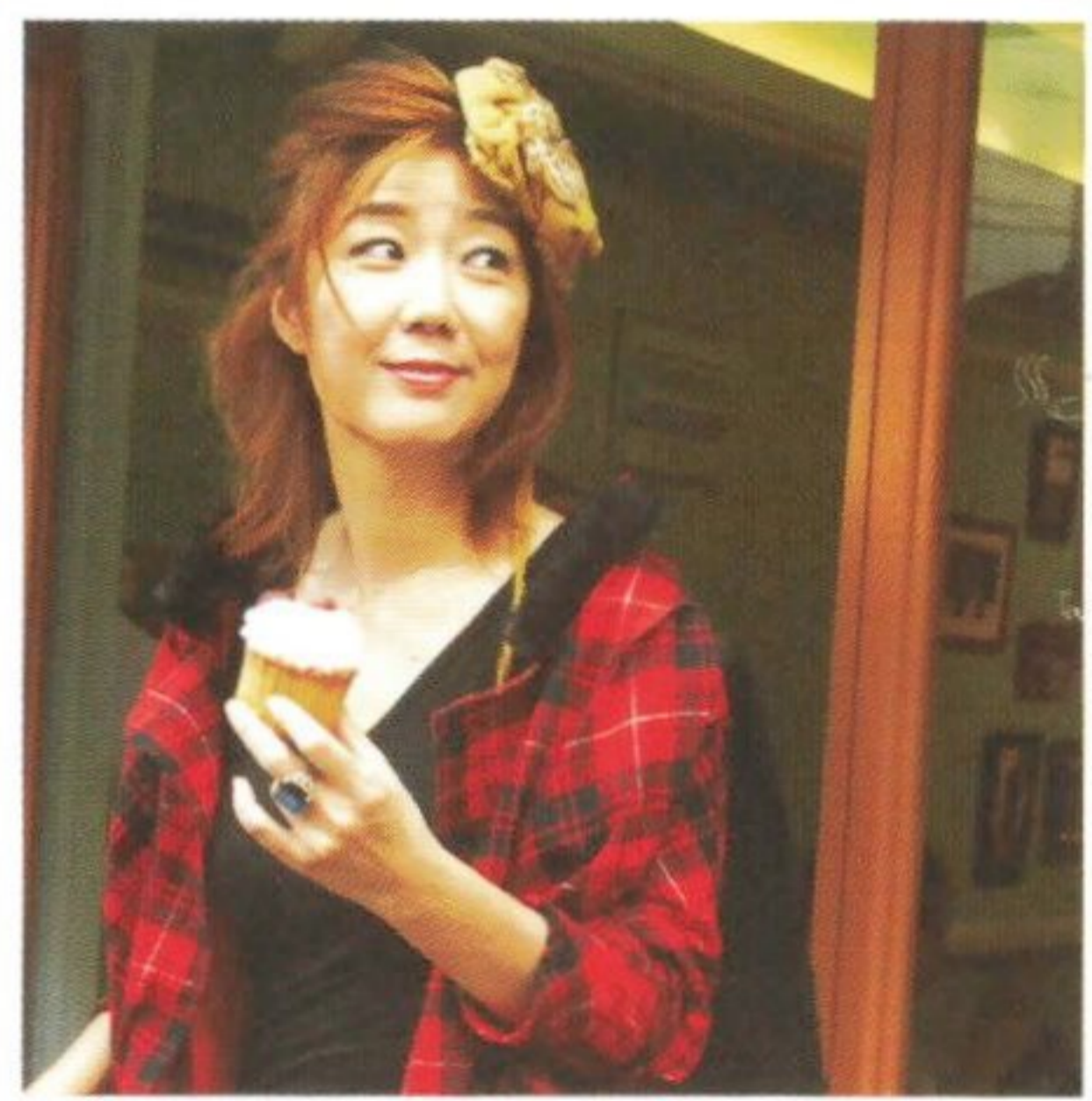
세렝게티
2010. 2.19(금)



소규모아카시아밴드
2010. 3.19(금)



오지은
2010. 4.16(금)



이상은
2010. 5.14(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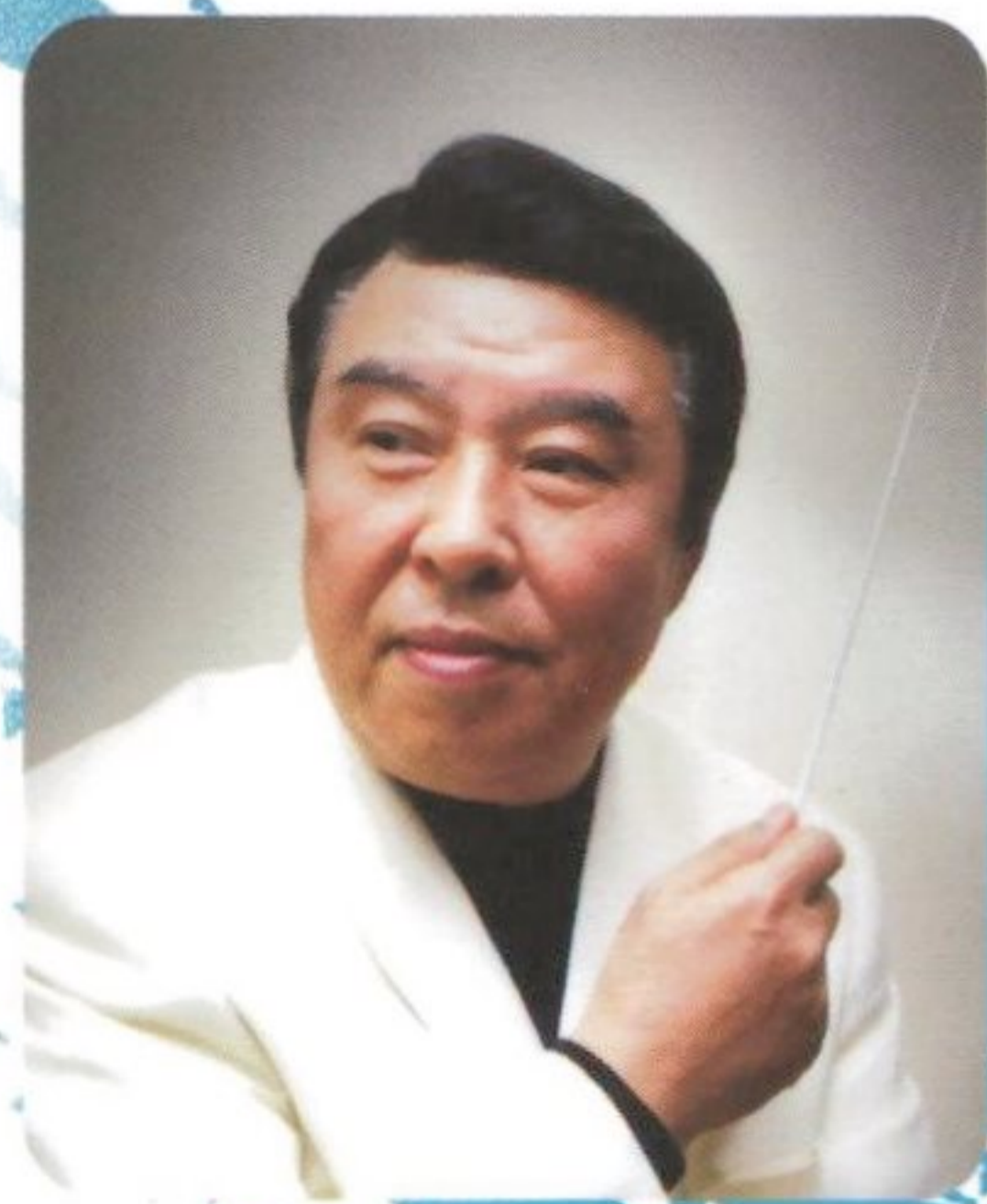
* 이 공연은 출연진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우리만의 흥미진진한 라이브쇼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는 도시남녀들과 인생의 터닝포인트 앞에 선 그들의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09.09.11 | 금 | ~ 10.08.13 | 금 |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예매 : [ticketlink](http://ticketlink.co.kr)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국악과 성악의 한 여름밤의 콘서트 만남



개원지휘 배양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 협연 | 소리 장사익
가수 주현미
모듬북 신문범, 최오성
민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9. 8. 20(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광역시 | 후원 | Focus | 협찬 | BS 부산은행

|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41~7 <http://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607-31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3121~4 <http://www.bsgugag.com>

| 예매처 | BS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 입장권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부산시립예술단정기회원 20%할인(전석 1인당 4매) | 단체(30명 이상), 티켓링크회원(1인당 4매) 10%할인(전석)